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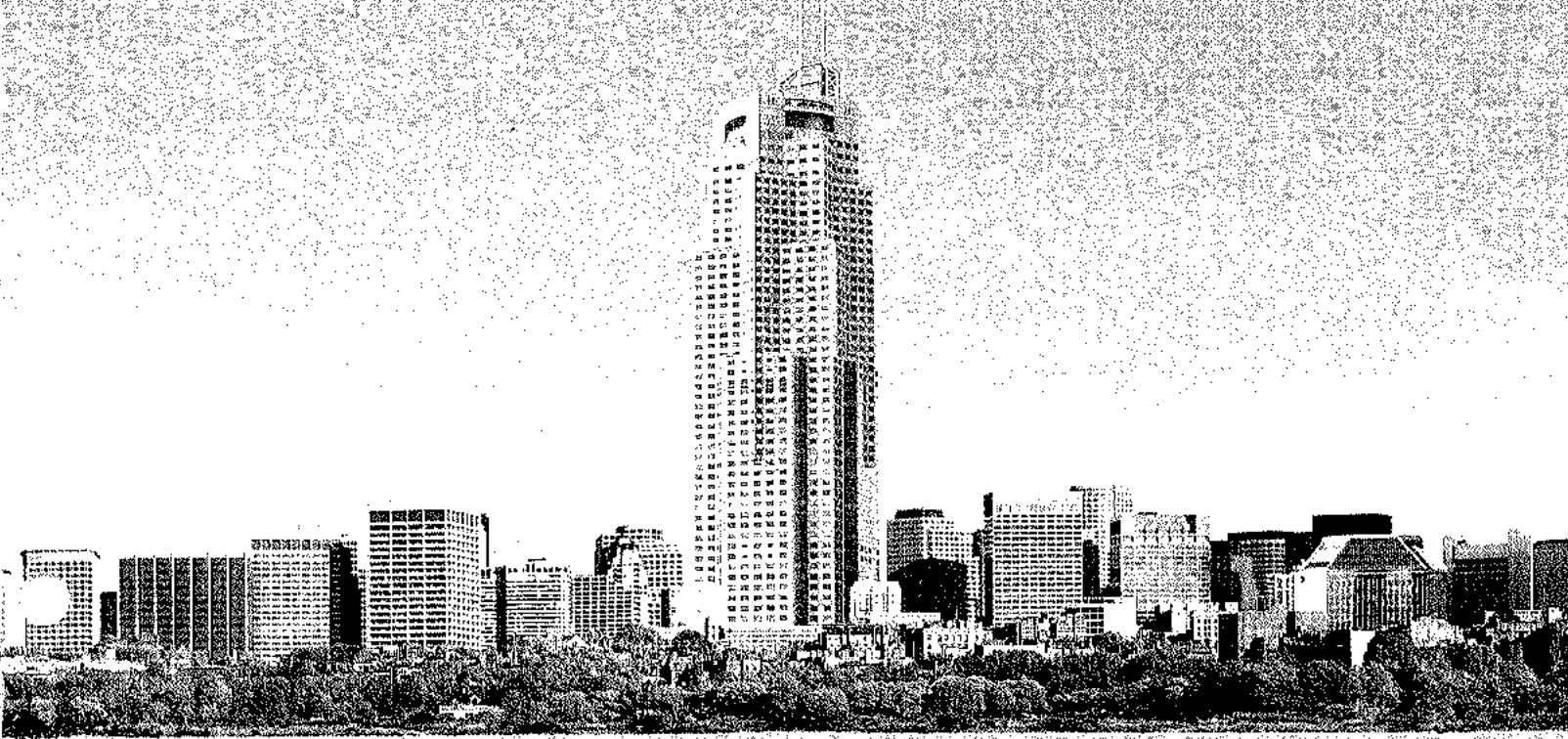
건축사



큰 건물에 강한 첨단 시스템에어컨

MULTI V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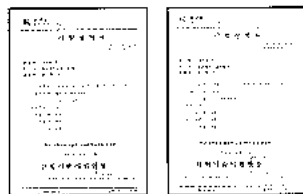
에너지에 도전하기까지 성능도 뛰어난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MULTI V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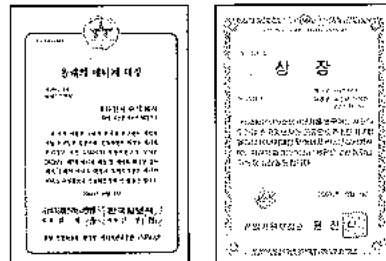
최대 46마력의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으로 중대형 빌딩 공조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 실외기 용량 : 최소 5Hp에서 최대 46Hp까지
- 120m 최장배관, 50m 수직배관
- 고급 중앙제어, PC/인터넷 중앙제어, 적산전력 분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Network Solution 시스템
- 국내 최초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
: LRP-N4600BH, LRP-N5800B, LRP-N5800BH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서

★ 소비자 및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 MULTI V - 제7회 2004 올해의 에너지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 건설사 영업팀 0212005-3052 • 강남 022605-3596 • 경북 02727-4183 • 경기 033267-0873 • 인천 032321-9162 • 충남 062510-5842
• 충청 0421388-0633 • 부산 051907-3242 • 경남 0553264-7494(국주프림) • 경북 0531257-0808 *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기존 실외기 설치 대비 설치면적 44%, 슬리브 권장 50% 축소)

난방비 걱정 끝!



세계에서 인정받은 바닥난방 초절전 온수 방열관!

일반용전력으로 심야 전력기기 보다 저렴한 난방!
기존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이 가능!
기름보일러 대비 70% GAS 대비 50% 절감 가능!

1.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밀폐한 XL관 내에서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를 방열로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2. 소음, 공해, 화재, 폭발, 전자파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청정에너지 바닥 복사 난방
3. 보일러가 불필요하고 기계적 장치가 없어 건물수명과 같은 영구적 난방
4. 관리비용이 불필요한 난방 : 대형건물은 물론 기숙사, 연수원, 호텔 등 숙박업소, 군·경내무반, 병원, 콘도 등 어떤 건물이라도 각방 온도제어를 안내인 혼자 관리하는 난방 System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던 온돌히터를 XL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기존배관에 복수의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참조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전기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특허청
- 『신기술 개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인증업체
- 『ISO 9001:2000 인증』 업체
- 『품질보증인증(Q마크)』 업체
- 『전자파 환경인증서』 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업체

※ 당사 초절전 온수 방열관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463-1041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회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23-4 잠진빌딩 305호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1010cy@korea.com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PL법영업대상책임도면
3억
현대대상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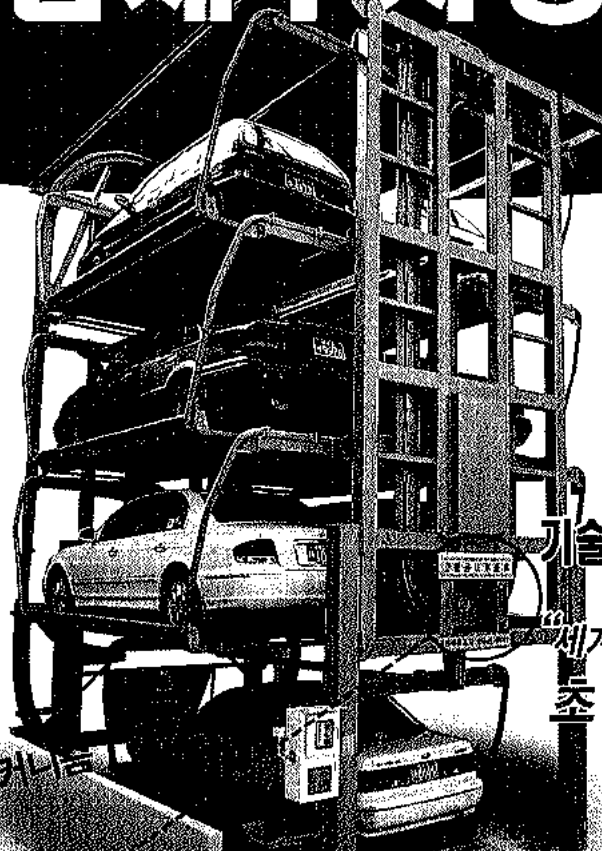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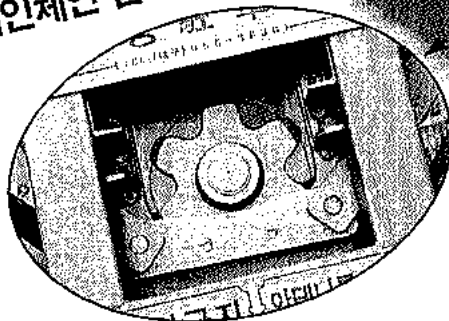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신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난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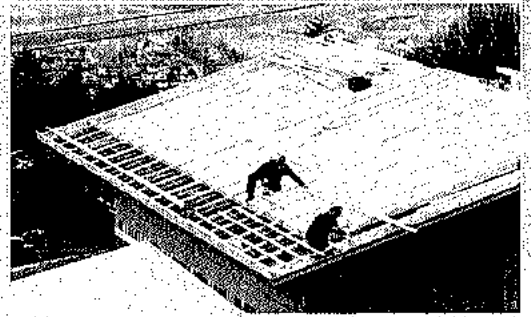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0283726호

명	원	한글단어(한글)
수용 차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3000kg 이하)	
구동방식	미전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기	
정격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전원	AC 380V/220V · 3φ · 50Hz	
지상 폭	약 1000mm	

CE ISO 9001



탁월한 단열효과

명일폼테크 기계로 개발한 -

스타폼 (STAR FOAM)

스타폼(STAR FOAM)은 상압식 압출발포 폴리스티렌 보온 단열재입니다.

상압에서 발포해서 제조하므로 타공법에 비해 같은 체적내에서 독립기포의 수가 적고 치밀하여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내습, 내수성과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최고급 품질의 난연성 방수단열재입니다.

1

최소 두께 20mm

상압발포 공법으로 생산되는 스타폼은 미세한 독립기포내에서 기체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화탄소를 충전하였기 때문에 단열재중 가장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기포의 미세한 기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로 인한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압축강도 우수

독립기포구조를 가진 스타폼은 압축보드 중 최고인 최대하중 60Ton/m²까지 견디는 다양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를 지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빌딩, 주택, 주차장, 활주로, 옥상층, 고속도로, 냉동창고 바닥, 아이스링크바닥 등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3

내습·내수성 우수

다른 단열재와는 달리 미세한 연속독립기포로 형성된 스타폼은 흡수율이 거의 없어 기존의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4

자기소화성

난연재를 투입하여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는 아니지만 불연재로 마감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표면 거칠기 우수

시공시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칼, 톨, 열선 등으로 쉽게 규격대로 절단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작업이 편리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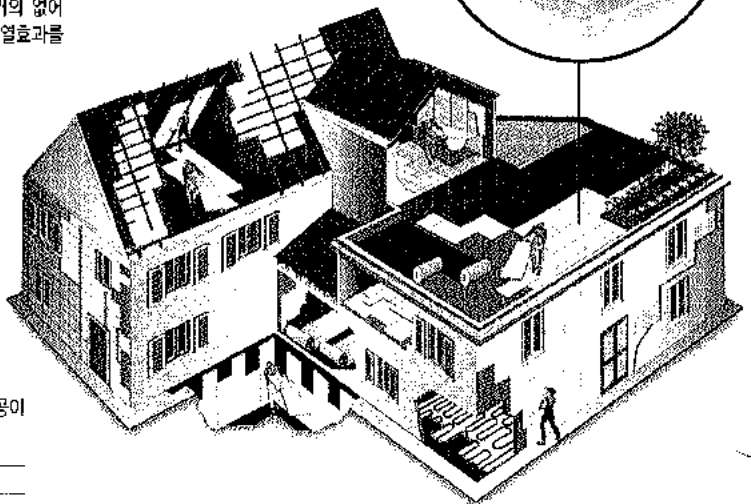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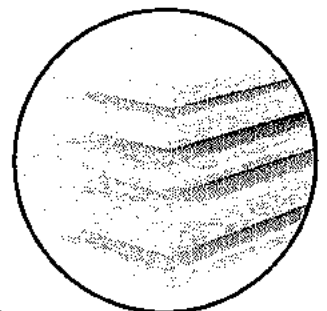
6

절단·처리 용이

두께 20~120mm 까지 생산 가능하며, 다양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하여 시공이 훨씬 편리합니다.

① ② ③

스타폼 (STAR FOAM)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の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연 6.4%~7.2%

기간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기능)

대출기관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5.7%~6.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 _ (02)545-8853~4

Fax _ (02)545-4939

HP 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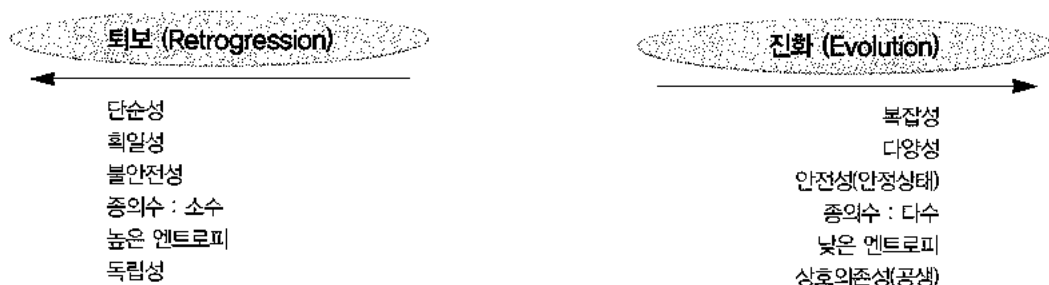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육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더욱 더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면서,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둘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보적 관계로 얹혀있다. 서양적 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관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 매김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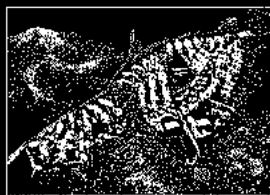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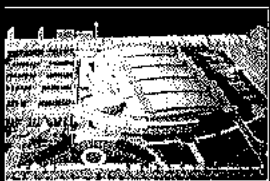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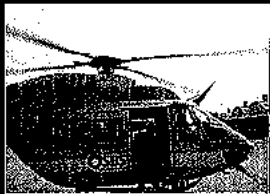
자연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 L. 맥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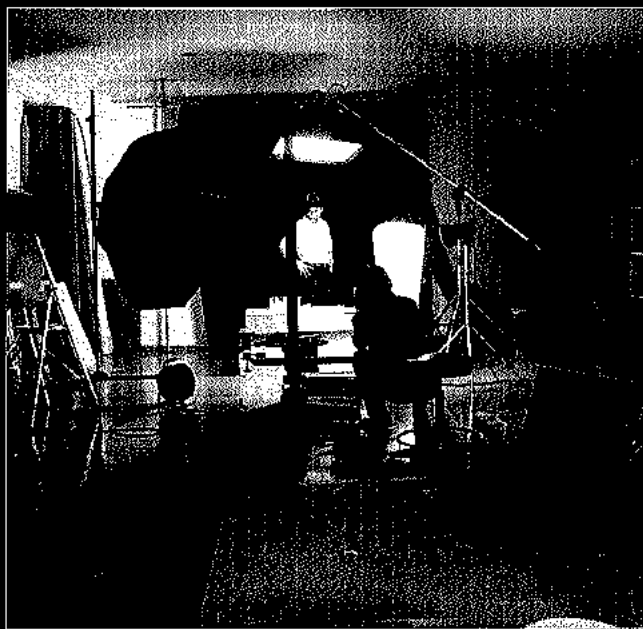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 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전성, 상호의존성(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서들 : 땅, 물, 바람, 빛, 수목, 경사지



CHAI Communication Photo Studio

Architecture · Interior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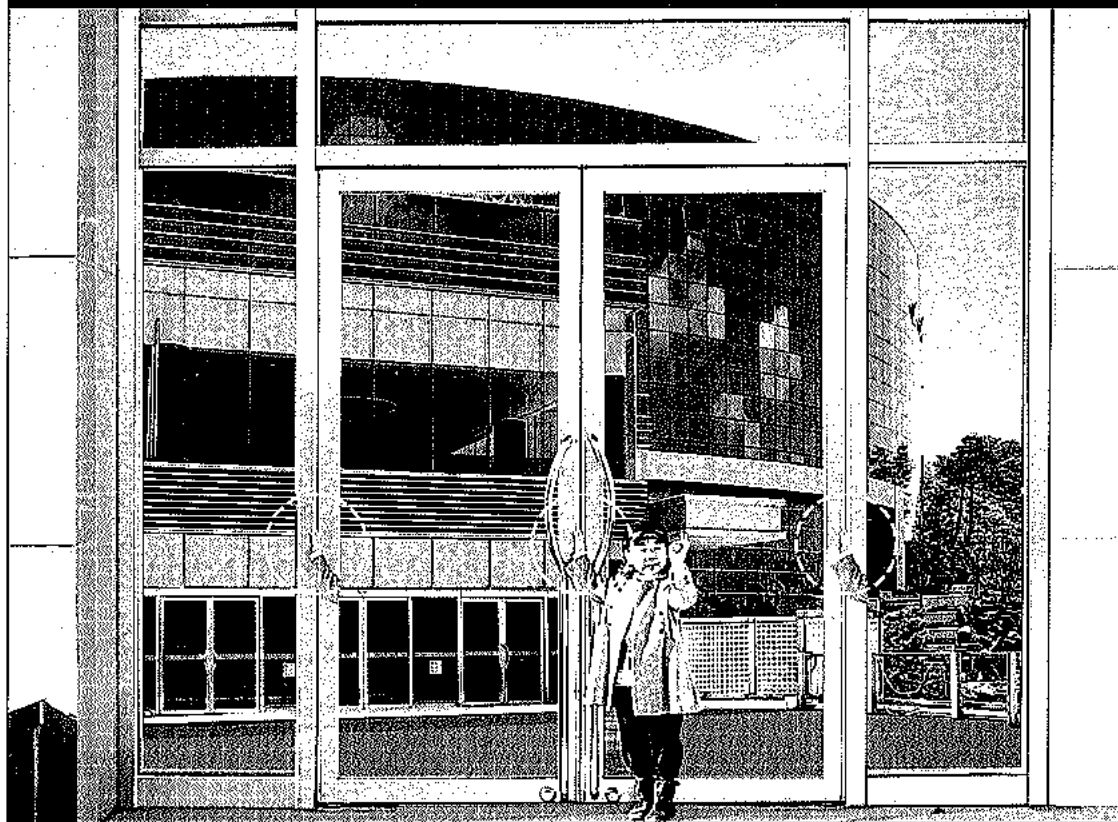
Tel: 02)576-5146, Fax: 02)576-7377
CHAI Communication Photo Studio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6-11 차이스 2층
www.cha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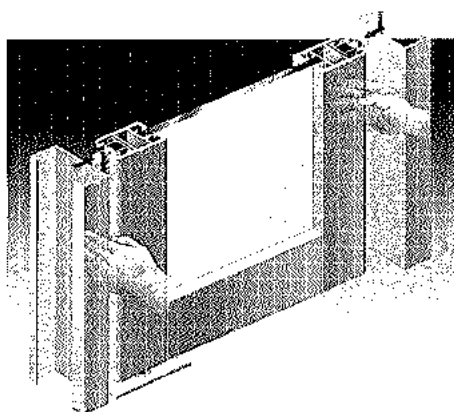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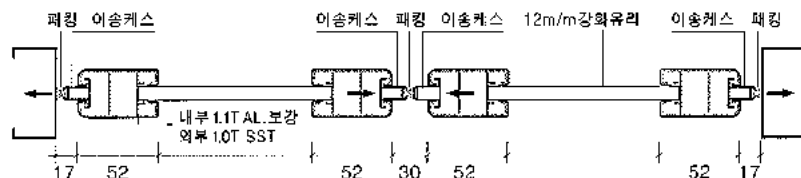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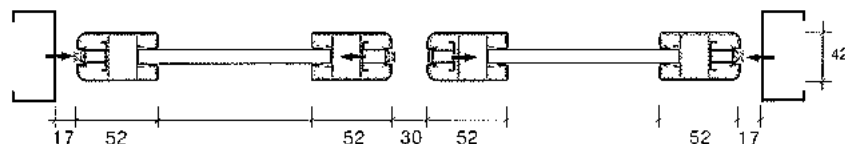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 사용 상태도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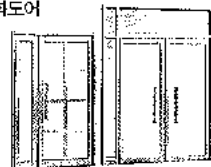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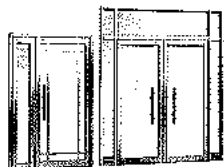
※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설치 장소 /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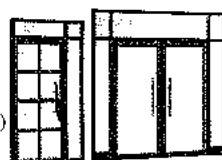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 골드세이프 강화도어



• A.L. Color(불소코팅)
세이프 강화도어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전 화 : (053)325-9800/325-98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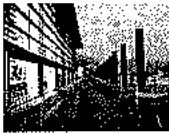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 기업 등록 업체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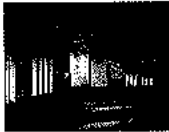
22



28



37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7 423호

칼럼	건축사 여러분께	진진삼	14
건축만평		유원재	47
회원작품	금강휴게소	인익식 · 장명희	18
	천주교 서울대교구 진농동성당(성모칠고성당)	박재환 · 안기돈	30
	외정부 의화청사 및 정보도서관	전병직 · 박서영	40
	어깨동무어린이집	박영준	48
	나사렛교회	최동규	56
	안제타워		66
작품노트	서울로얄호텔 지층부 외관 리모델링	배민선 · 오덕근	72
기고	지하건축물, 짓자 말아야 한다	이관표	76
	제10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김한희	8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1	조재식	86
건축마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6
	현상설계		106
	협외잡지동향		122
	회원갤러리		127

발행인 김진삼, 정영준, 김중복, 박영준, 손기철, 오성훈,
윤시덕, 이만, 이재철, 이종호, 주수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전국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5 동아대우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8-0000
팩시밀리 02-588-0000
인터넷 http://korea@kire.or.kr
E-mail korea@kire.or.kr
인쇄인 김중식/제이아트 02-2209-78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5

53

61

korean architect

Vol. 423
July 2004

Column

Dear Korean Architects J.S. Jahn 11

Cartoon

Yoo Won-Jai 17

Works

Geumgang Service area	In Eun-Sik & Jang Myung-Hoo	20
Jurnong-dong Catholic Church	Park Jae-Hwan & Ahn Ki-Don	30
Dijeongbu City Council Office and Library	Jeon Byeong-Jig & Park Suh-Young	40
Uhkedongnu Children's House	Park Young-Jun	48
Nazaret Church	Choi Dong-Kyu	56
Ann-Jay Tower	Kim Seung-Wook	66

Design note

Facade Remodelling of Seoul Royal Hotel Baek Min-Seok & Oh Hyeok-Geun 72

Feature

Negative Remarks on Underground Buildings	Yi Gwan-Pyo	76
Looking Back on the 10th General Meeting of Women Architects	Kim Hyang-Hoo	83

Serial

Duten Modern Housings Choi Jae-Suk 86

Architects' Plaza

Kima news	94
Arch-Net	96
Competition	106
Overseas Journal	122
Gallery	127

Publisher Leo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eon, Kim Jang-Bok,
 Park Yang-Seon, Son Ki-Chan, Oh Seon-Hoon,
 Yoon Se-Deok, Lee Kwang-Jick, Lee Jae-Rim,
 Lee Jang-Ho, Jung Seo-Hy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0-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건축사 여러분께

Dear Korean Registered Architects

밤이 이슬해졌습니다. 옥상카페 준비한 흥대 앞 어느 주점 지붕마당에서 문화관 인사들과 어찌어찌 하다보니 건축이 화제가 되어 논법을 무시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던 참입니다. 이미 치러진 술도 두세 차례 바닥을 드러냈지만 전혀 취기란 찾아볼 수 없는 심상찮은 기류 속에서 논쟁 아닌 언쟁으로 시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한 분의 문새(文士)와 저와의 지루한 공방은 '건축'에 대한 각자의 깊은 애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지만 서로 간 사랑기술에의 차이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설전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새벽의 전조가 느껴질 때쯤 우리를 무리는 헤어지는 분위기였고, 갈 길 먼 제가 먼저 자리를 뺐지만 그 뒤로도 한 차례 술자리가 질리게 이어졌다고 하니 냉랭했던 전작(前作)의 자리를 풀기 위한 동료들의 수고가 눈에 선합니다.

그 분과 저는 건축계의 병리적 현상에 대하여 공격과 방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사이를 벌려놓고, 대화법에 있어서 기본 물에 밝다고 자처하는,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그와, 정돈된 논법의 해체를 고집하면서까지 건축의 특수한 정형론을 대화 속에 개입시키고자 했던 저와는 분명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가 썩썩될 수밖에 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요는 건축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그로써 건축에 대한 믿음의 구조가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 분의 입론이 발화가 된 것으로 건축바깥세상과 구분된, 도저히 외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더하여 비판적 자정능력이 결여된, 건축계의 단면을 호되게 질타하는 것이 그 분 논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분의 지나온 이력 가운데 유력 주간지 문화부 기자 시절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한역 기자 시절 그 매체의 건축 기사가 그 분으로 인해 매주 끊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알게 모르게 건축동네에 대한 네트워크가 비교적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때나마, 아니 지금껏 그 분의 건축네트워크의 한 가운데 입지해있는 저로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언쟁은 제실 깎아먹는 식이 되는 것이기에 이로울 게 없는 것이었어도 이 날은 스스로도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의 건축네트워크에 대한 의심을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나를 포함해' 서 말입니다. 그 때의 일그러지는 그 분의 표정이라니, 제가 그 얼굴에서 경련을 읽지 못했을 리 만무했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축계 전반의 병리적 현상을 들먹이기엔 가지고 있는 남의 기본 데이터가 너무나 취약하다고 말이지요, 그 분은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는 거

였지요. 도저히 그 말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히 믿었던 취재원한테서 나온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그 분은 서너 해 전에 건축주가 되었습니다. 현역기자 시절부터 가깝게 알아온 친구이자, 문화판 인생에 있어서 동료로 만나온 40대 초입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서울의 한 복판에 새 집을 지은 유경험자임을 제가 알고 있는 터에, 그 분의 입론이 나름 분명한 사실정황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건축설계와 감리, 그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의 집이 설계미숙과 공사의 부실로 이미 두 해 이상을 생고생해오고 있기에 말입니다. 설계자의 컨셉도 중요하고 집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도면도 무척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직접 살면서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새 집에 고칠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이 제대로 고쳐지기까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동네 공사업자들과의 술한 마찰을 통해서 건축의 내면적 구조에 무척이나 당혹해했음은 물론 시스템은 고사하고, 기술자의 양심마저 실종된 건축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일반적 건축주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분입니다.

건축동네에선 어떻게 매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 부류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기비판이 결여된 집단적 방어와 실어증으로 인해 헤이리아트벨리든 파주출판도시에서도 건축가의 현존만 부각될 뿐 그 분과 같은 부류의 대중이 의심하는 부분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친절한 배려가 부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건축가가 손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기이한 풍토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나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 사유의 시위를 하고 있는 이가 전무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그분에게 우리의 건축동네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만의 지사등만이 존재하며 반대급부가 부재한 그것이야말로 전문가 집단의 폭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건축바깥에서 건축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의 시선에 우리는 모두 무척이나 불안한 동거자들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그를 향해 면박에 가까운 변론을 들어냈지만, 의식 한 칸에선 그 분의 주장이 연신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하던 위기의 시절에도 건축인 집단이 앞서기보다는 뒤로 처져서 떡고물만 챙기기 바빴지 않았느냐는 그의 주장은 섬뜩한 것이었기에 말입니다. 건축계는 지금도 내부 살림 걱정세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심한 것이 사실이고, 설계기업 혹은 건축사사무소가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경기침체의 수렁 속에서 가쁜 숨소리를 내기에도 황망한 터인지라 그 분의 이유 있는 항명은 정상적인 논법으로 대응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비록 입을 꼭 다물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운동권은 엄두도 못내었지만 건축인이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정의의 숨소리를 내고 있는 저 많은 음지의 건축인들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알림에 대한 소명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분의 철벽 같은 건축네트워크로서 나의 정보력의 신용등급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배면에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다수의 건축인들을 단순히 업자 취급하지 않으려는 그 분의 의식 저류에 깔고 있는 건축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연민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읽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황이긴 합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건축의 내부사정을 도외시한 일 개인의 평론(臆論)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작은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그 분 또한 자신의 건축에 대한 무지 때문일 거라고 토를 달았지만, 이 같은 대중적 정서가 소위 문화판의 지식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사회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술지리의 논쟁이 깊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깊었겠습니까마는 그 일순의 냉랭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건축의 밖에서 건축의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윤리적 기준을 들이대는 대중적 정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건축사 분들에게서도 한 번 쫓은 가슴에 새겨주실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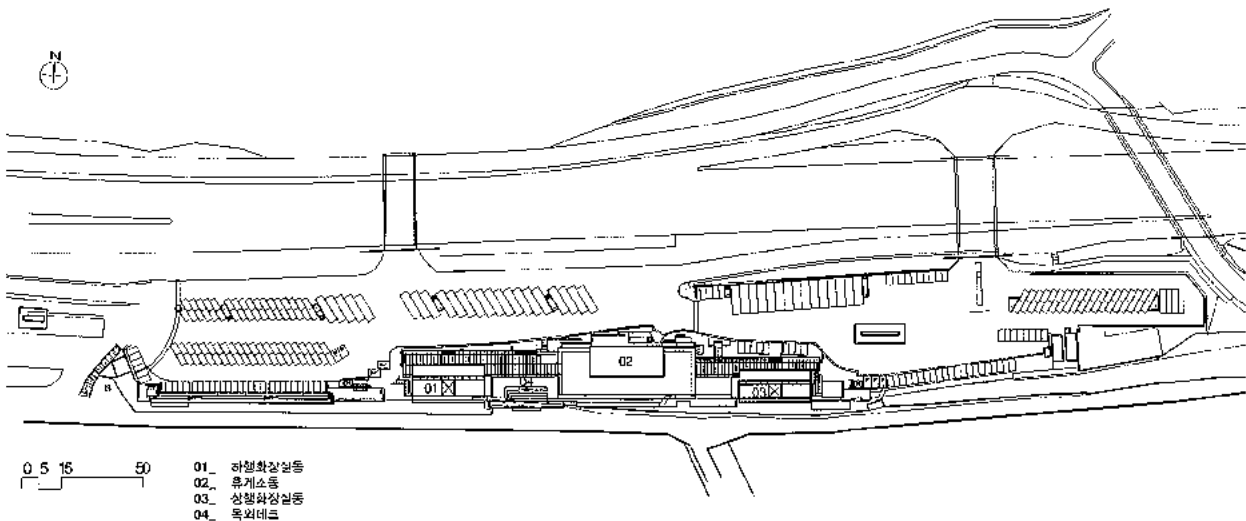
오히려 건축인보다도 치열하게 건축의 존재감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깨고, 가슴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대중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건축시대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막연한 미래에의 기대감으로 위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대중의 회복과 저들과의 온전한 대화법이 건축사회에 농익을 때쯤이면 우리의 건축문화도 한층 진일보해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말이지요. 圖

금강휴게소

Geumgang Service area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항리 576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대지면적	8,793.00㎡
건축면적	2,448.96㎡
연 면 적	5,484.96㎡
건 폐 율	27.85%
용 적 륜	45.3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방부합판, 목재루버, T24 복층유리
내부마감	미천석, 폴리싱타일, 무늬목, 비닐계 페인트
구 조	바른구조 엔지니어링
설 비	미도설비
전 기	한신전기
시 공	(주)KTC건설, (주)솔토스홈즈(목구조), 3D PACIFIC(인테리어)
조 명	DS 라이팅
설계담당	김웅창, 이민완, 이화준, 안호섭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남궁선 별기제와건축사제공)

대지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상류변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건물은 강을 등지고 배치되어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곤란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이 휴게소는 대지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교감을 이루고 자연과의 조화와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문화 코드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한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시설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가 필요하며, 오랜시간동안 축적된 자연의 색감과 형상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찾았다.

외부 마감재로 선택한 방부목재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연의 색상에 가까워지고 시간의 흔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의 재료이며, 초기의 모습보다 세월을 보내며 이용자들의 손때가 묻고난 후에 더욱 친근감을 주는 재료이다.



원목상태 그대로 사용한 가로등과 데크의 기둥들은 외벽 방부목과 함께 자연의 일부로 느끼도록 하였다.

외벽과 창호의 수평물딩, 그리고 데크의 검은 그림자는 수평선을 강조한다. 외부형태와 내부 인테리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수평선은 좁고 긴 부지 형상과 금강의 수평감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휴게소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건물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으로 계획하였고, 많은 물이 소요되는 화장실은 오수처리수를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부분의 실내는 천창의 자연광으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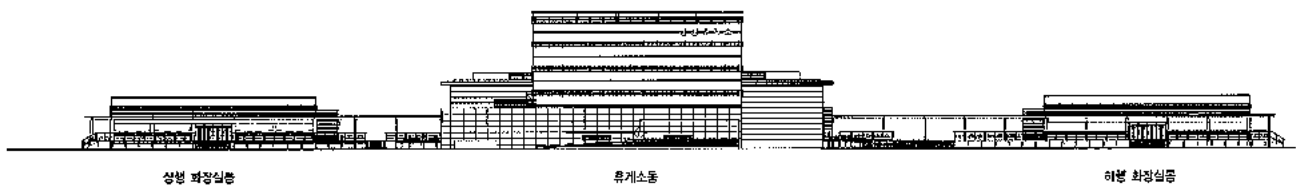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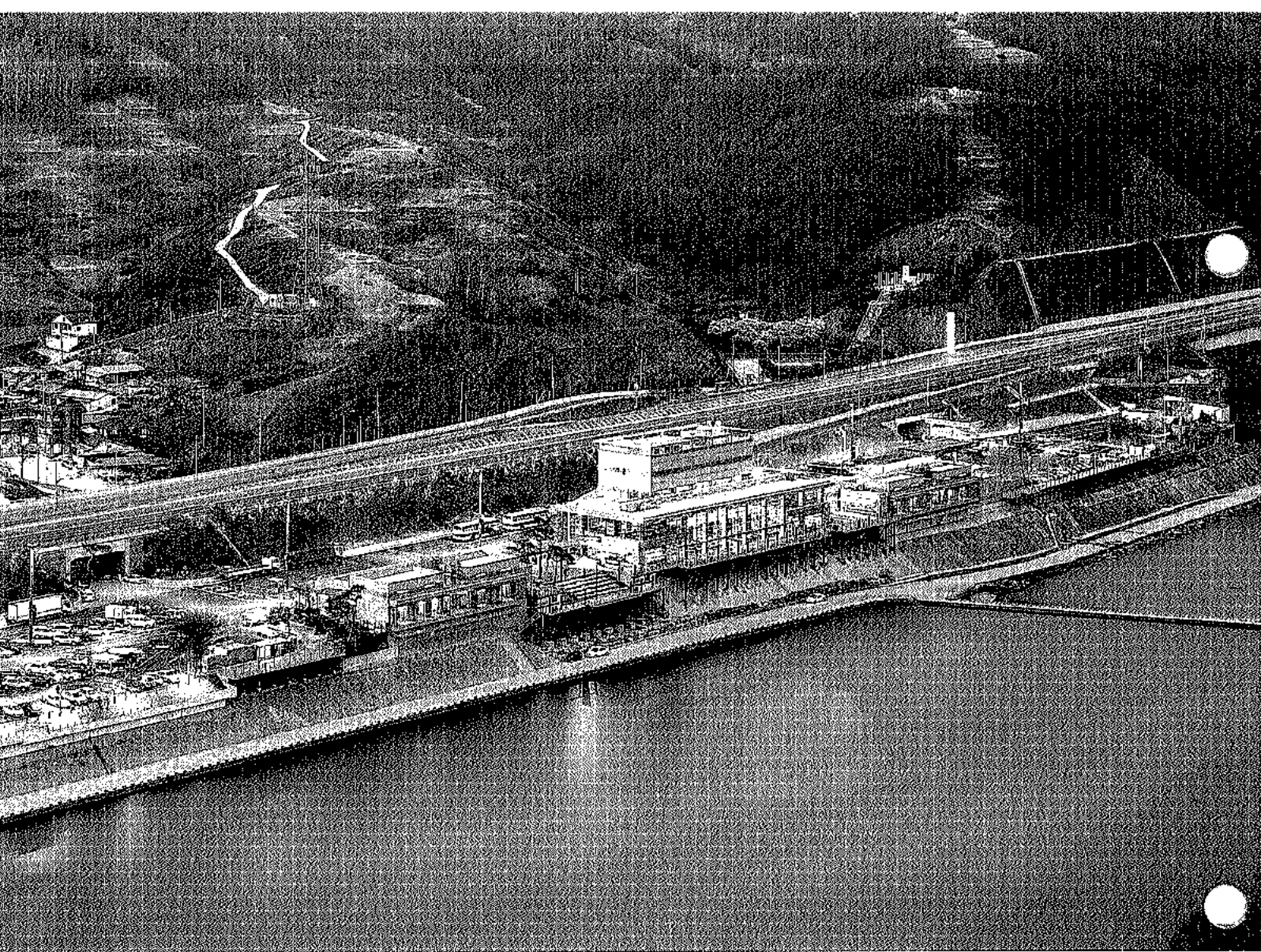
기존 금강휴게소가 2002년 여름 대홍수로 침수되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 고려되었다. 건물을 대지에서 띄워 목재 데크로 연결하고, 지하의 모든 문을 차수문으로 계획하였으며, 유사시 중요장비를 밀봉할 수 있는 차폐실도 고려하였다.

외부에서는 경관 조망을 위해 다양한 테마의 데크를 강변에 따라 배치하고 목재 보행로와 녹지띠로 연결하여 자연속으로 희석되도록 하였다. 목재 보행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촉감과 소리, 그리고 가로등에 흔들리는 그림자에서 새로운 자연을 느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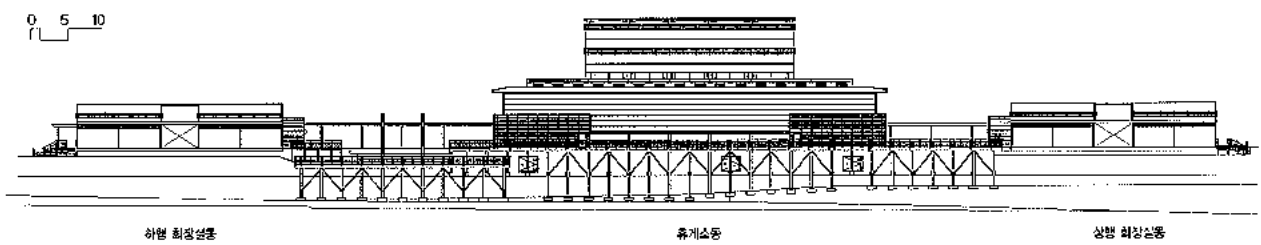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관입시켰으며, 경관 조망을 위해 내부의 모든 요소를 단순화시켰다.

이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양한 그림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이곳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 노력이 계획의 출발이었으며, 또한 최종목표였다.(글/인의식)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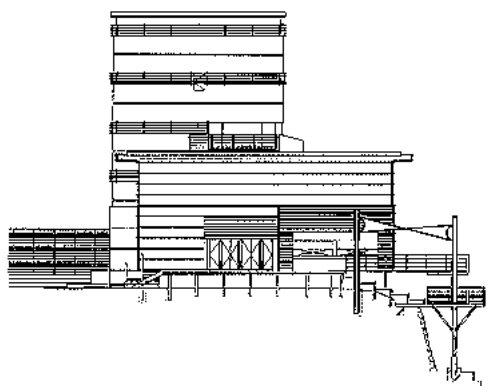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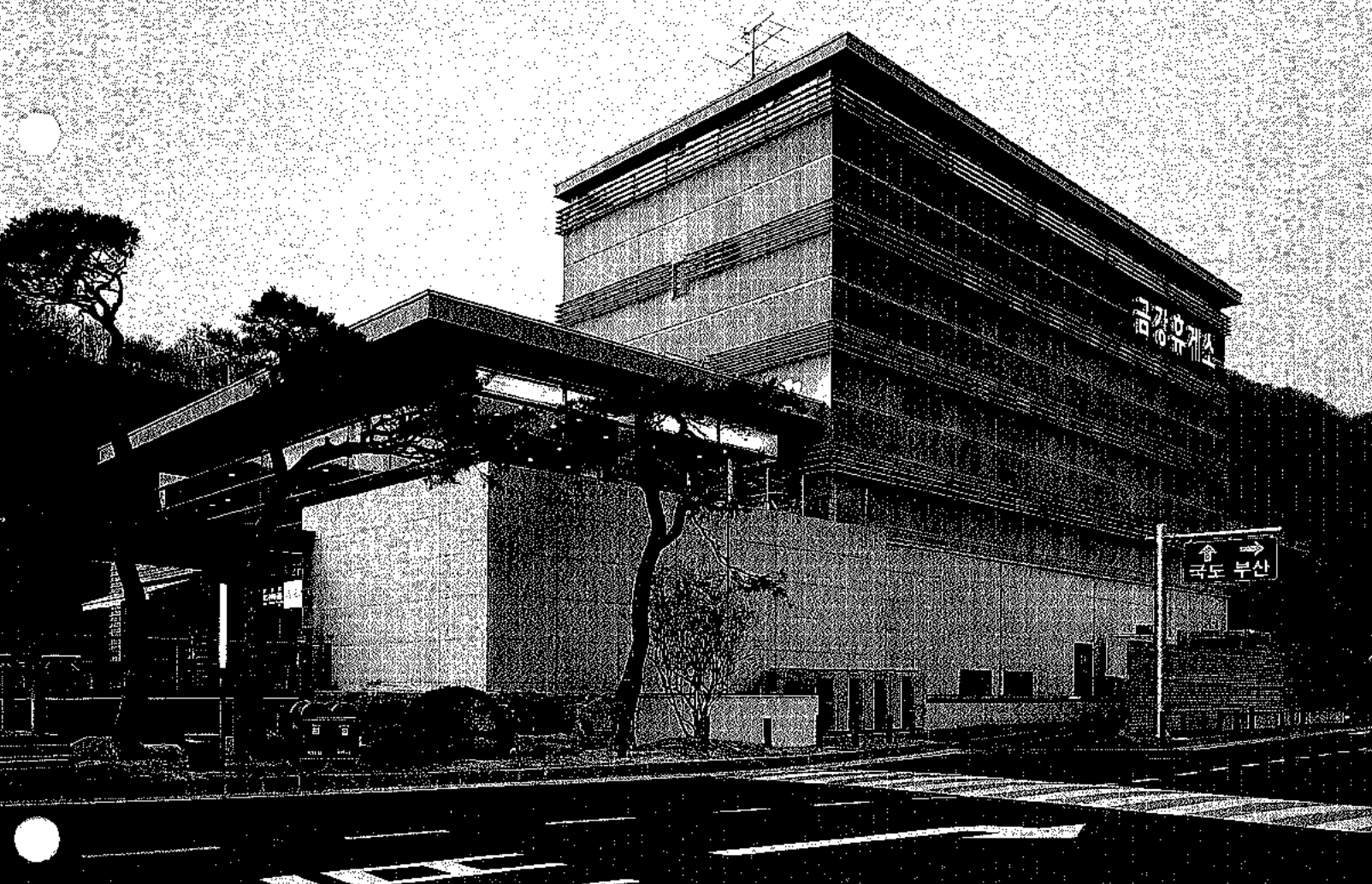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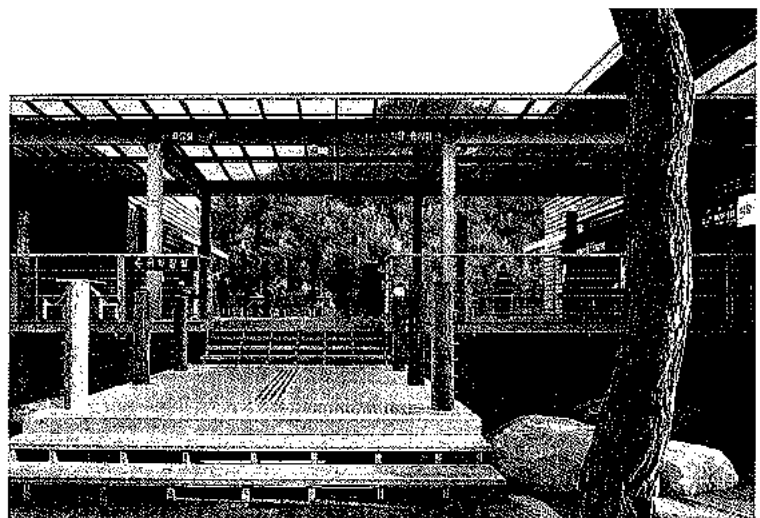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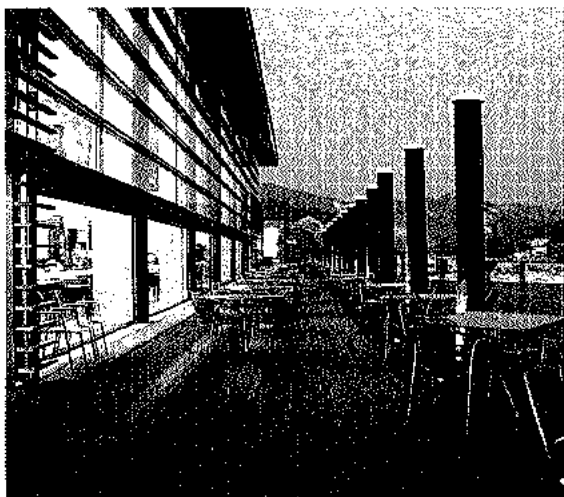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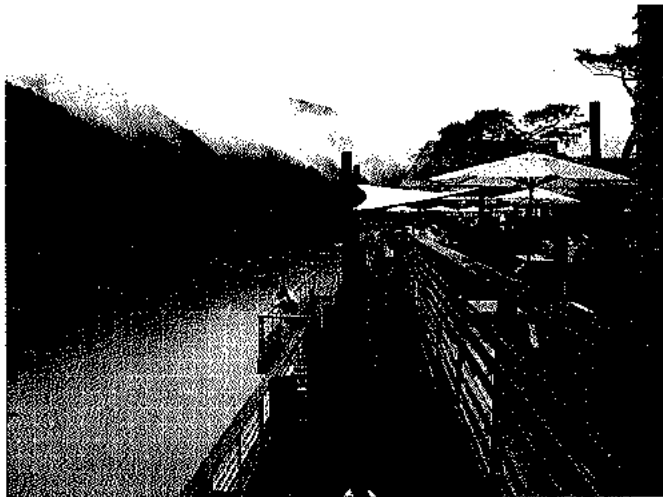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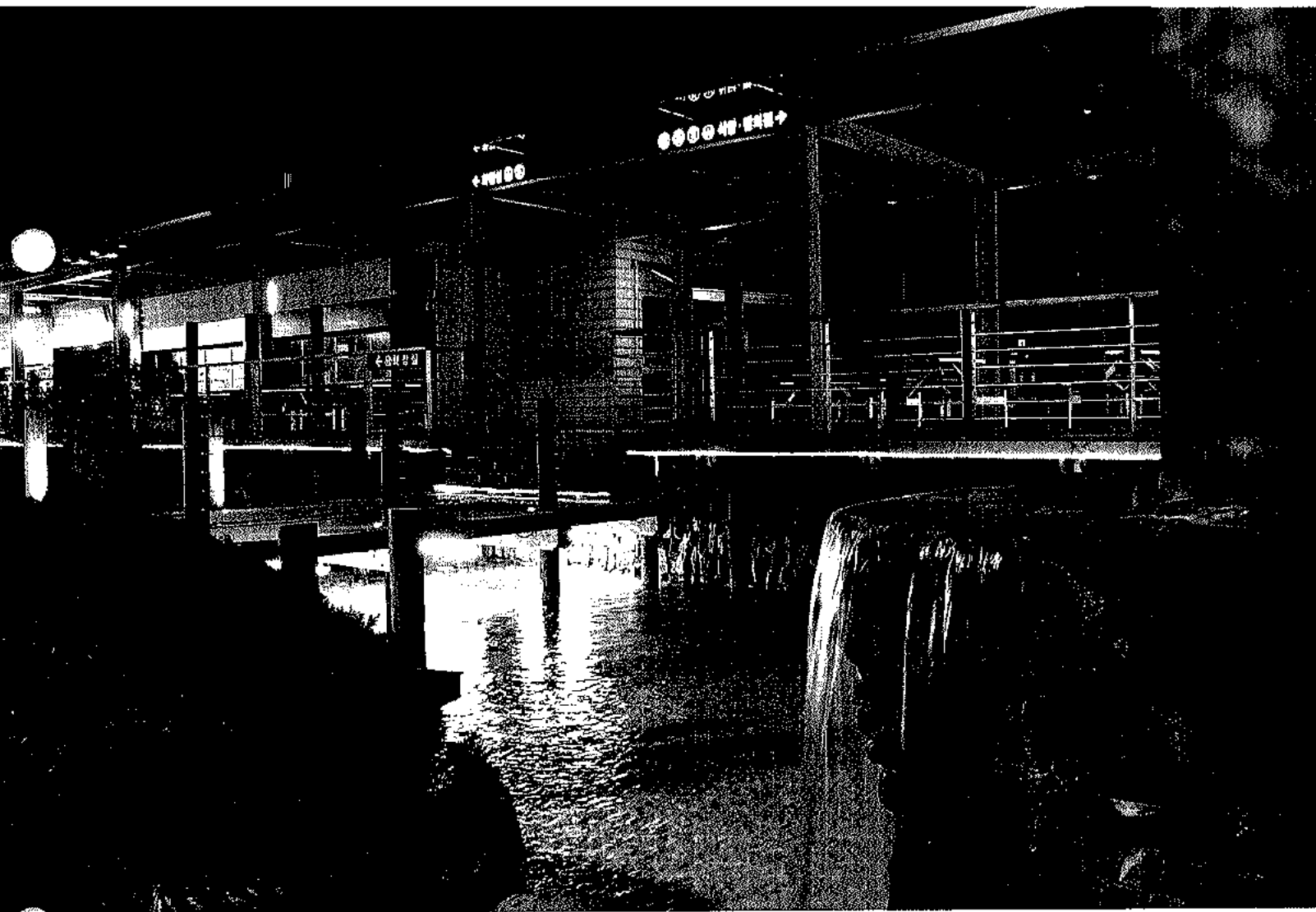




사진_권용서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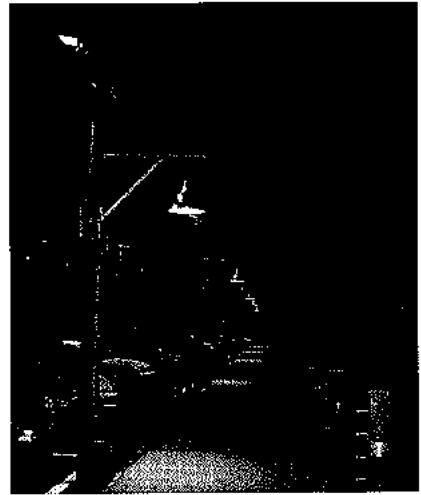
사진_건축사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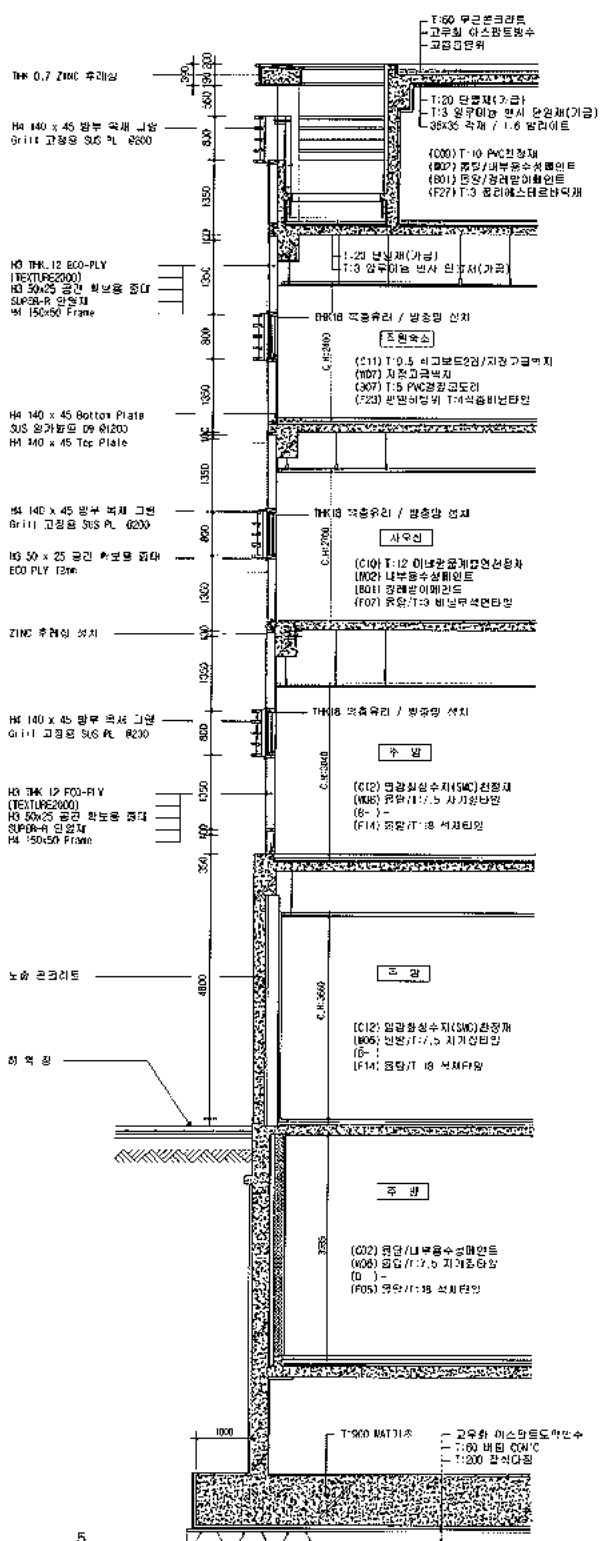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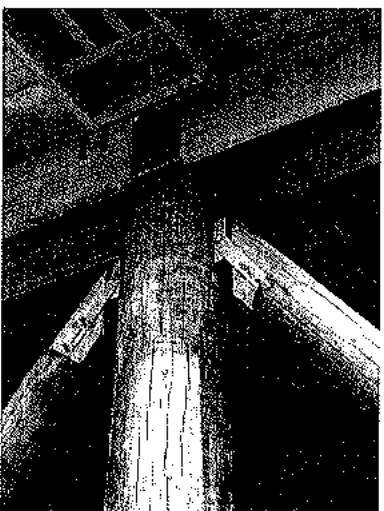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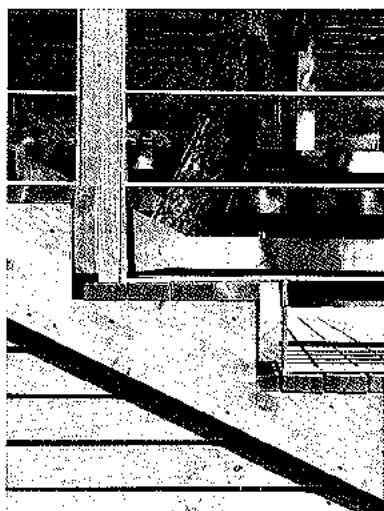
사진, 건축사제공



사진, 건축사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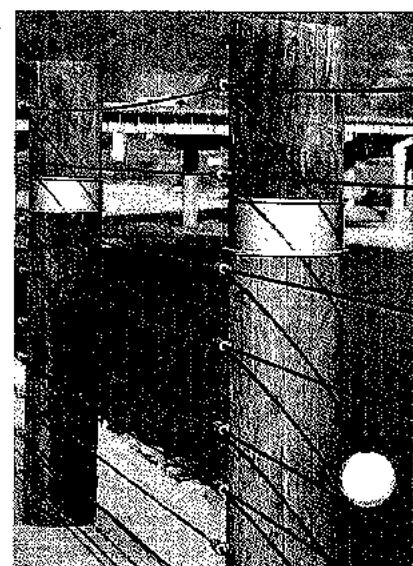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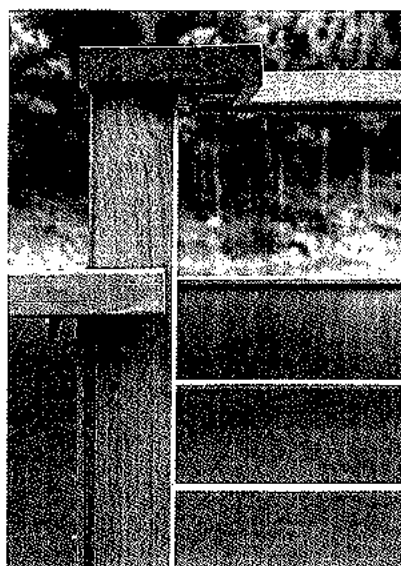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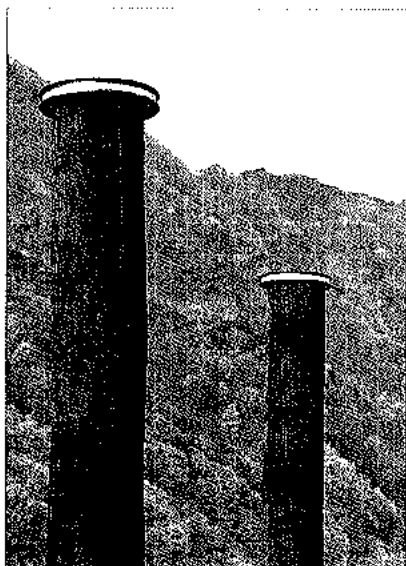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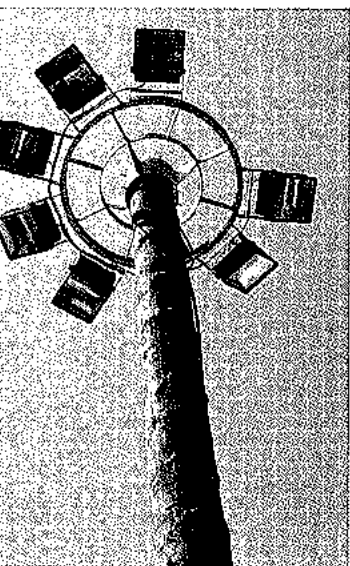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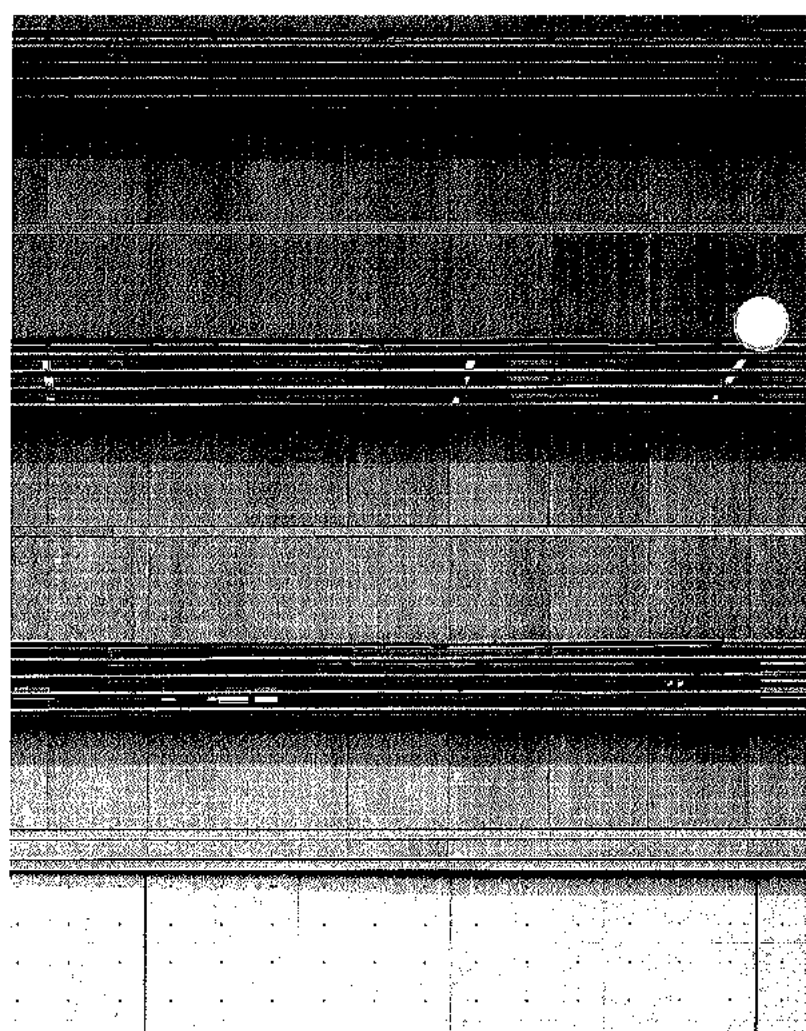


사진, 건축사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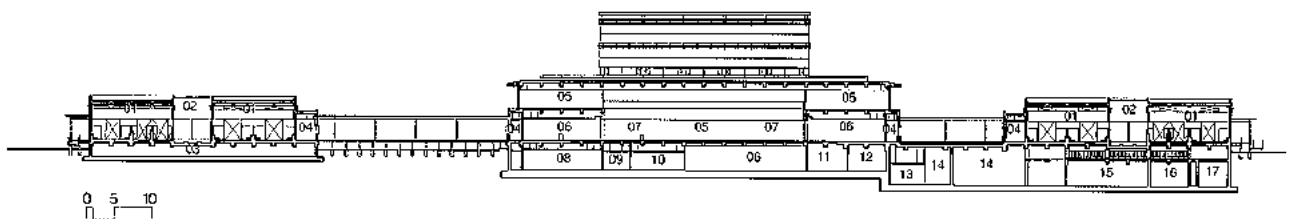
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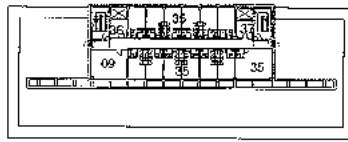
- 01_ 화장실
- 02_ 중장
- 03_ P/T
- 04_ 관의매점
- 05_ 전문 식당
- 06_ 주방
- 07_ 관의식당
- 08_ 예비실
- 09_ 말의실
- 10_ 작업식당
- 11_ 냉장실
- 12_ 기동창고
- 13_ 관려실
- 14_ 기계실
- 15_ 중수조
- 16_ 저수조
- 17_ 동류정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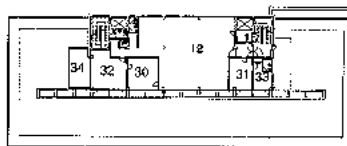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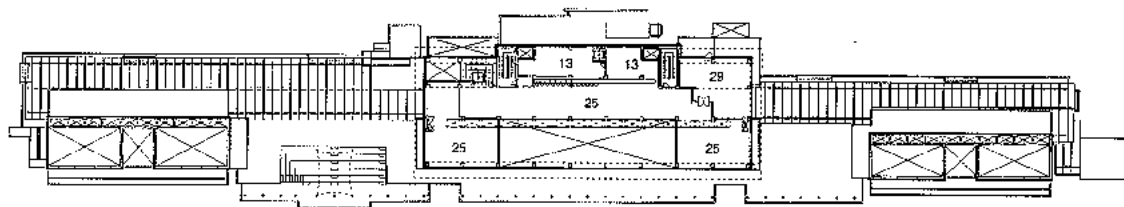
- 01. PIT
- 02. 문도정화조
- 03. 옥외대크
- 04. 창고
- 05. 예비실
- 06. 담임실
- 07. 숙소
- 08. 휴
- 09. 휴게실
- 10. 직원식당
- 11. 가열조리실
- 12. 사무실
- 13. 주방
- 14. 냉동실
- 15. 창고
- 16. 관리실
- 17. 주요기기실
- 18. 저수조
- 19. 중수조
- 20. 압수조
- 21. 간식매진
- 22. 화장실
- 23. 복내대크
- 24. 민회집
- 25. 집운식당
- 26. 강이식당
- 27. 야외프로
- 28. 화약창
- 29. 기사식당
- 30. 사창실
- 31. 소장실
- 32. 음향실
- 33. 전실
- 34. 옥상휴게
- 35. 직원숙소
- 36. 강이주방
- 37. 세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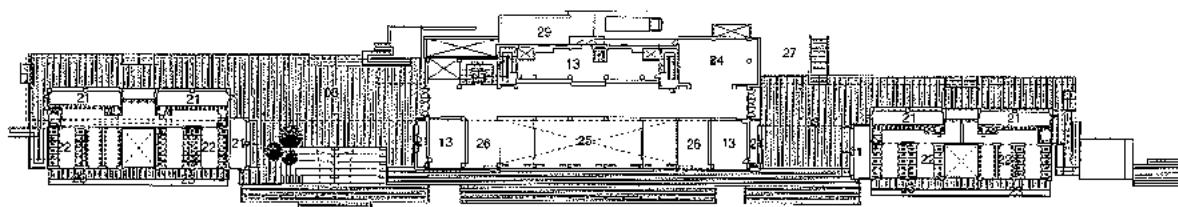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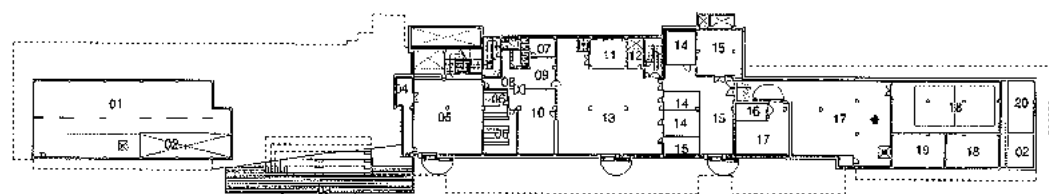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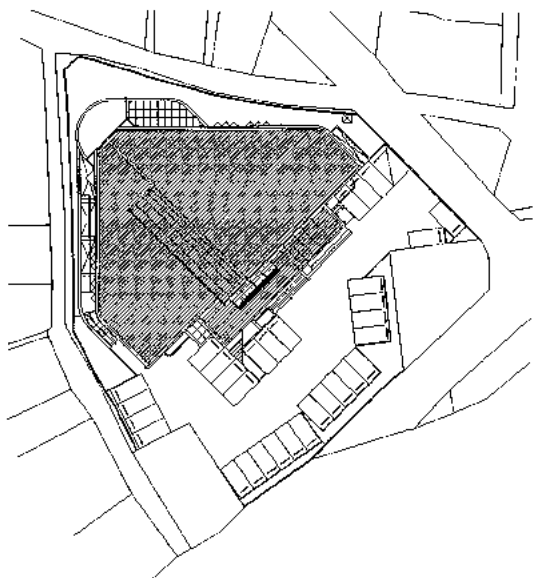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농동성당(성모칠고성당)

Junnong-dong Catholic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4-3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	2,278.73㎡
연면적	3,192.16㎡
건축면적	982.79㎡
건폐율	43.16%
용적률	86.6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외벽 - 레저트옥 벽돌치장쌓기, 지붕 - 동판 잇기
설계담당	정용현, 윤용선, 박승민
인테리어설계	강미테아수녀
스튜디오	최영심
성미술	강미테아수녀, 장동호, 변진희, 한혜선
사진	채수욱

프롤로그

시대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에도 끊임없는 혁신과 부흥을 요구하고 있다. 약 40여 년 전 논밭과 저층의 건물들이 뿔뿔이 들어찬 전농동에 당시로서는 제법 큰 건물로 지어졌던 지상 3층의 전농동성당은 한동안은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당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환경의 변화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신자 수의 증가와 교회의 다양화

되어가는 기능을 수용하기에는 기존성당의 규모나 시설 내용이 크게 부족하고 불편하기에 현 시대에 걸 맞는 교회의 신축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내적 쇄신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겉모습도 시대상에 걸 맞는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

배치 및 평면 구성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온 전

농동의 재래시장 안에 위치한 불규칙한 모양을 한 5각형의 신축 부지는 3면은 4~6m의 폭이 좁은 시장 길과 1면은 폭이 2~3m에 불과한 주택의 골목길과 접하고 있다.

대지 형상에 맞는 3각형 모양의 건물 배치는 여러 기능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 성당들과 마찬가지로 전례, 교육, 친교, 업무, 관리, 거주 등 다기능 용도의 실들은 콤팩트한 공간구성으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하층은 선큰가든이





있는 커다란 강당과 회의실(교리실)들이, 지상 1층은 천교 및 업무관리 공간이, 지상 2층과 3층에는 성당이 위치하고 사제와 수도자의 거주공간이 지상 1, 2층의 남서 측과 남동 측에 배치되었다.

특히 지상 2층의 대성당은 제단을 정점으로 한 폭이 넓은 신자석이 배치된 대칭적인 3각형의 구성으로 가시거리의 근접과 방향성이 좋아지는 평면구성으로 돌출된 부분이 없는 발코니층으로 구성된 3층의 상가대와 함께 나이브한 전례공간이 계획되었다.

내부공간과 빛의 어우림

교회건축에서 외부의 조형성 못지않게 중요한 내부공간의 구성과 빛의 도입은 특히 성스러운 전례의식이 거행되는 대성당 안에서는 다양한 공간의 인식과 분위기가 연출된다.

3각형의 평면 형태와 박공모양의 천정구성으로 계획된 대성당은 좁고 넓게, 높고 낮은, 트이고 막힌 다양한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제단 측면의 긴 창, 신자석 중앙의 천정고창과 측면의 빛 방향창문, 그리고 성가대석 측면의 원형 창에서 흡입되는 스테인드글래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연출은 빛의 양과 시간에 따라 때론 진하게, 때론

연하게, 때론 밝고 어둡게 조정되어 내부 공간을 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성당 내부에는 튀지 않는 마감재로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1층에 위치한 곡선형태의 성체조배실은 아무 장식이 없는 빈 공간으로 조용한 묵상의 기도장소를 만들고 있다. 개성 있는 작품성으로 제작·설치된 각종 성물(십자가상, 감실, 제대, 성모상, 십사처 등)과 비품(강론대, 해설대, 장궤틀 등)들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전례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있다.

상징성과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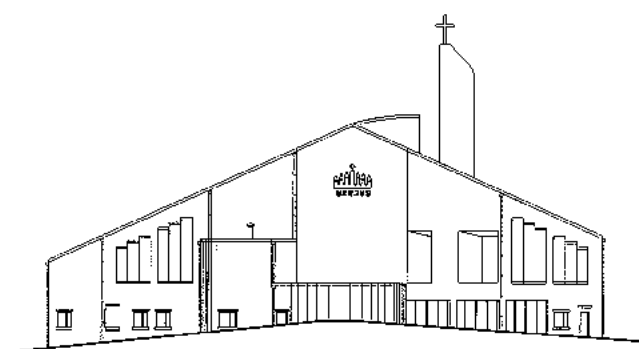
전농동이라는 지명어원은 소박한 농촌의 옛 초가집을 연상케 한다. 매스의 구성은 3각형의 평면구성에서 예민한 세 모서리를 곡선으로 만들고 박공형태의 뾰족 지붕의 한쪽도 약간 구부리고 외부계단의 오픈된 돌출처마지붕도 큰 지붕과 같은 경사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위압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탈피하였다. 또한, 들어가고 튀어나온 높고 낮은 주현관 출입구의 구성은 대칭적이고 정적인 건물의 정면에 공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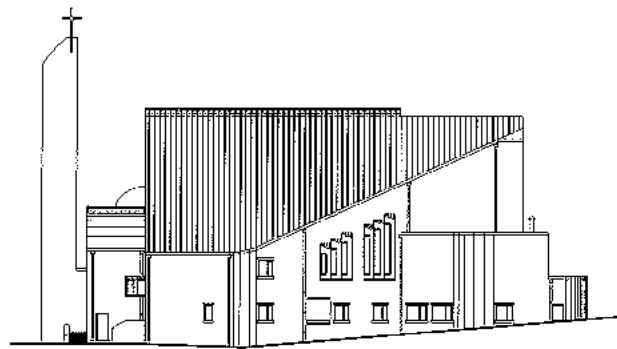
측면에 돌출된 3각형의 열두 개의 작은 사선방향의 긴 창문들은 지붕 경사와 흐름을 갖는 길으로 계획되었고, 후면의 제단 벽 외부에는 성당의 로고표시인 성모칠고 성당의 부조가 부착되어있다. 한편, 주 출입구 옆에 돌출된 3각형의 종탑은 평면 형태와도 일관성이 있으며 신축 성당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힌 주변 환경에서 그나마 랜드마크적인 표시가 되고 성모상의 뒤 배경을 받쳐주는 벽면으로도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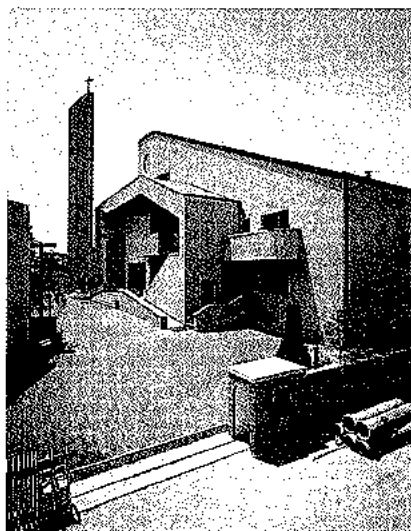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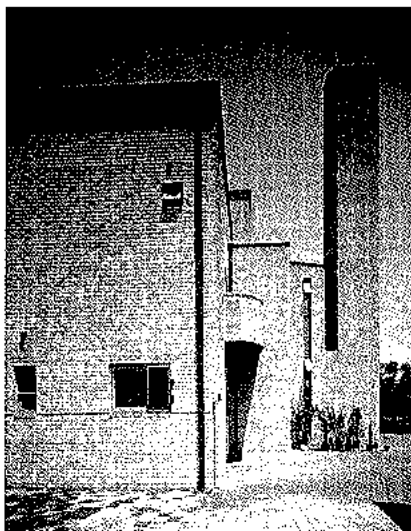
새로이 신축된 전농동성당은 교회 건축에서 느끼는 주변을 압도하고 위엄성과 상징성보다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대지의 형상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면서 지역사회에 열린교회로 새롭게 태어나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믿는다.(글 / 박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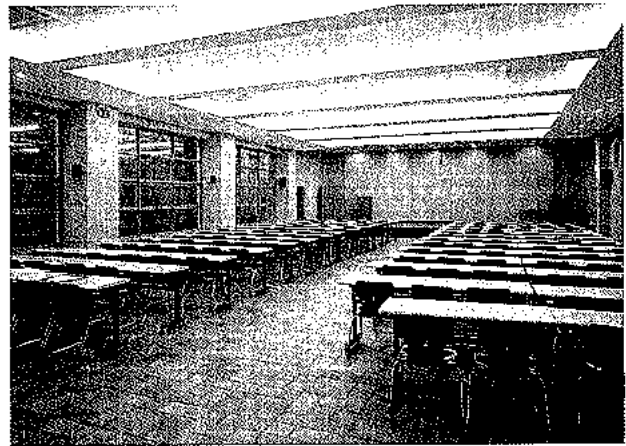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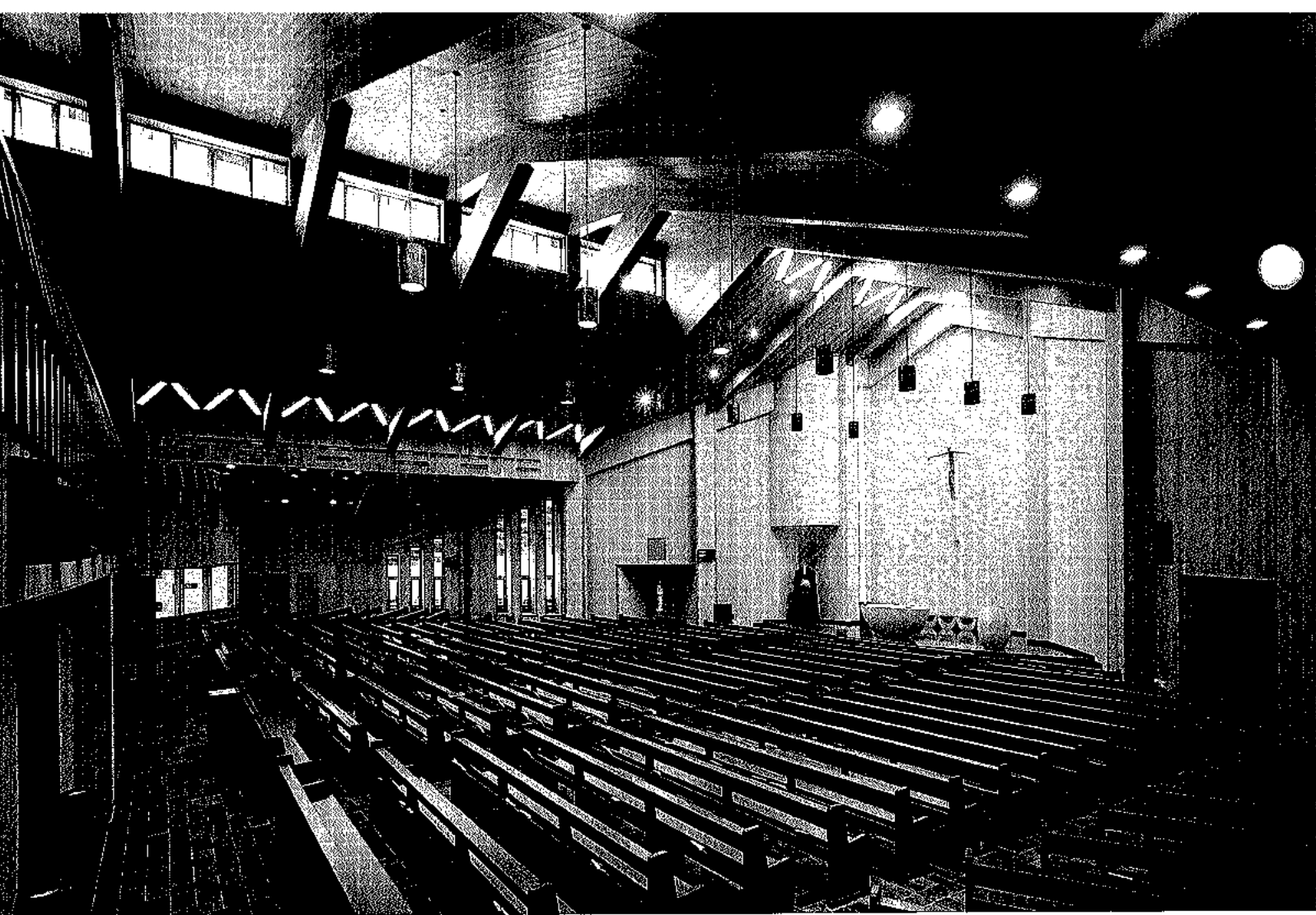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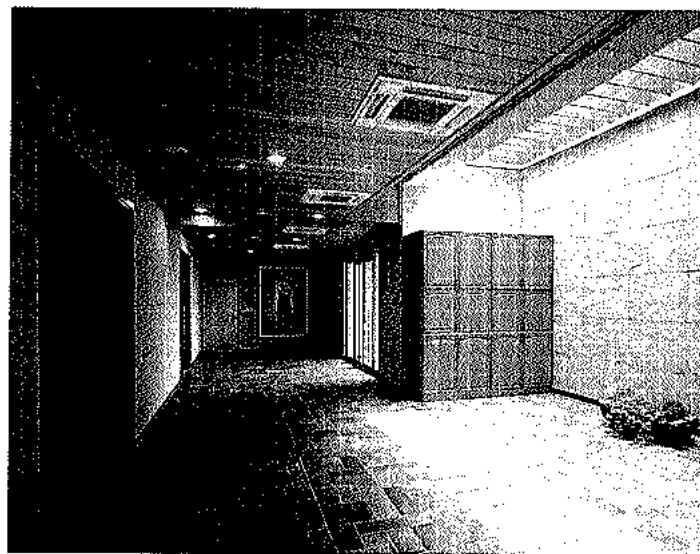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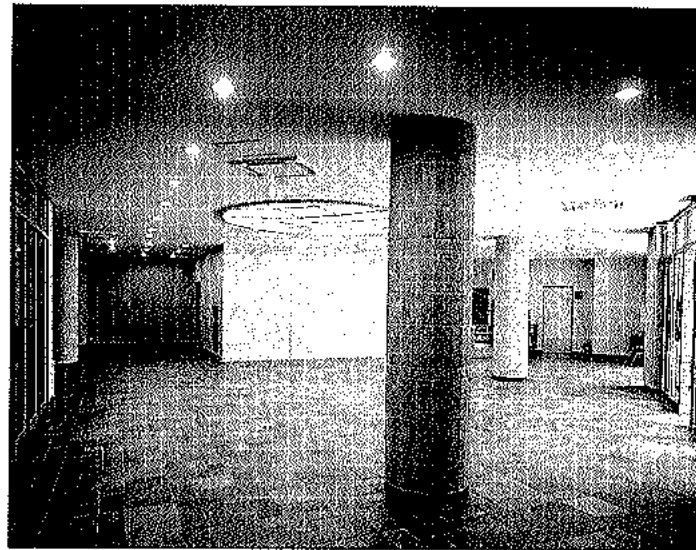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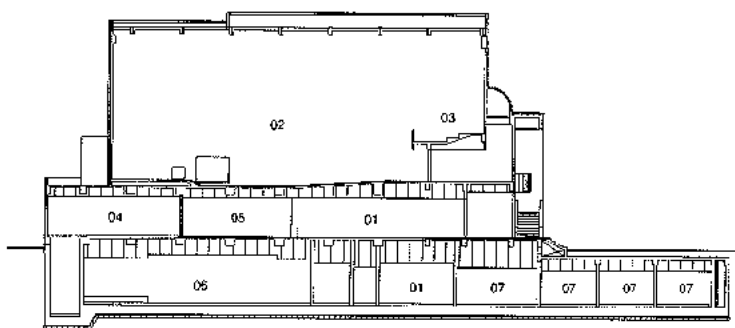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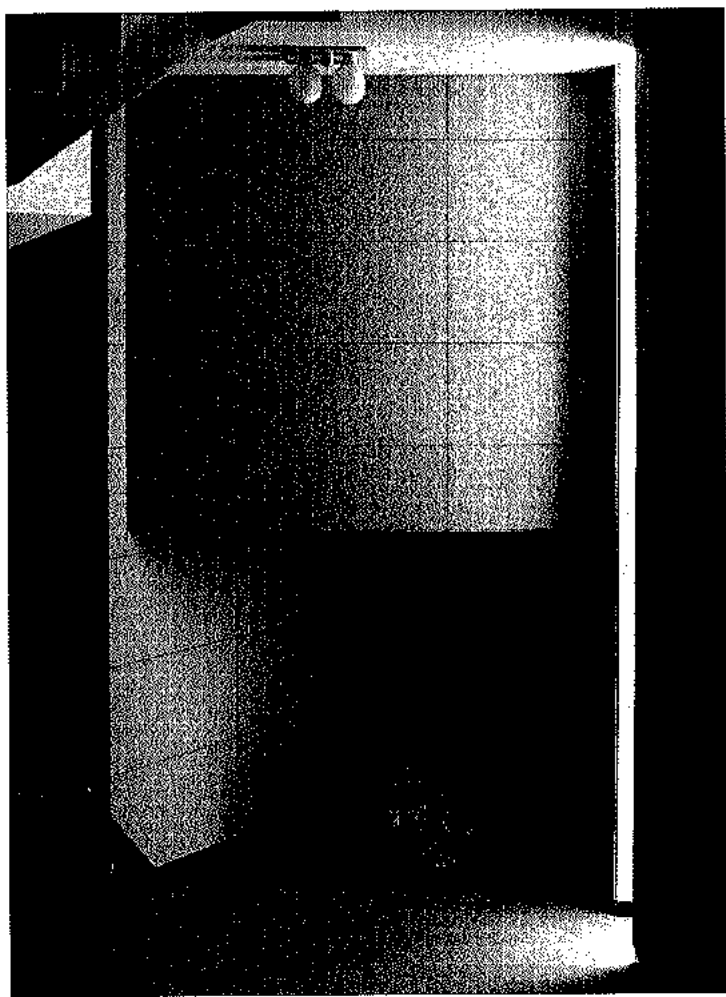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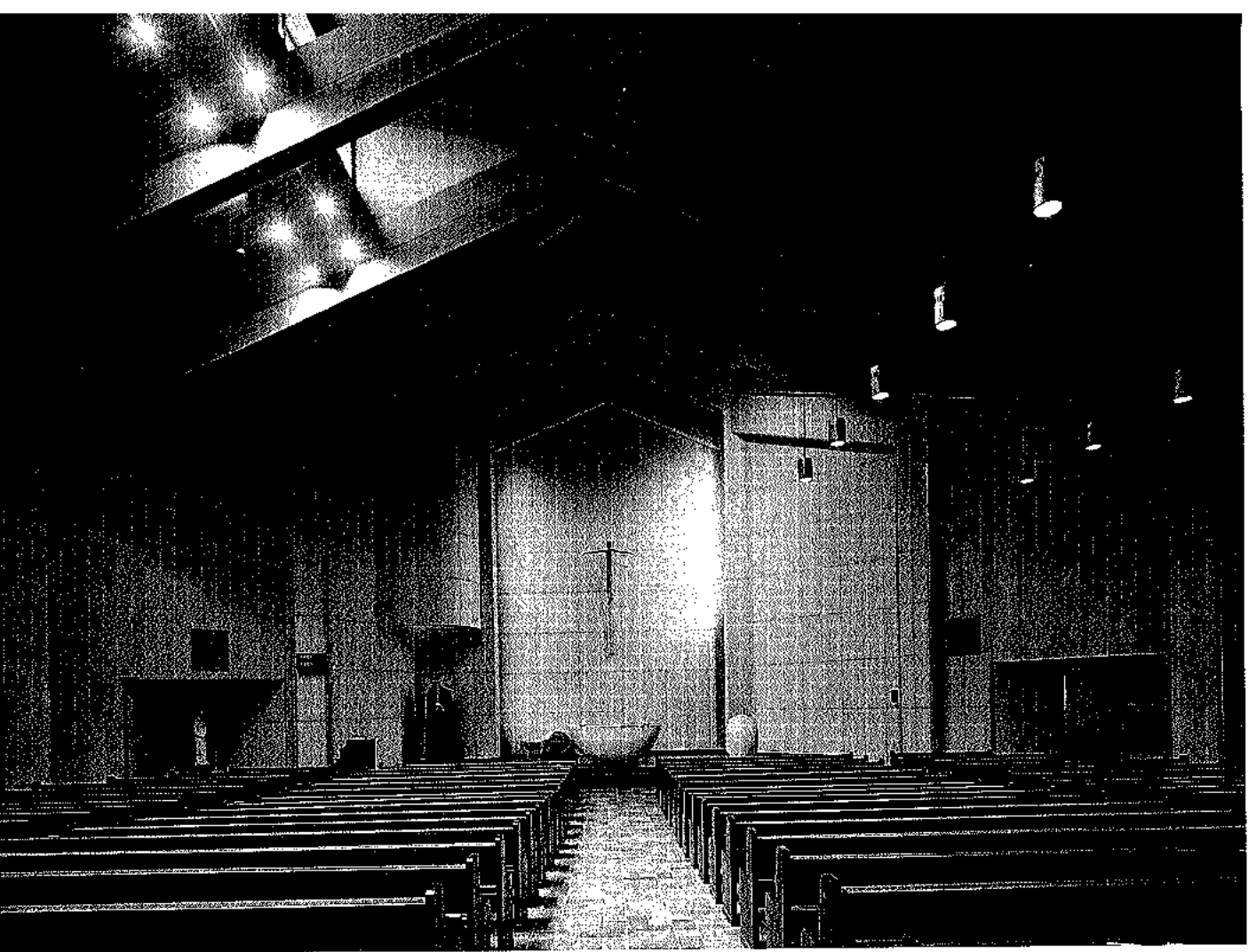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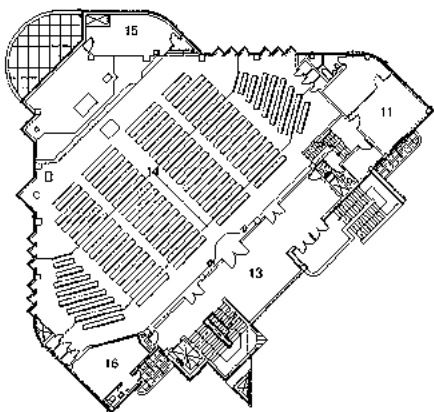


- 01. 혼
- 02. 대성당
- 03. 설교대석
- 04. 성체조배실
- 05. 만남의 방
- 06. 소경당
- 07. 교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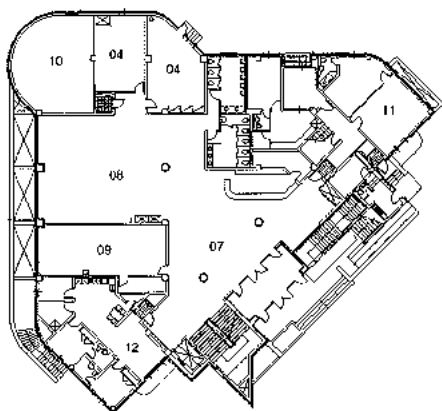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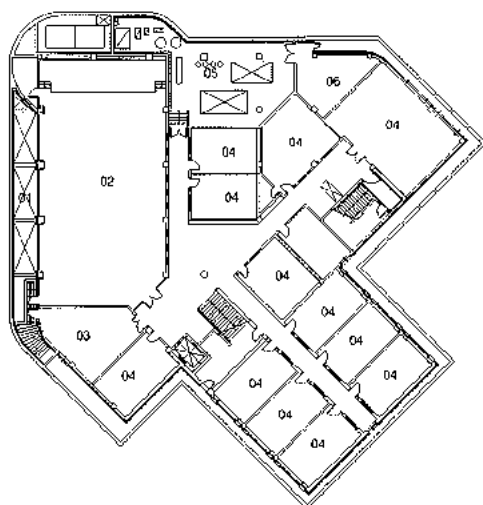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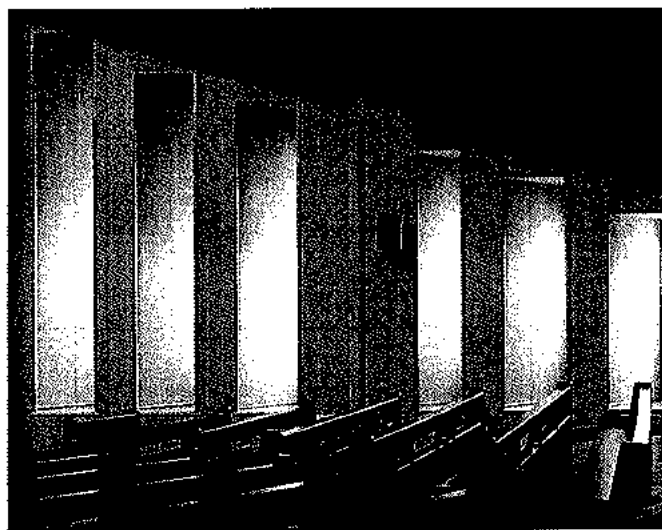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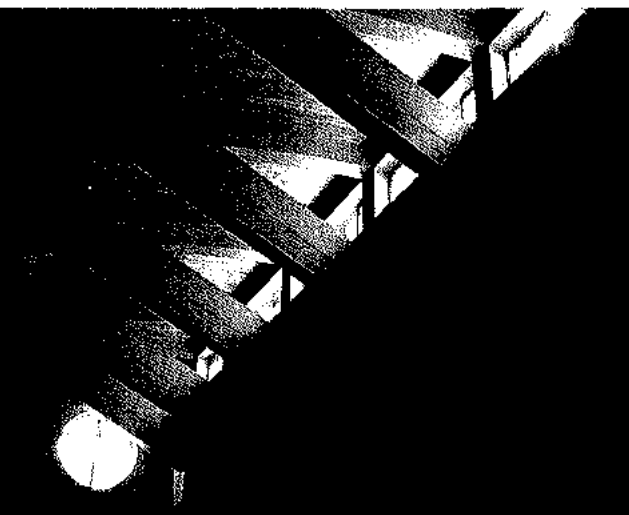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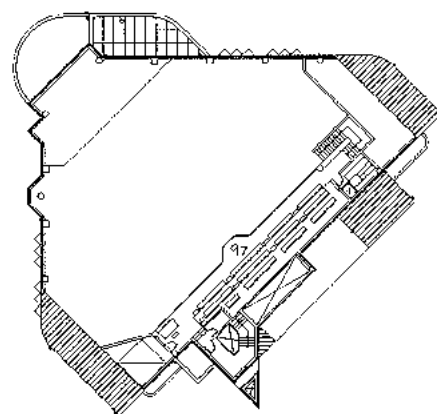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01. 선관
- 02. 소강당
- 03. 주방
- 04. 교리실
- 05. 기계실
- 06. 전기실
- 07. 출
- 08. 만남의방
- 09. 사무실
- 10. 성체조배실
- 11. 사제관
- 12. 수녀관
- 13. 전실
- 14. 대성당
- 15. 계의실
- 16. 유아실
- 17. 성가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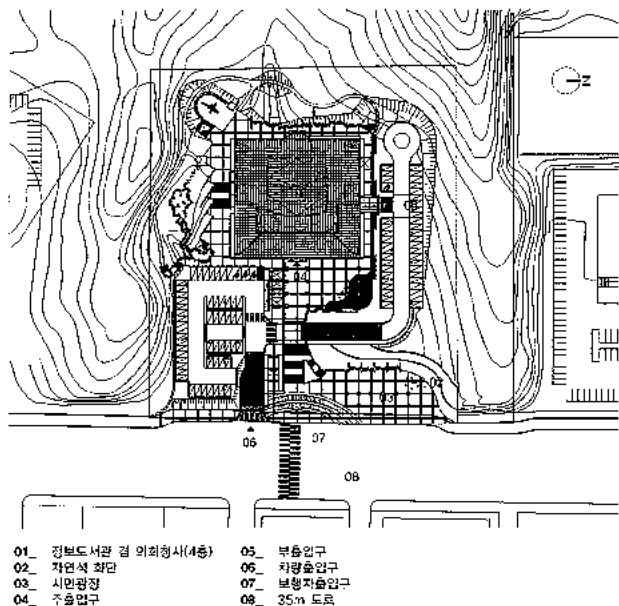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의정부 의회청사 및 정보도서관 Uijeongbu City Council Office and Libra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 산5-19, 산5-2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6,685.00㎡
건축면적	2,320.81㎡
연면적	8,896.20㎡
건폐율	13.90%
용적률	42.2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비닐계우석면타일, 내벽-아크릴페인트, 천장-흡음 텍스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마감 + T24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이완용, 김동수, 박성진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 작품은 기존 우리 나라의 의회청사 및 관공서의 개념을 깬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진다. 기존 청사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딱딱함을 벗어나서 어딘지 모르게 신선함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청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사 주변의 공간을 시민광장, 전면광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 최대한 이용자들을 배려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후면 휴게공간의 경우 대지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자연유수를 이용한 계류를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조경으로 계획하였다.

계획대지는 7m 내외의 동서방향으로 경사구릉지로서 도서관과 의회청사 복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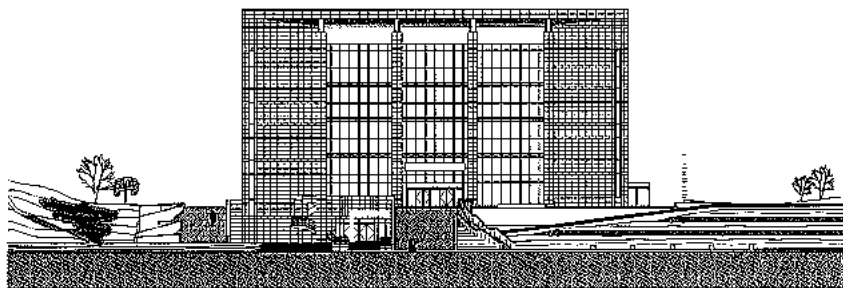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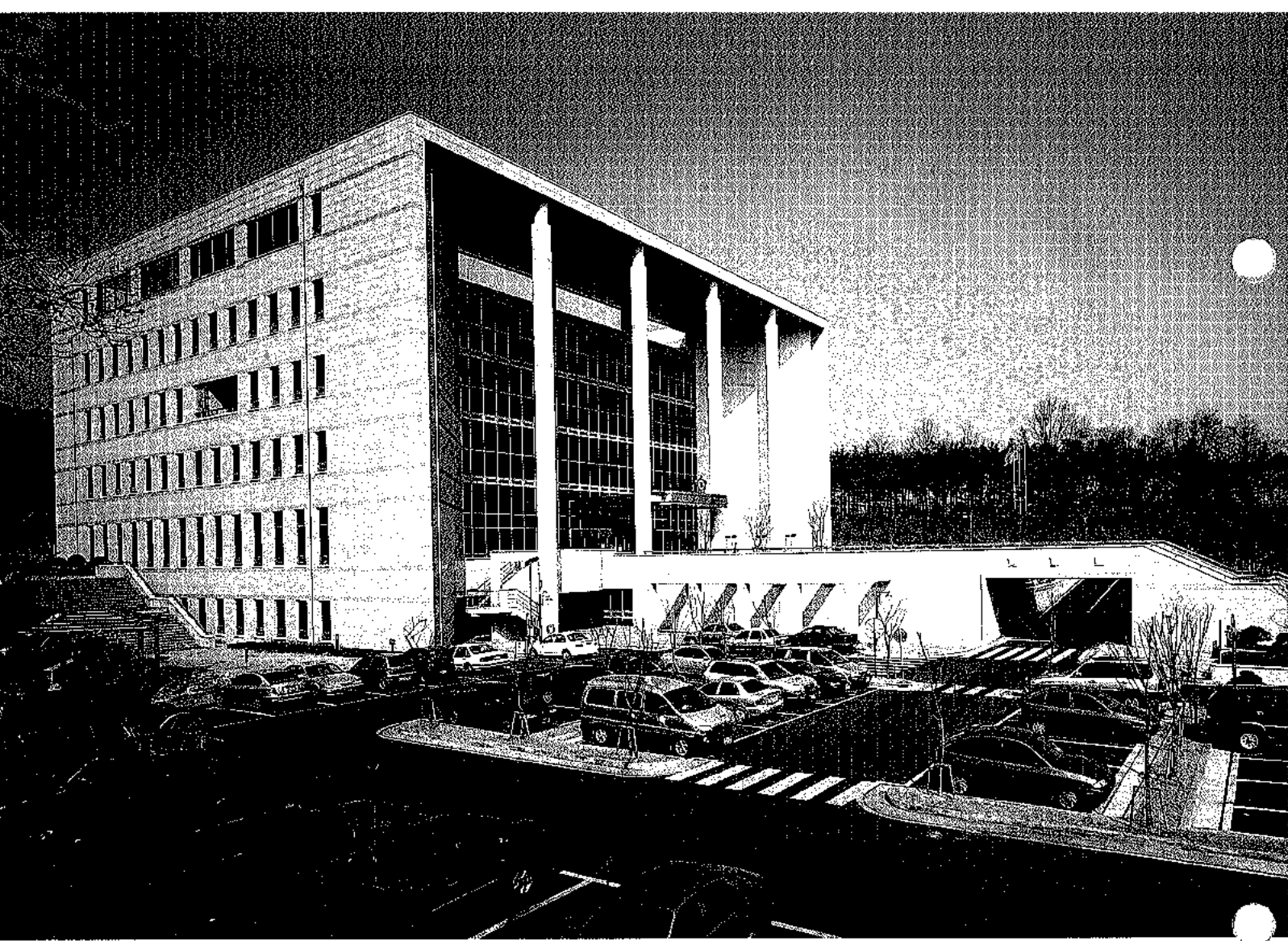
의 성격상 접근의 편의성과 주위 소음으로부터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영역별 이용자들의 접근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면서 다양한 체험적 접근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배치계획개념에서 축(Axis)설정은 도시축과 행정축을 기본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지 옆에 위치한 시청사와 연계를 고려한 시민광장 및 시청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회청사와 도서관의 차량동선은 도서관용 전용주차장과 의회용 전용주차장으로 서로 분리하여 혼잡을 줄이고, 보행동선은 전면광장과 중앙부 사이광장을 적절히 연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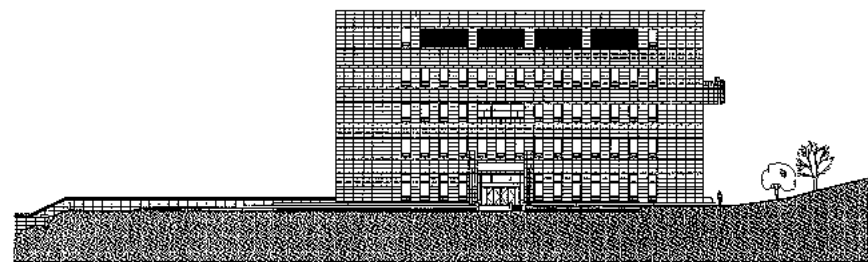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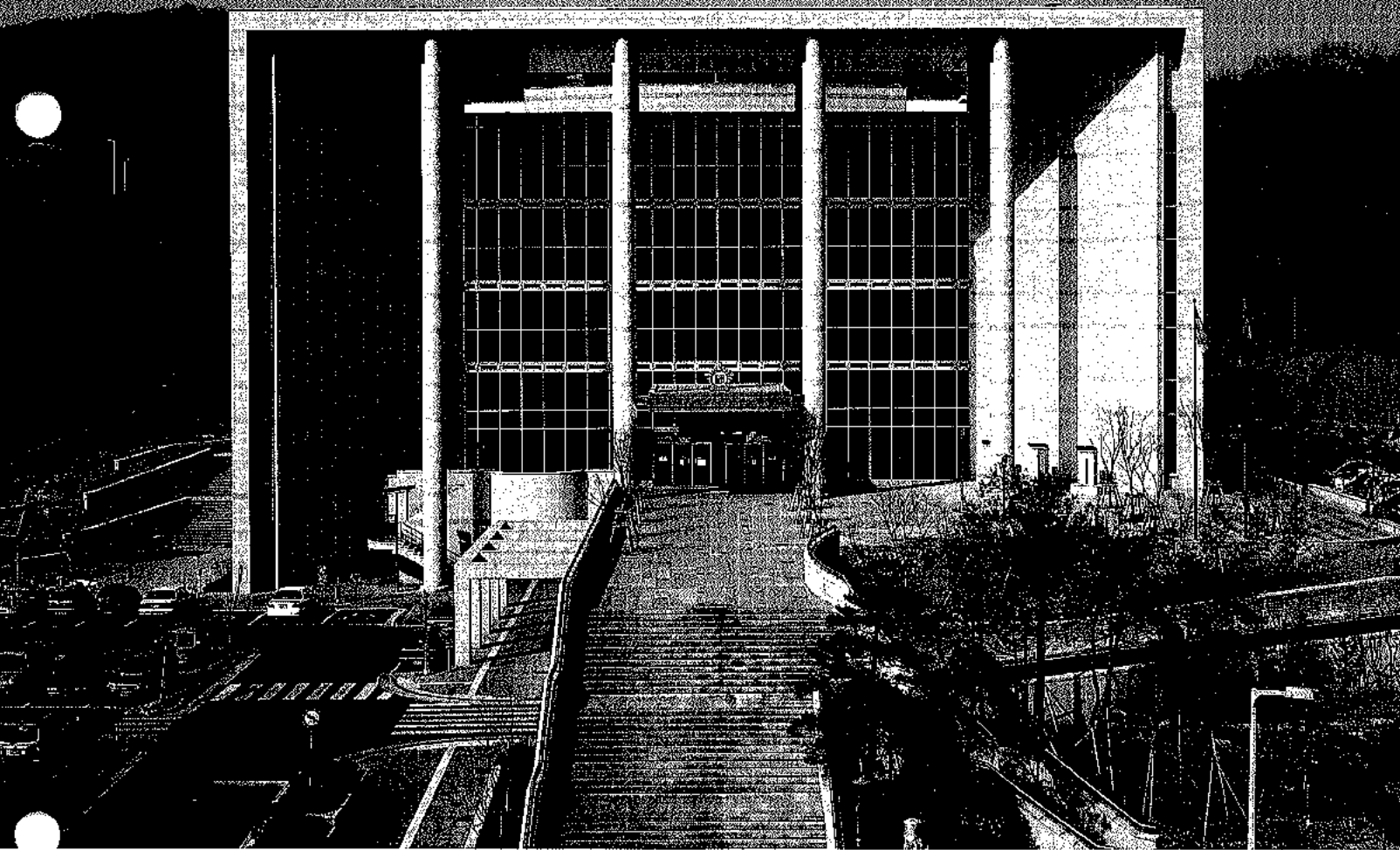
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상설계 당선안은 의회청사 용도로만 계획이 되었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의회청사 및 도서관(지하1층-문화교실, 시청각실 1, 2층-도서관, 3, 4층-의회)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다양한 시설이 추가되면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해 평면상에서 내부실 배치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초기 입면 개념인 의회청사의 단순하고 명확한 상징성과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의정부의 지역성을 표현한 열주를 살리는 입면 계획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발전시켜 계획이 이루어졌다.(글/ 코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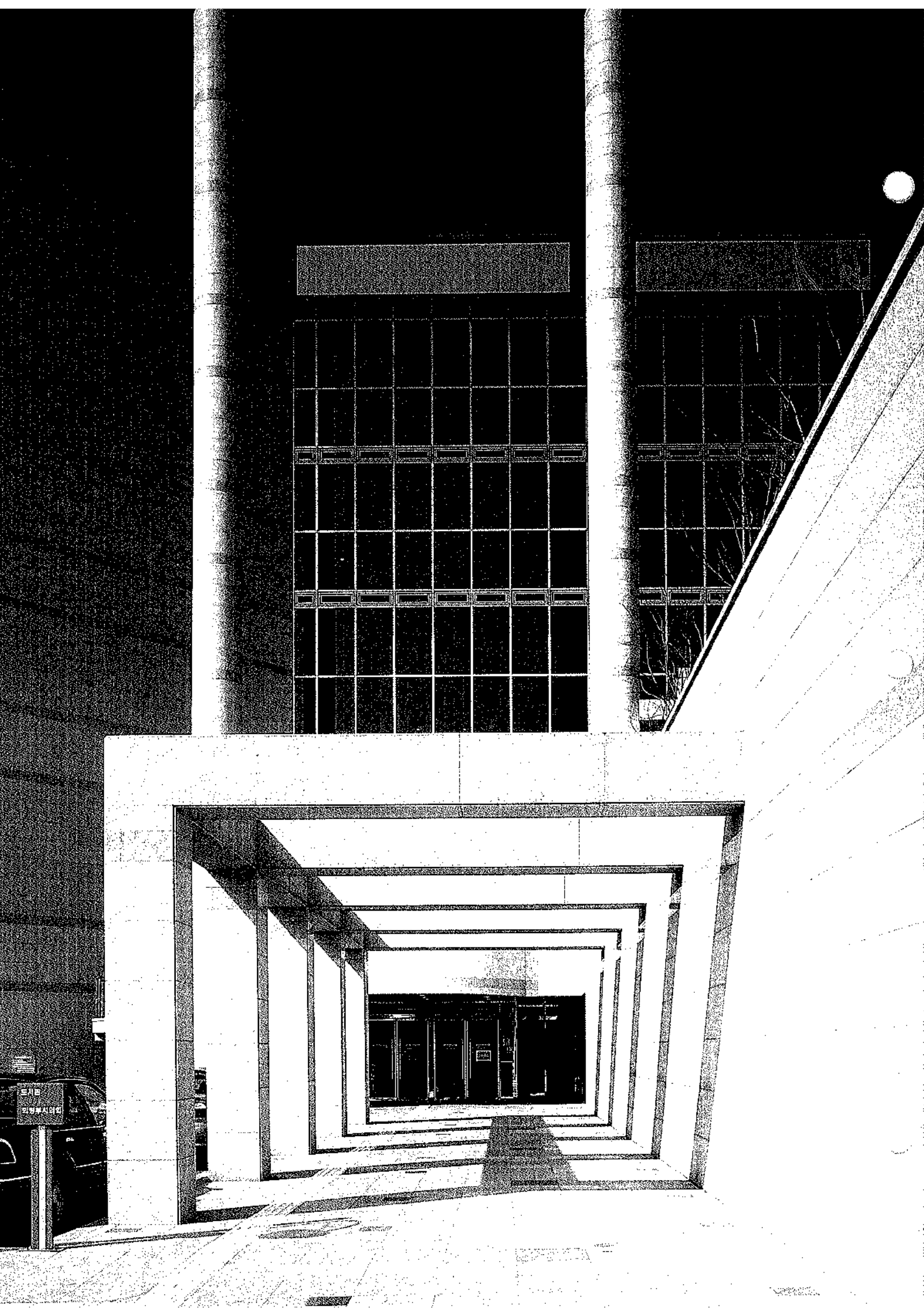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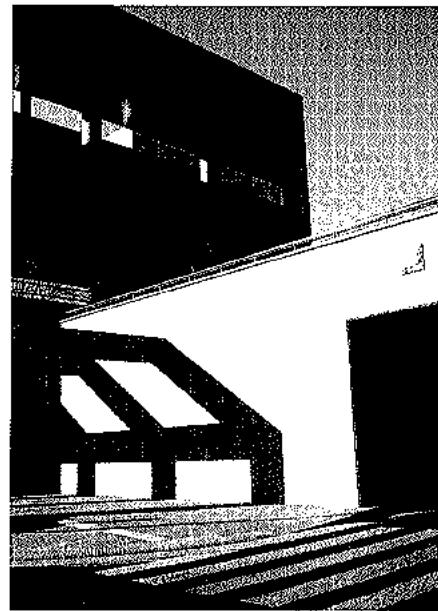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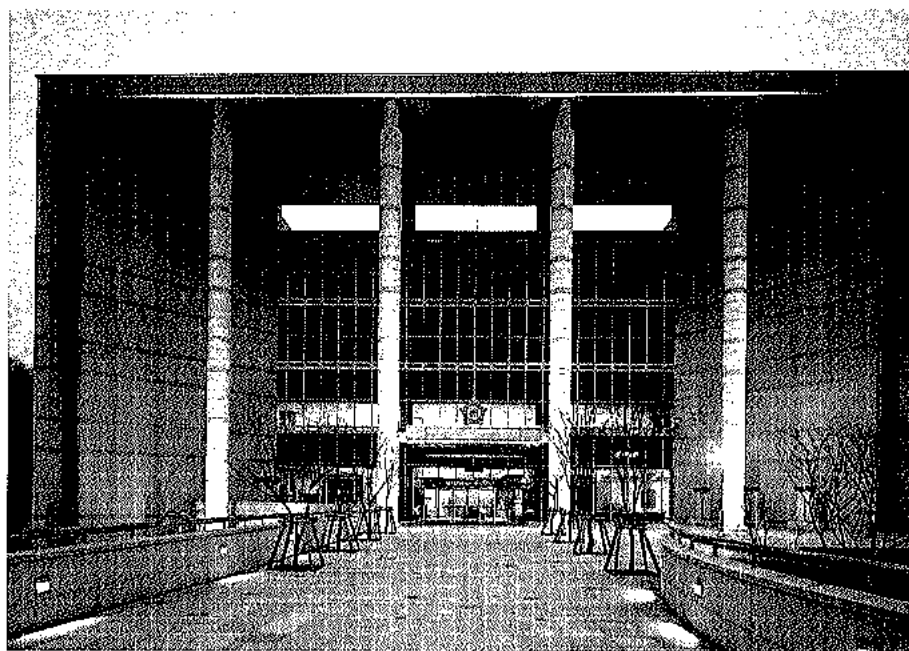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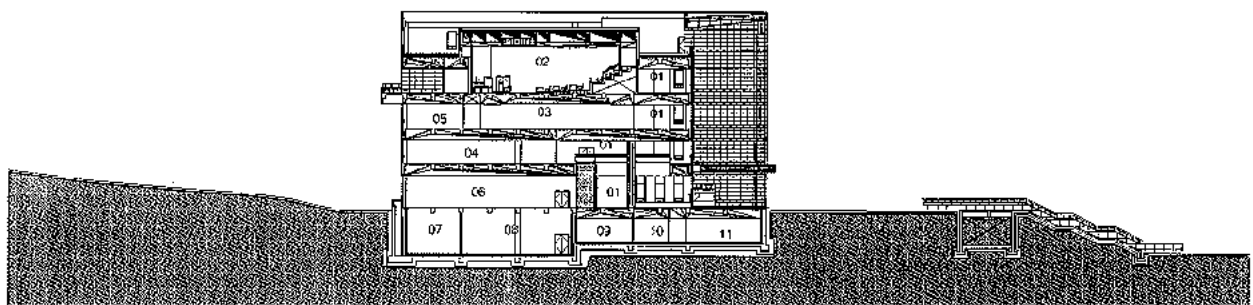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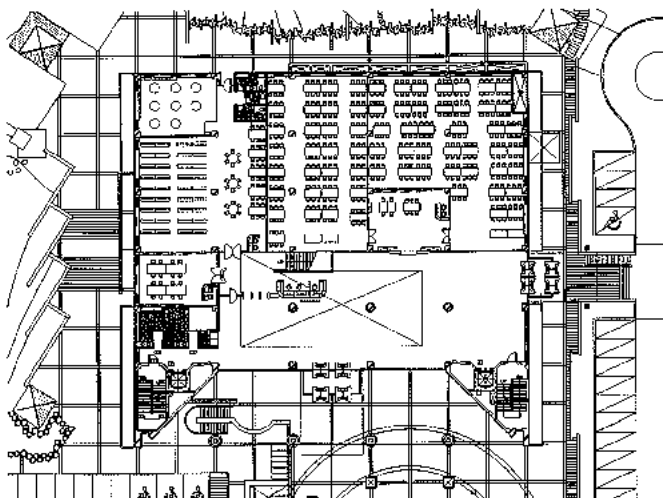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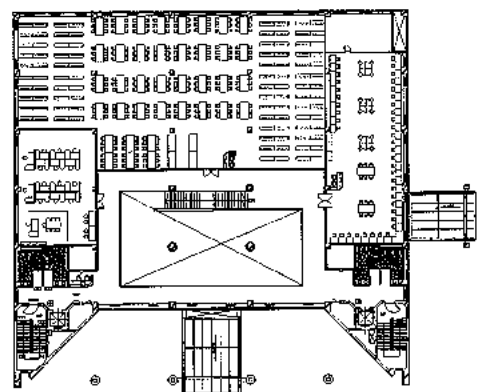
- 01. 로비
- 02. 관회의장
- 03. 소회의실
- 04. 문헌정보실
- 05. 전문위원실
- 06. 일반열람실-1
- 07. 열람실
- 08. 전가실
- 09. 세미나실
- 10. 회장실
- 11. 식당
- 12. 방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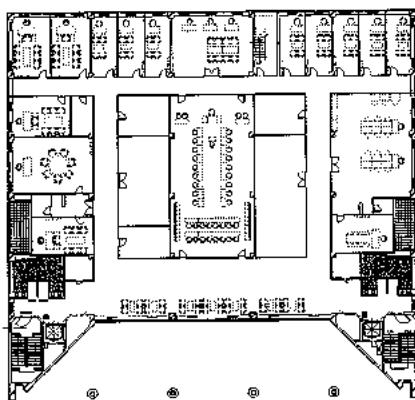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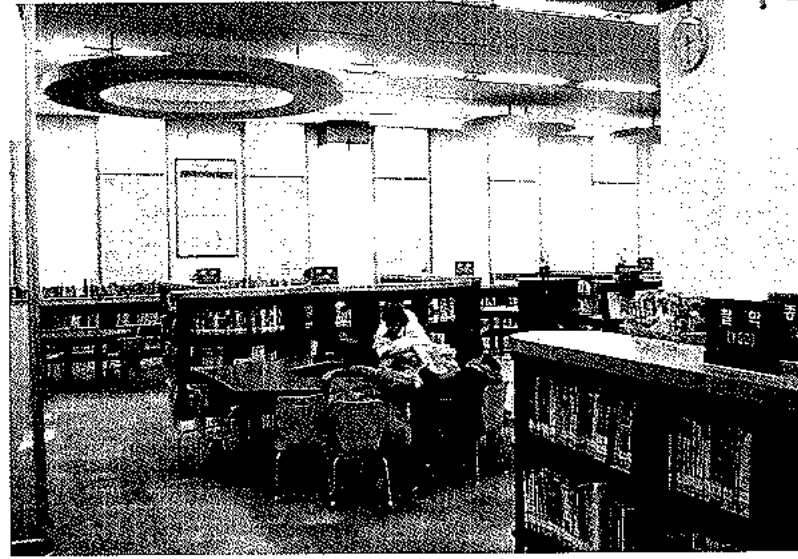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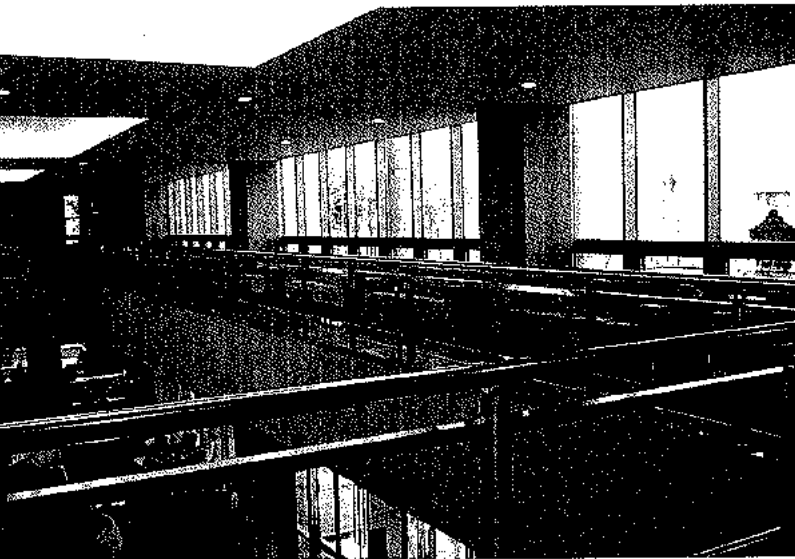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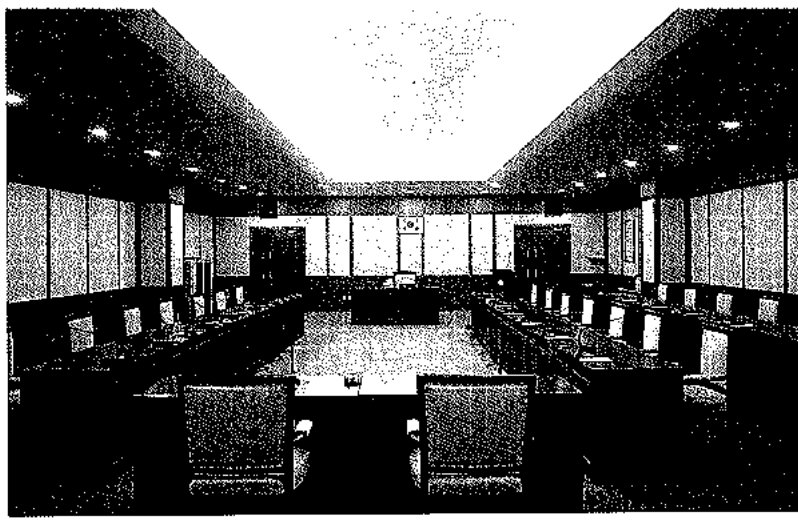
청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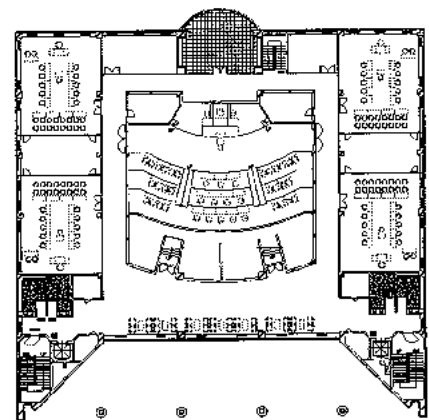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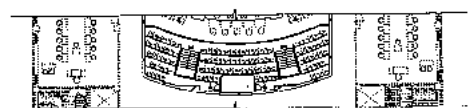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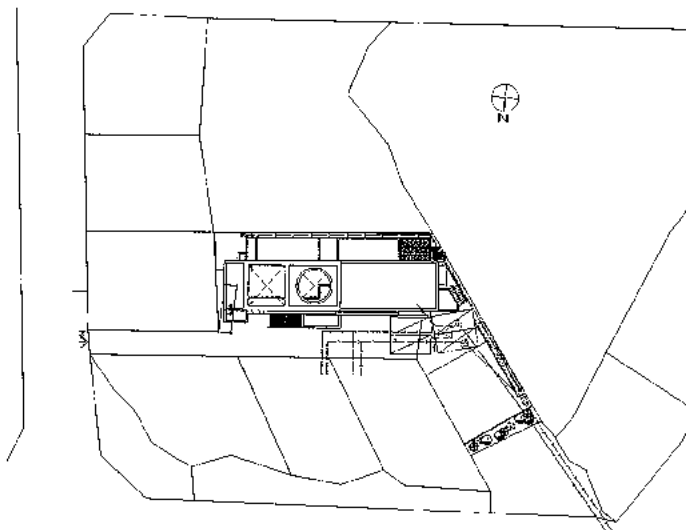
바탕층 평면도

어깨동무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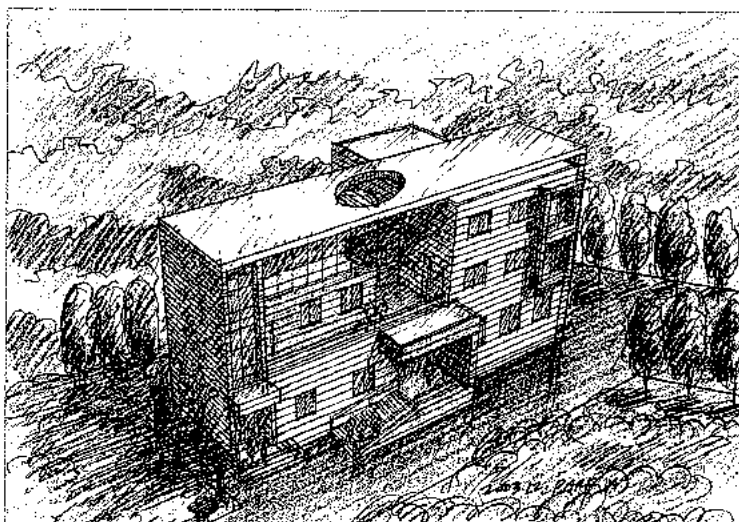
Uhkedongmu Children's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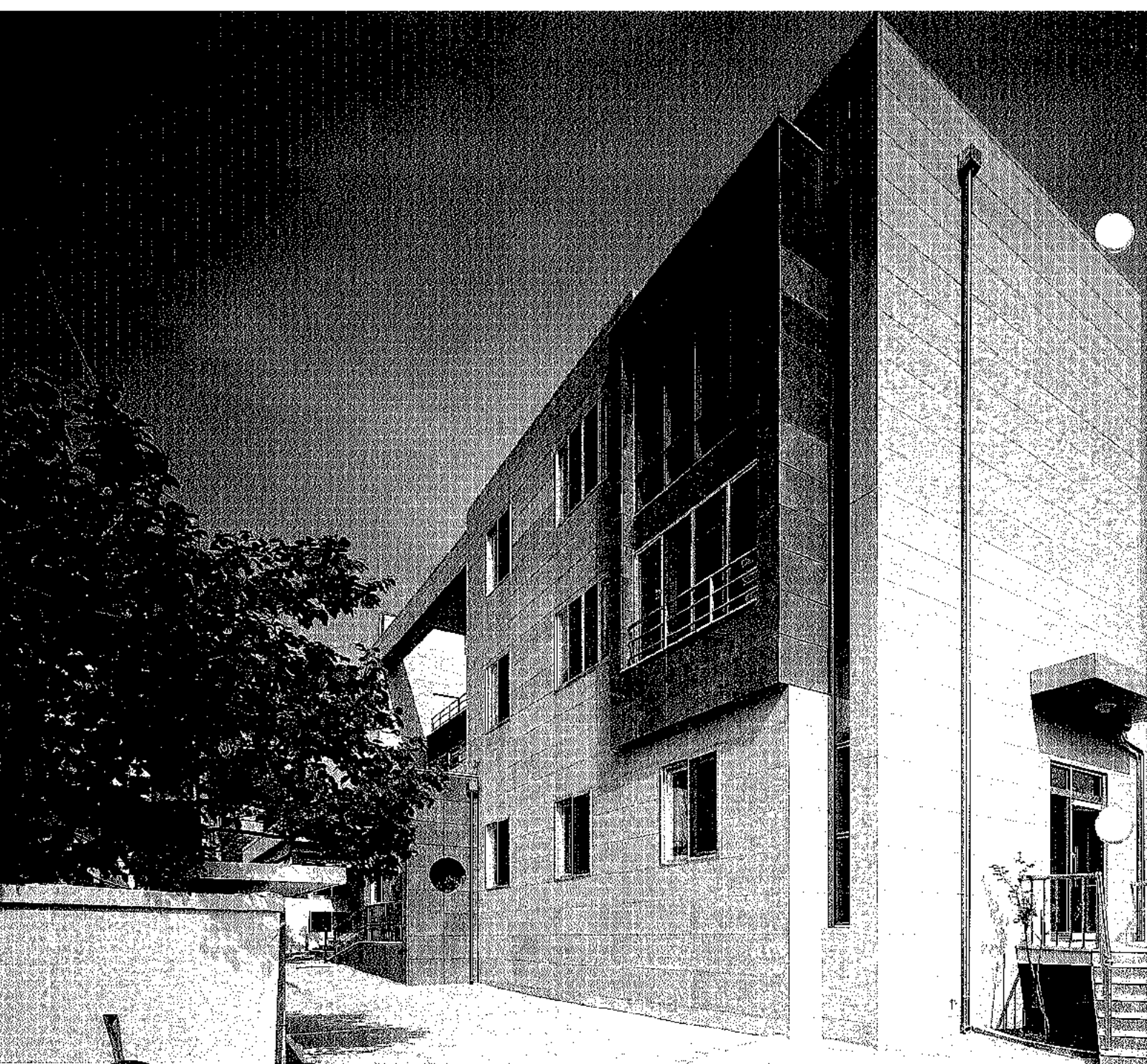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1-1번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18㎡
건축면적 226.435㎡
연면적 487.12㎡
건폐율 36.64%
용적률 78.82%
규모 지상 3층
주차대수 4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35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T50 드라이버트,
T30 인도산 적사암
설계·감리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www.wooban.com)
인테리어설계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건축주 라광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 프로젝트의 현장은 도시 내의 주택가에 인접한 낙후된 주변 환경과 전면도로보다 1.5미터 정도 낮은 대지와 폭이 3미터, 길이가 10미터 정도 되는 주진입로를 갖추고 있었다.

또 지질은 습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주변은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가 나는 상태여서 부득이 정리를 해야만 했다. 도로와 3면의 대지, 기존 주택과의 레벨 차이 그리고 대지 중앙에 전신주까지 설치되어 있어 마치 버려진 대지인 듯 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대지 구조와 주변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 프로젝트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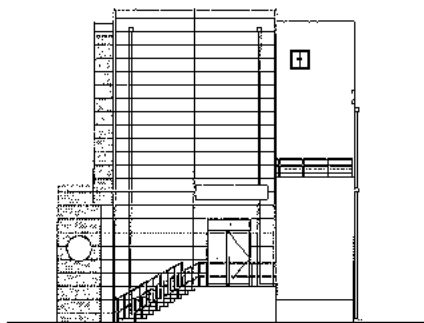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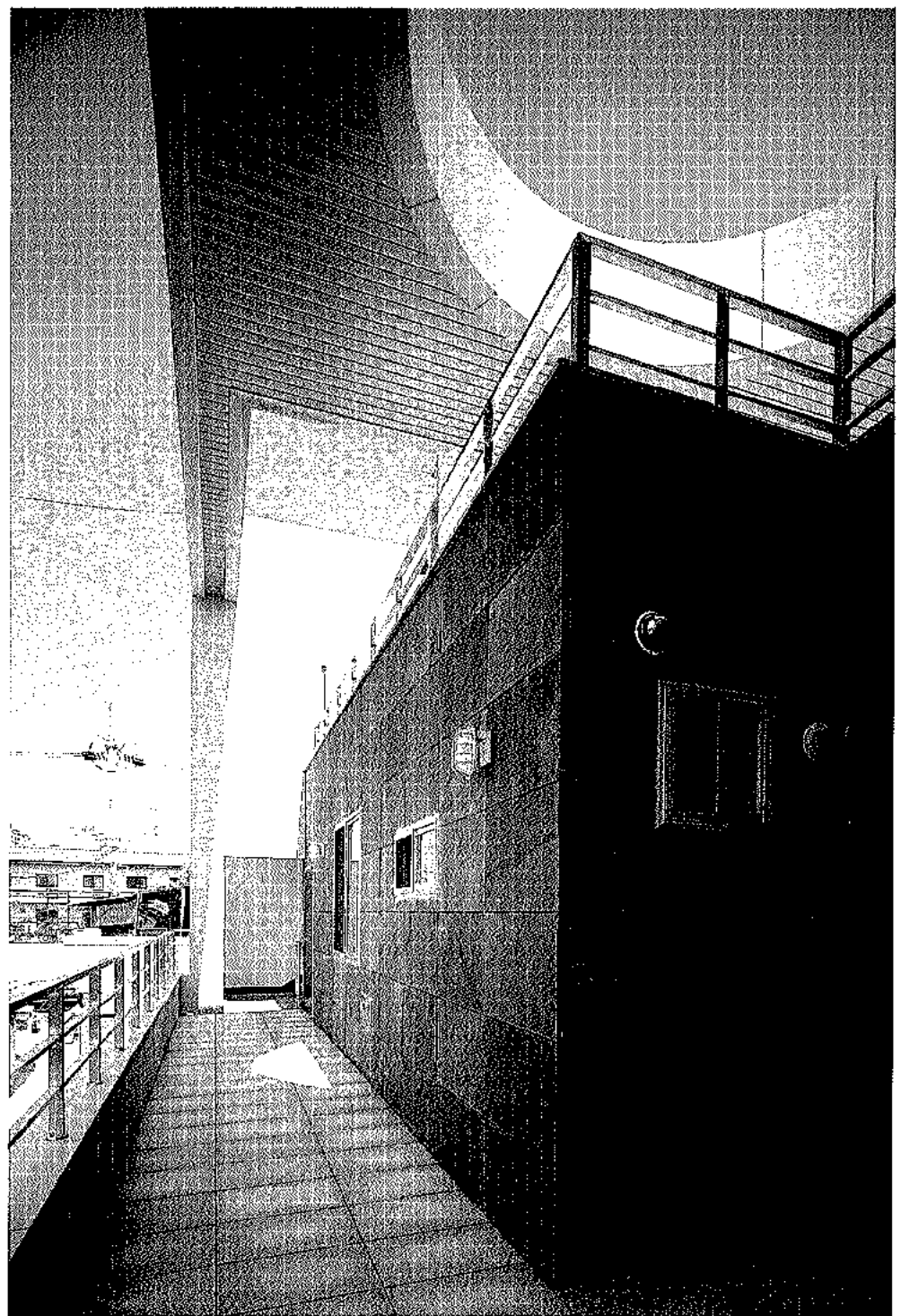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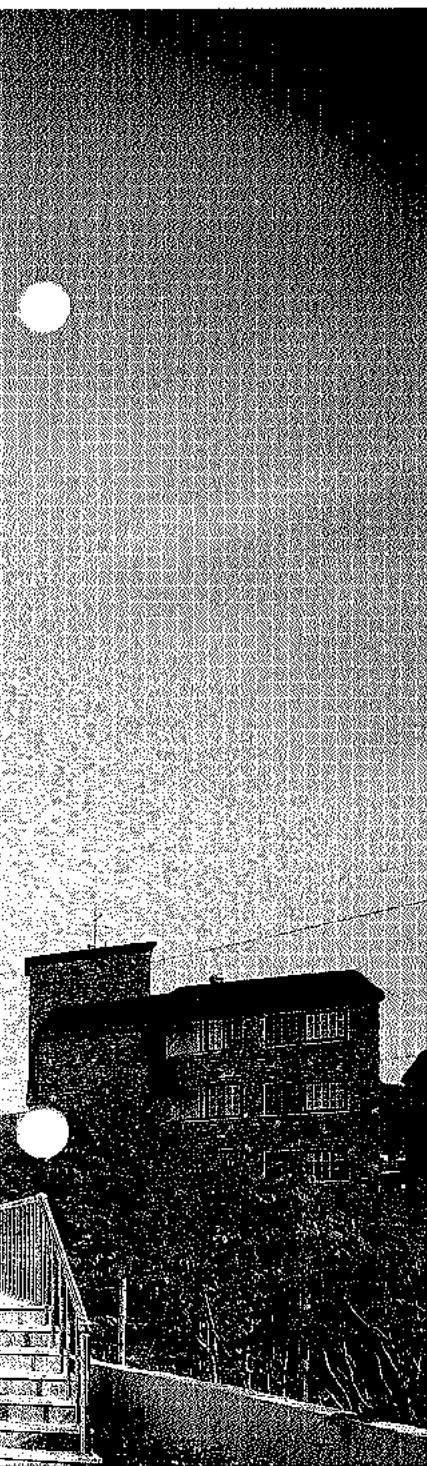
1층 바닥을 도로와 비슷한 레벨로 정리하기 위해 1.2미터 높였고, 전원의 인접 건물과의 레벨을 고려하여 기존 대지를 좋은 흙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대지의 배수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배치에 있어서는 동서의 장방형배치로 하여 대지 우측에 향후 놀이시설의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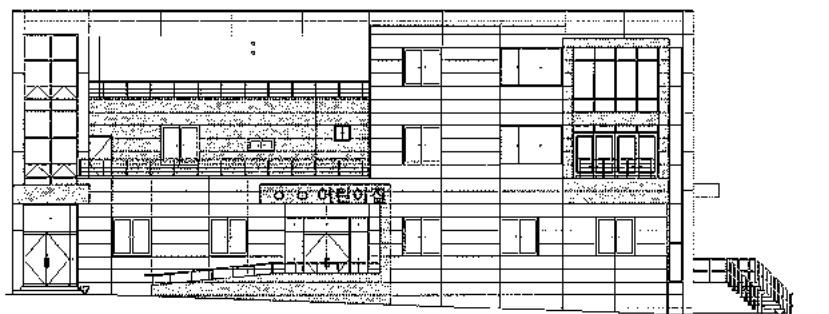
공간의 여지를 두었다. 평면은 1층에 어린이 집을 두고 좌측에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여 2층에 오르면 방과 후 교실과 2층과 3층의 공간구성을 이룬 주인세대의 주택으로 구성하였다. 또 2층 거실 앞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빛과 열에 의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들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조망권도 확보하여 계절의 변화나 하루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층의 아이들방과 통하는 옥상에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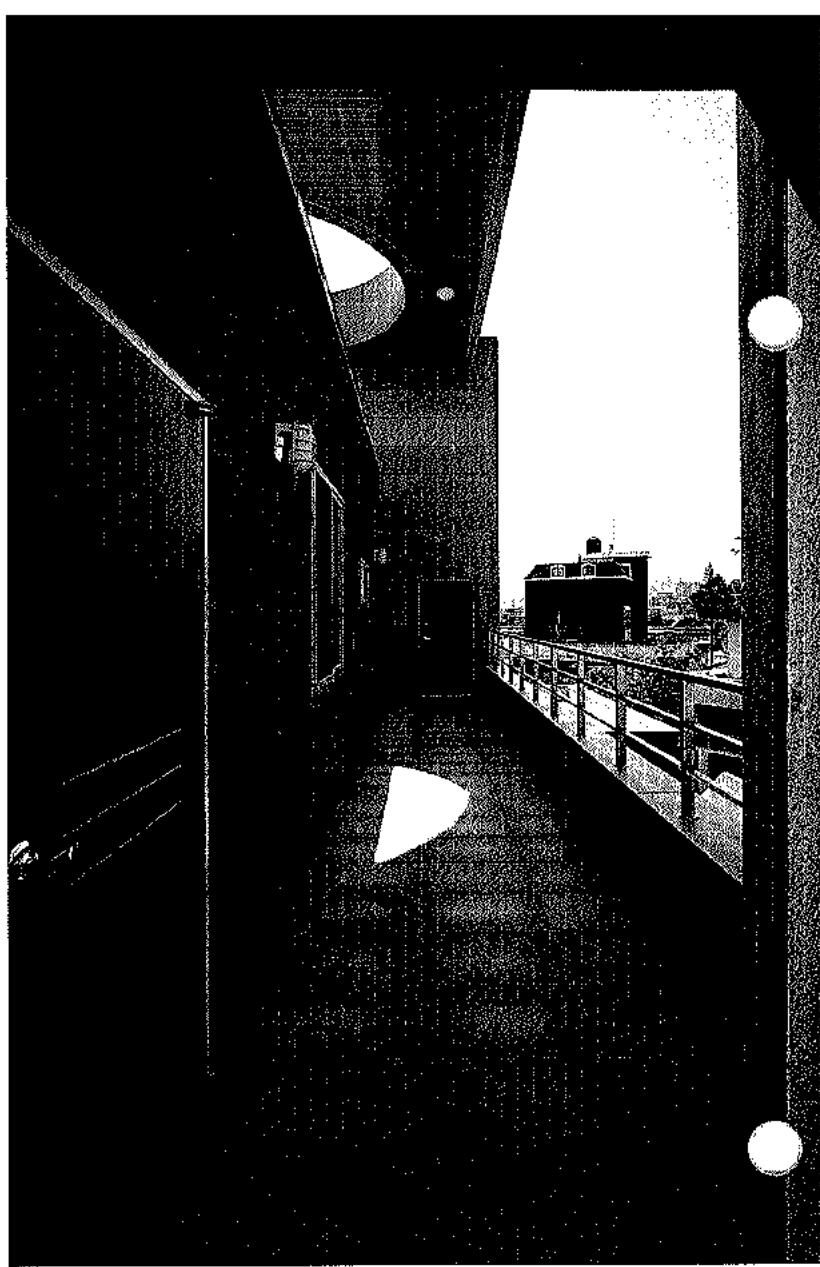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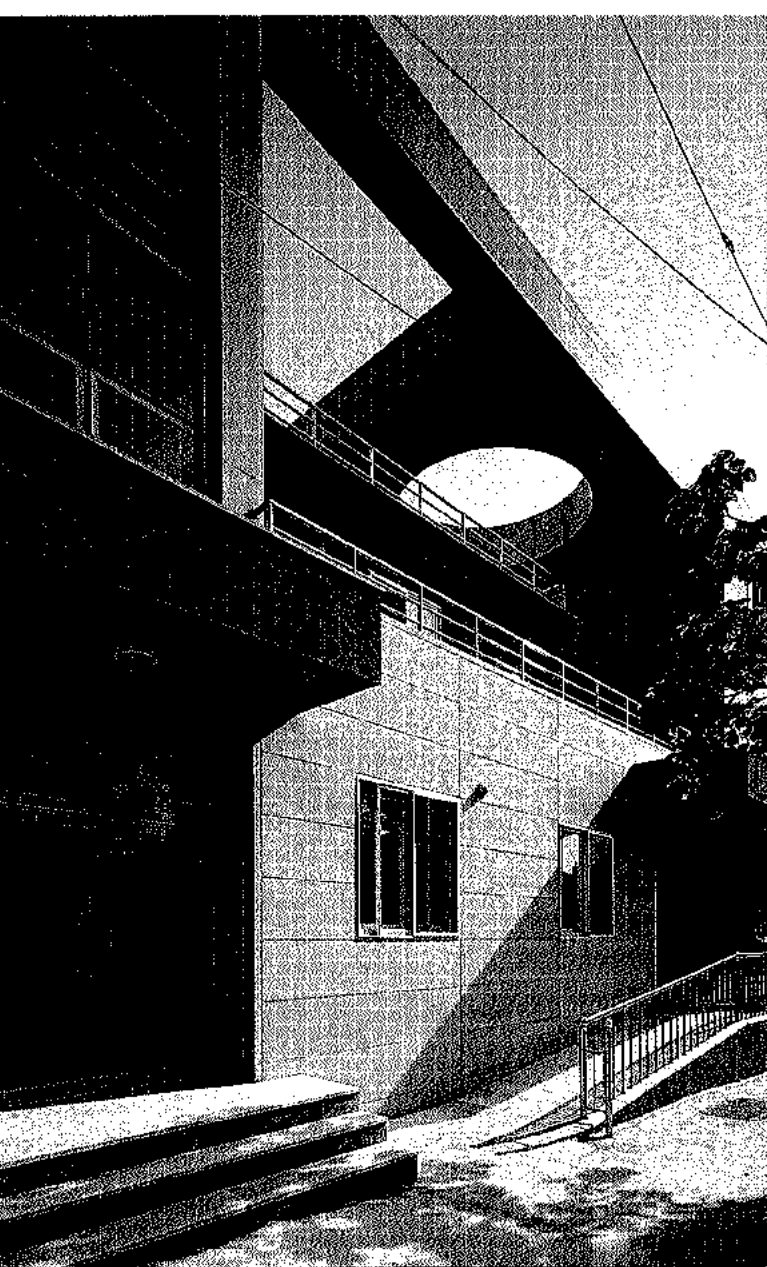
형태적으로는 내부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과 동서의 담힘과 남북의 열림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의도하고 다양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형과 동선체계를 통해 함축적인 질서를



우측면도



정면도



부여하여 위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장방형의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전이공간의 연관성과 분할로 인해 단조로운 정방형 형태의 축을 기본으로 한 기본질서 속에서 두 개의 매스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볼륨감 있는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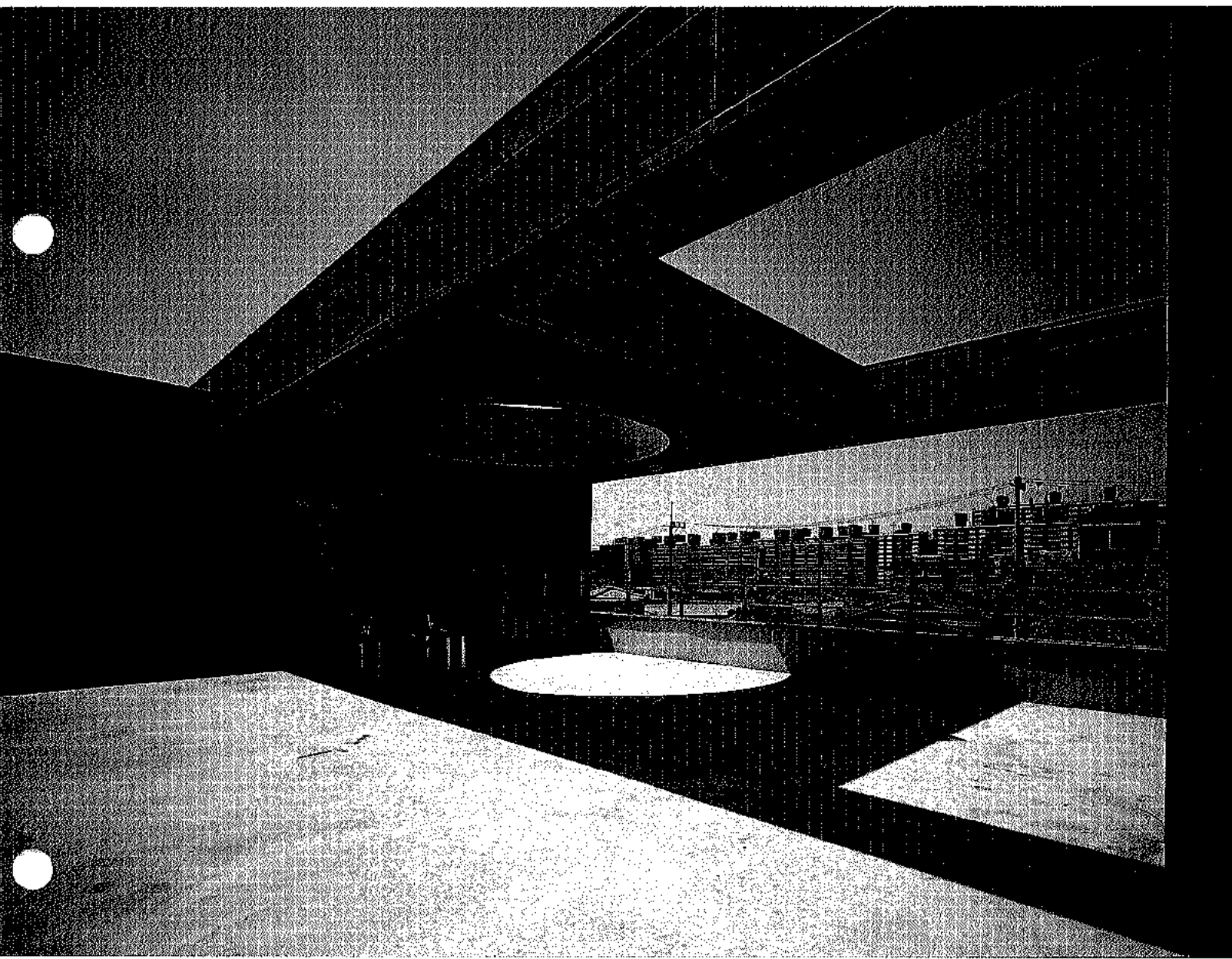
외벽을 감싸고 있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은 다소 면이 거친 단점이 있으나 현장감

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채색의 은은함이 묻어나오는 장점을 살려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 파스텔톤의 적색 인도시암은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과 색상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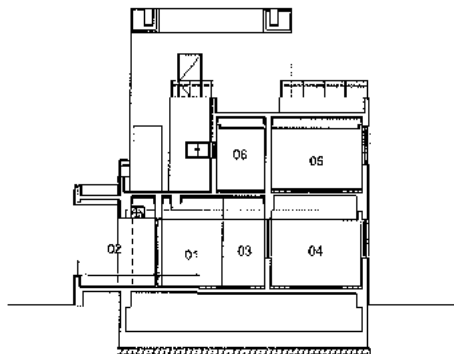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설계 주안점은 적극적으로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고, 외부 공간이 건물 일부로 느껴지도록 친환경요소를 최대한

적용, 배려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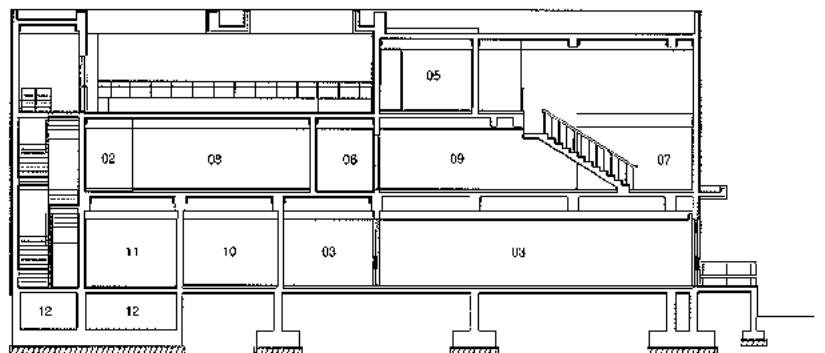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끝없는 연구 과제로 남기고...(글/박영준) 



- 01. 층
- 02. 현관
- 03. 복도
- 04. 미술교육실
- 05. 방
- 06. 다용도실/보일러실
- 07. 거실
- 08. 거실/주방
- 09. 주방
- 10. 언어교육실
- 11. 복욕실
- 12.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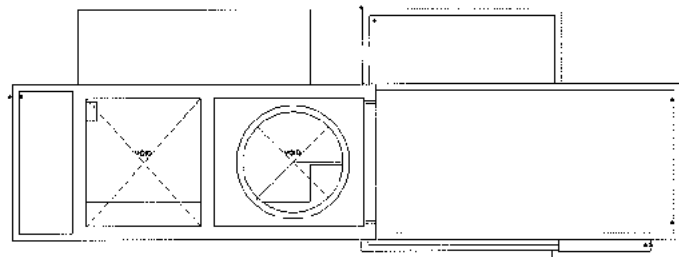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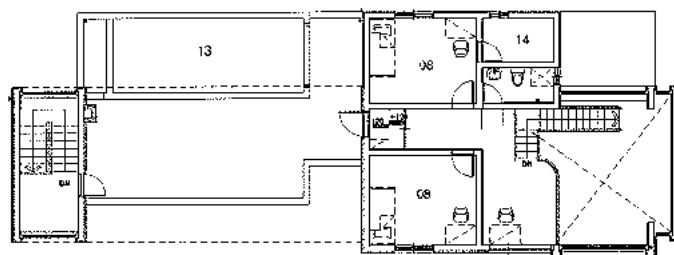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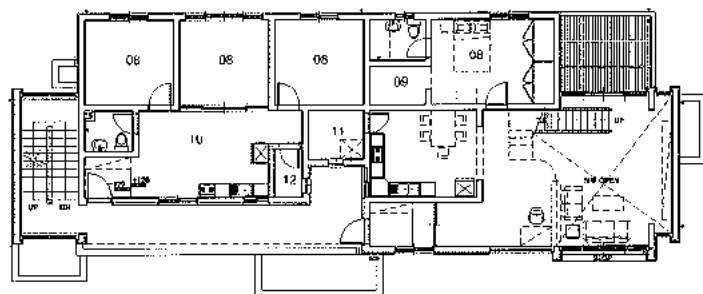


- 01 교실
- 02 미술교육실
- 03 입회실
- 04 주방
- 05 복욕실
- 06 언어교실
- 07 창고/보일러실
- 08 방
- 09 트레스톤
- 10 거실/주방
- 11 다용도실/보일러실
- 12 보양식실
- 13 복상조경
- 14 창고
- 15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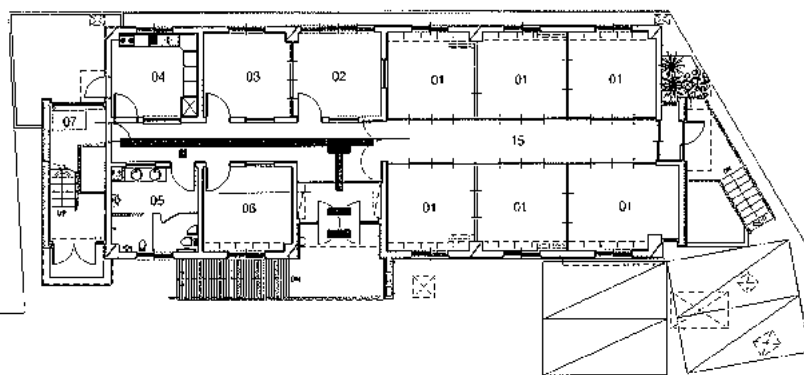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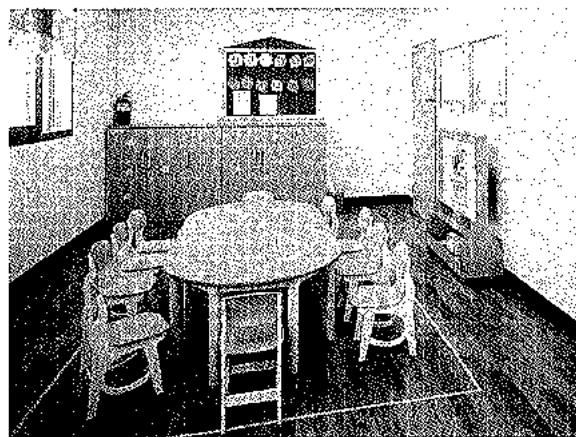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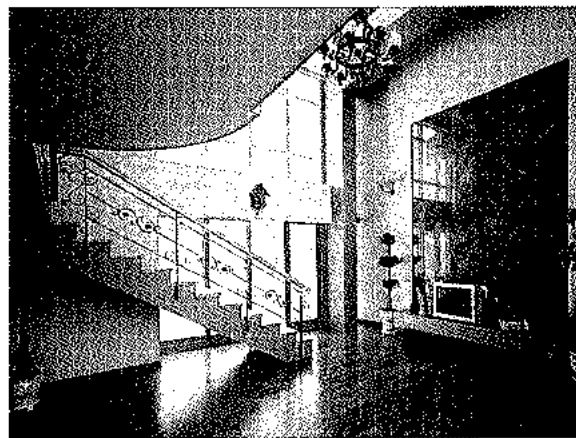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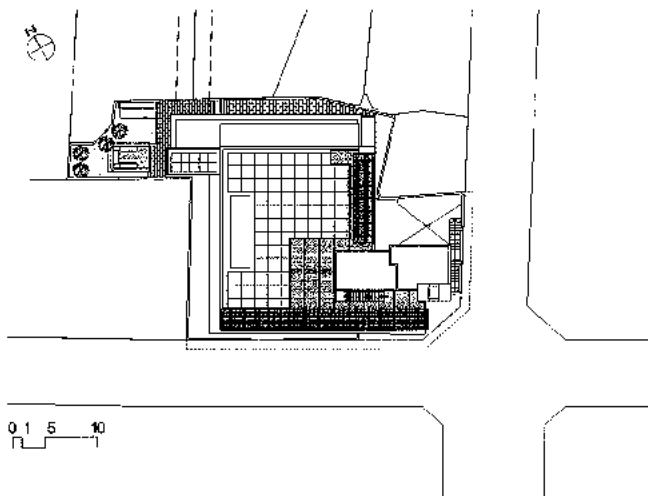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나사렛교회 Nazaret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9-28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012.00㎡
건축면적	585.08㎡
연면적	2,068.37㎡
건폐율	58.80%
용적률	132.3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7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	베이스패널, 노출콘크리트
건축주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교회
시공	(주)성우개발
인테리어	설계(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리모하우수(장흥기))
구조설계	산아구조 (소장 박철성)
전기설계	대경전기 (소장 송일섭)
설비설계	보우설비 (대표 김상관)
설계담당	김은수, 김현삼, 양희경, 김재범
감리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전농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전농동하면 나에게서는 고작 생각나는 것이
시립대학교가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는
것과 지금은 없어진 청계천 고가 다리 끝까
지 가서 고가를 내려가면 태양아파트가 좌
측에 나타나고 그곳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
면 그곳이 전농동 지역이라는 것만 생각날
뿐이다. 지금 나사렛교회를 준공하고 이미
그 동네에 대해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도 여전히 동네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확미

할뿐이다. 왜그렇게 생각해보니 동네전체가
60년대의 전형적 개발수법인 소규모주택단
지 방식으로 잘게 잘려져 있어서 당시에 문
화주택이라고 불려지던 붉은색 벽돌조에 과
다한 몸짓의 대문이 위압적인 건물군들이
바이러스처럼 팽배해 있고, 어딘가 찾아보
려해도 미학적질서는 찾아보기 힘든것에서
비롯된듯 싶다. 대개 이런 환경에 오래 거주
하다보면 주변상황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다보면 열악

한 상황도 감수하고 오래 견디게 되는 법이
다. 이곳에 50년 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교회가 드디어 오랫동안 묵은 옷을 갈아입
는 계획을 하게되었다.

처음에는 1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리노
베이션 만 해서 쓸 소극적인 생각이었고, 그
에따른 리노베이션 계획을 받아놓고 집행을
미루고 있던차에 교회 재무장로와 우연히
실크로드 여행을 같이하고 방도 같이 쓰게
되면서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흔히





그렇듯이 리노베이션 안은 이미 받아 놓았으니 신축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여 두개의 계획안을 냉정하게 비교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권유했다. 꼭 일을 따라야겠다는 생각보다, 화기는 그림을 망치면 캔버스 하나를

망치는 것이지만 건축에서의 그림은 일회적이어서 두 번 세 번 고쳐 지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지어지기전의 종이위 계획에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평소의 생각 때문이었다. 신축계

획안 브리핑을 들은 후에 건축위원들의 생각은 줄지에 신축으로 쉽게 결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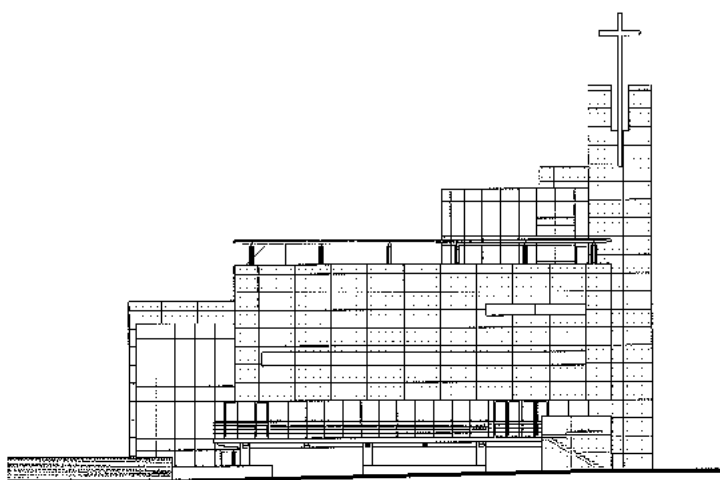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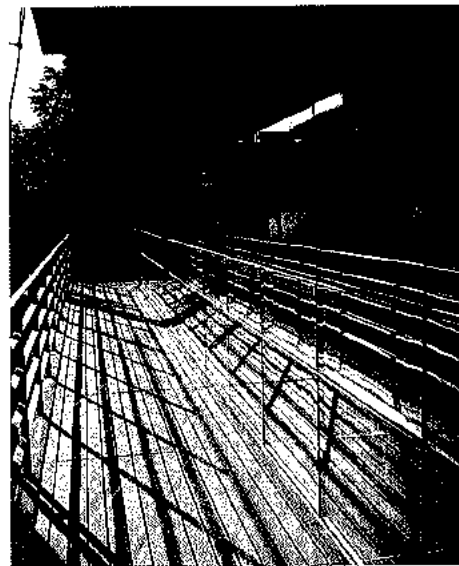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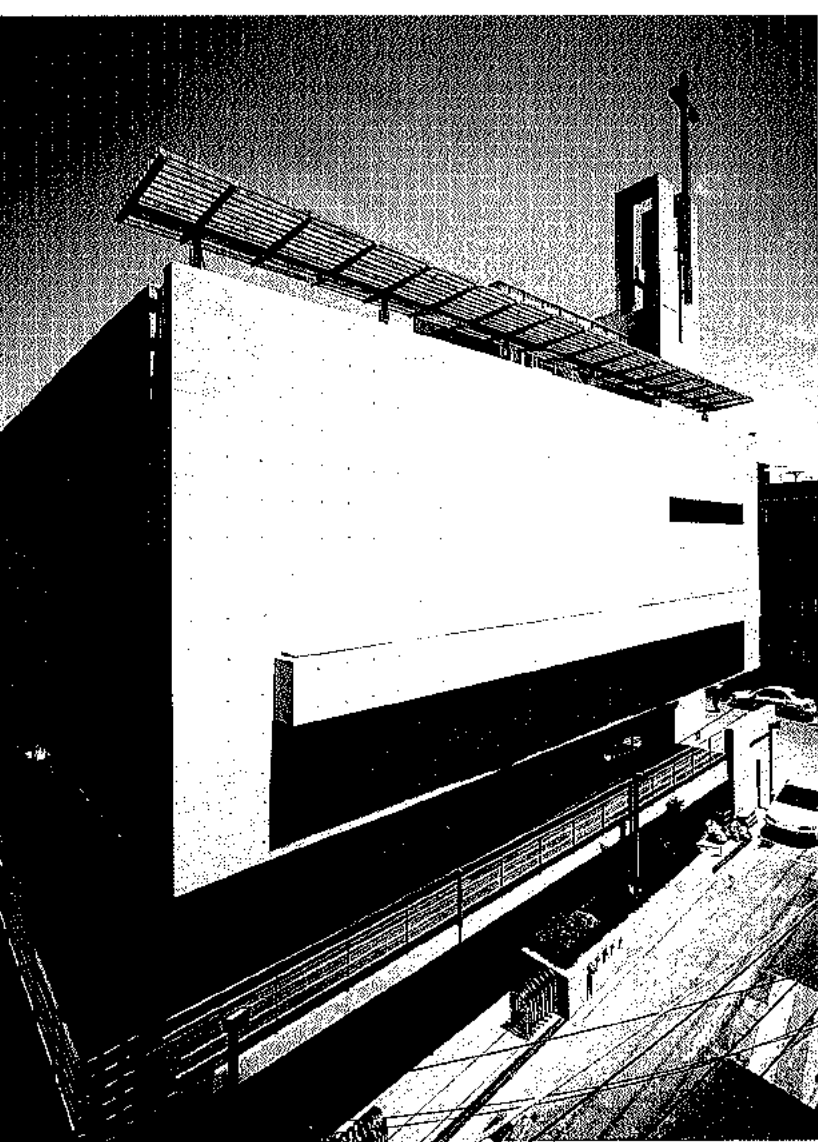
해결 : 교회 대지는 8m양면 도로에 면하고 있었는데 이점은 교회가 신축된 후, 인지도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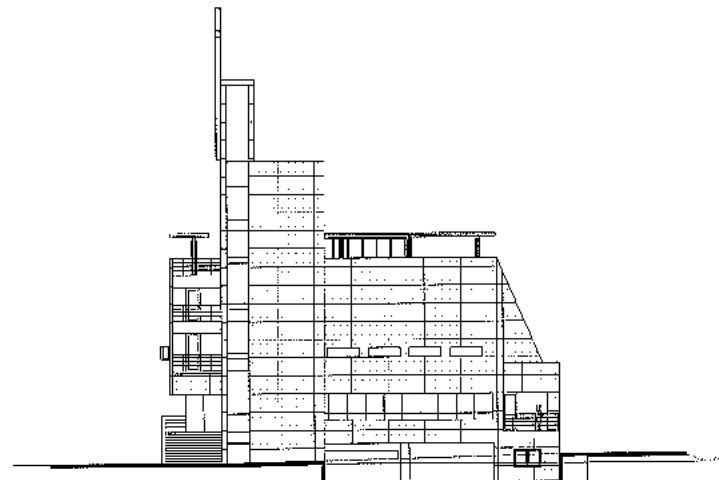
고있는 바 주차는 반지하에, 1층사람들의 출입은 반층위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여 차량이나 보행자나 서로 편안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분리 계획했다. 전체 연면적규모 600여평을 지을 경우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하는것이 최고의 효율이라는 오랫동안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나를 사로잡고있는 배가 이 건축을 풀어가는 키(key)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반층 들어올려진 데크에 오르면 배에 탄 것 같은 기분을 맛보게된다. 그리고 입면은 주위에 포진한 낮고 자잘한 건물들이 지니고있는 소란스러운 입면들에 대응하는듯 크고 단순하여, 마치 동네에 커다란 화목을 제공하듯이 단순한 입면구성을 하였다. 단순한 입면에 반향하듯 돌출한 기다란 콘크리트 박스는 벽에서 튀어나와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 예배당 내부공간에 빛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light-box 인셈이다. 내부예배당 공간이 더욱 엄숙하고 위요를 갖출

수 있을 법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테리어성 재료가 벽과 천정에 공격적으로 붙게 되면서 순수해야할 건축의 입을 틀어막은 결과에 다름아니다. 건축음향을 발미로 또 단순한 재료를 건디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인식부족이 덧대어져 침략해오는 인테리어성 재료를 거절할 수 있는 건강한 건축을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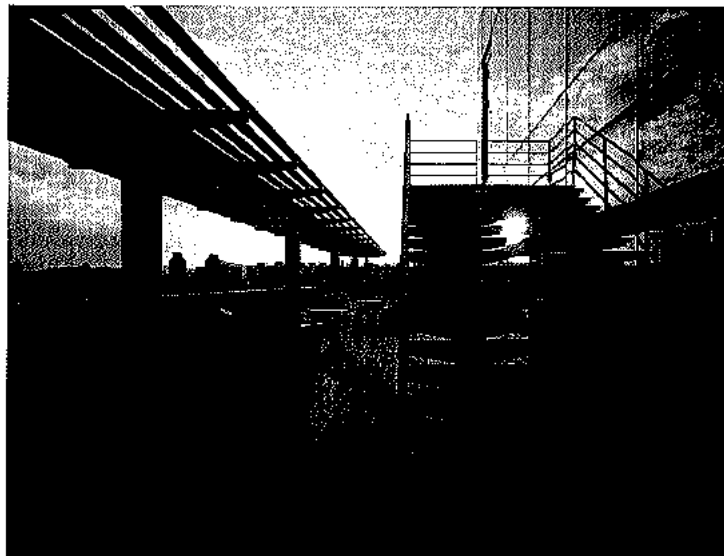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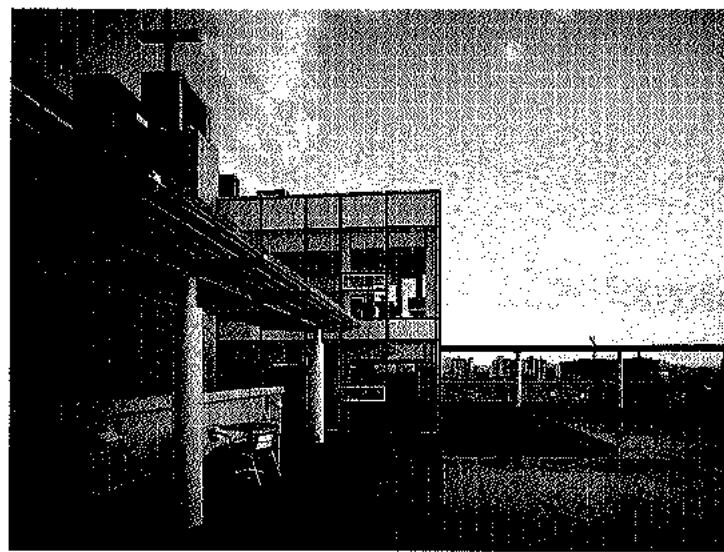
보너스 : 옥상에 필연코 넓은 마당이 생기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바이나 어느 옥상이고 옥상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곳은 사용자들의 기억에서 곧 잊혀지게 마련이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하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어야 옥상마당과 상호 보조하여 멋진 공간이 되는것이다. 더나가 한층위에 율탱크 없는 물탱크실을 휴게소로 꾸며 4층까지 뚜렷한 목적들로 가득찬 공간들을 뒤로하고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원경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글/최동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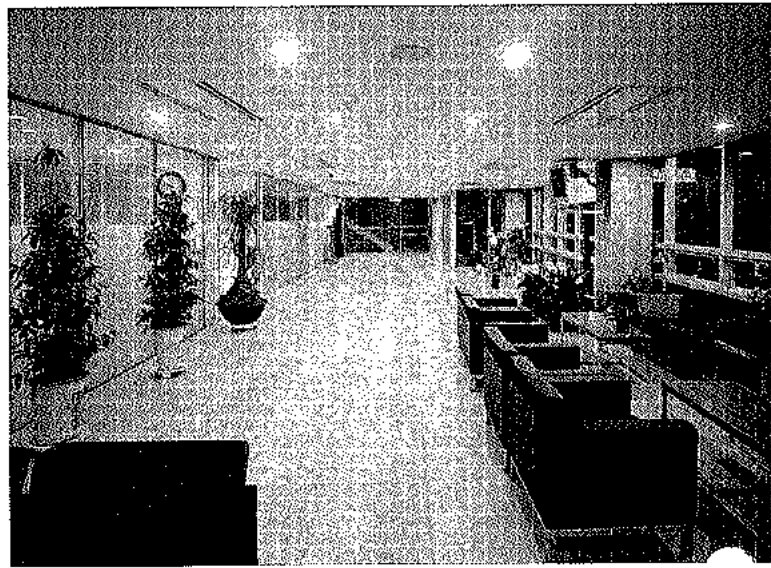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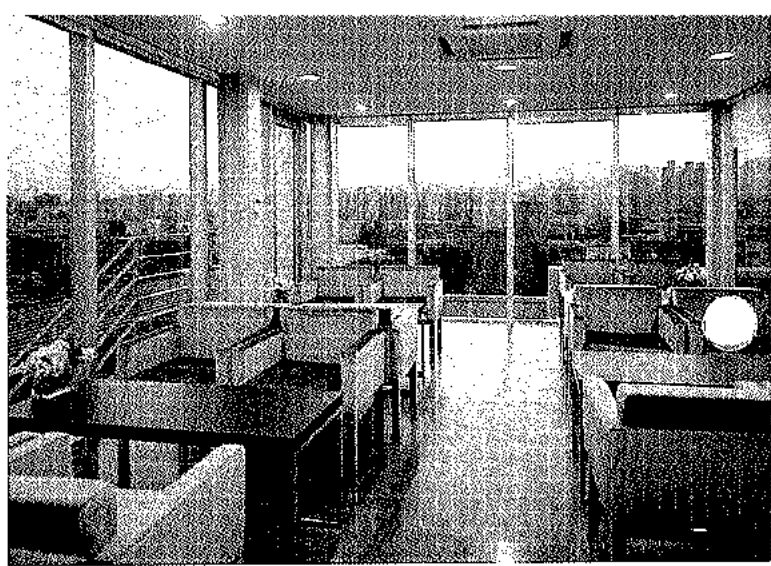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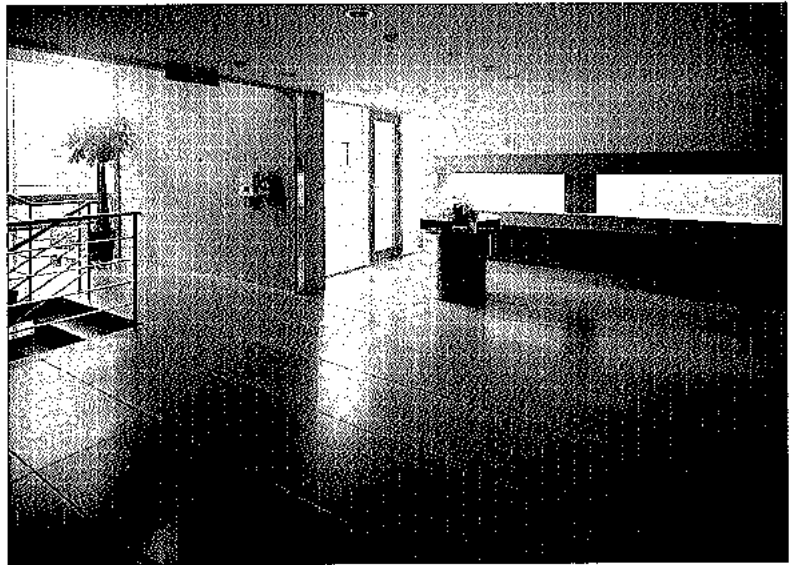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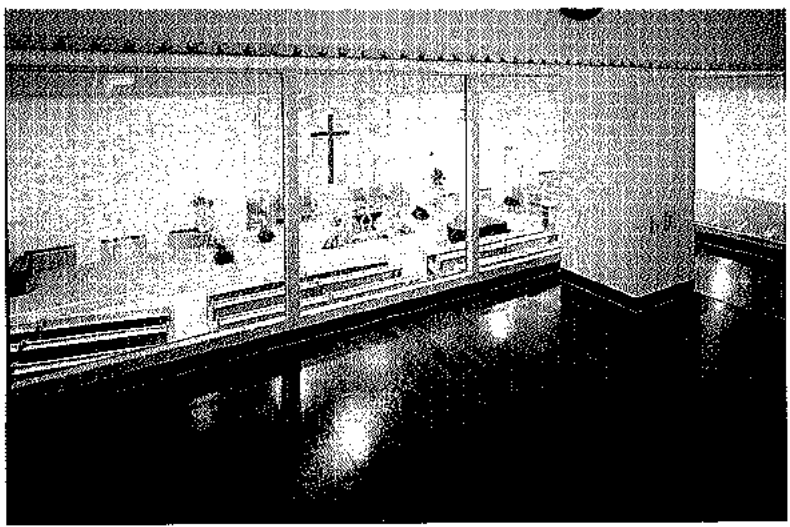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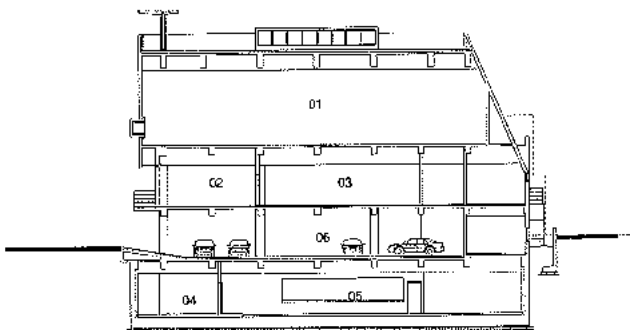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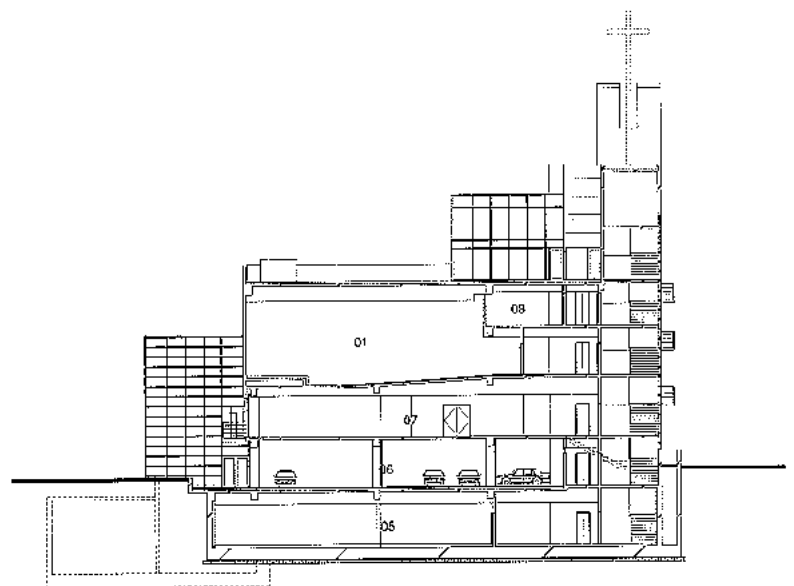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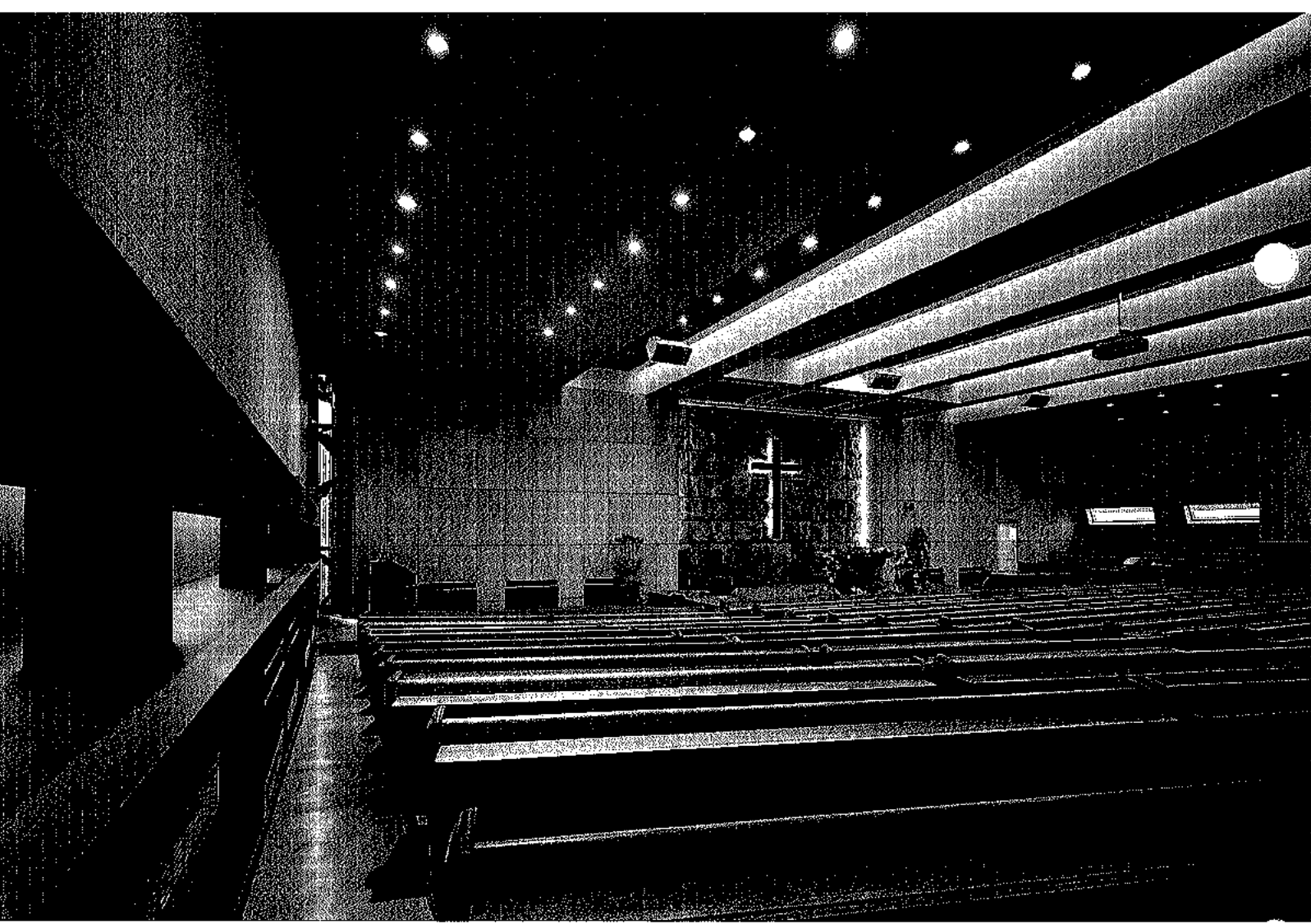
- 01_ 대예배실
- 02_ 사무실
- 03_ 회의실
- 04_ 도서관
- 05_ 식당
- 06_ 주차장
- 07_ 중
- 08_ 지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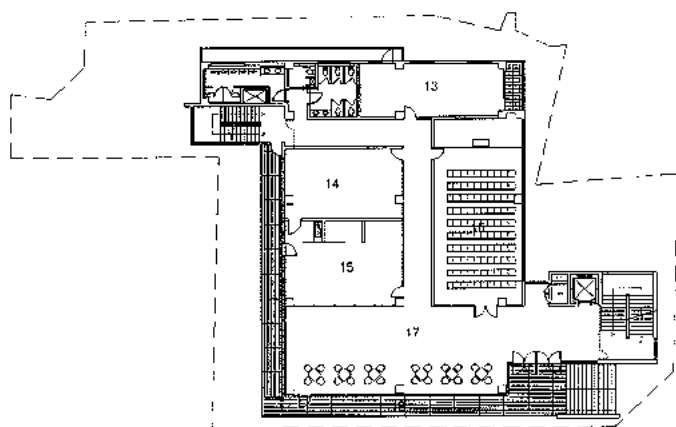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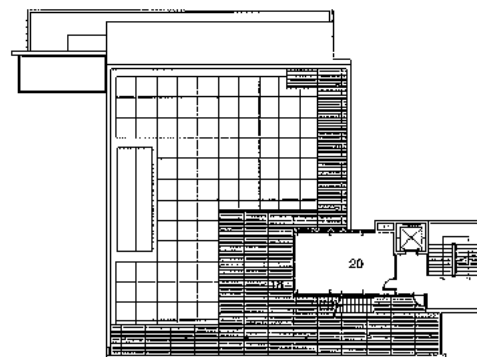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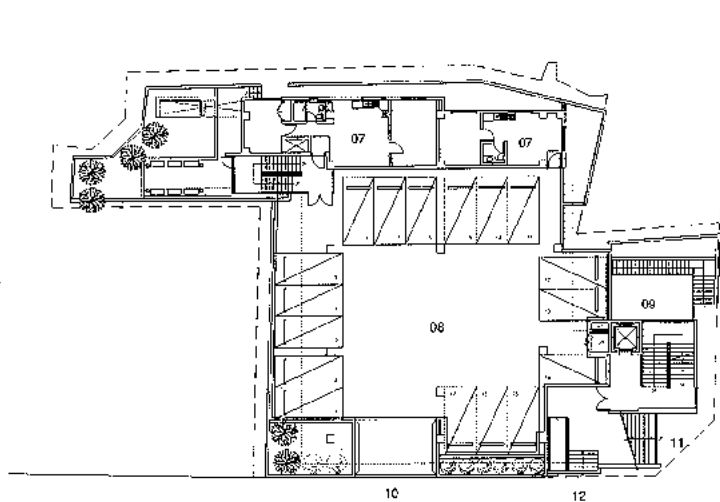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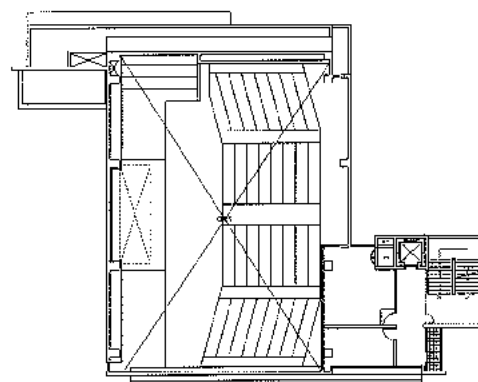
- 01. 독서실
- 02. 장어우실
- 03. 식당
- 04. 주방
- 05. 전기실
- 06. 기계실
- 07. 사택
- 08. 주차장
- 09. 선진
- 10. 주차장 출입구
- 11. 부출입구
- 12. 부출입구
- 13. 새신자실
- 14. 당회정실
- 15. 사무실
- 16. 성가대연습실
- 17. 홀
- 18. DECK
- 19. 대매배신
- 20. 진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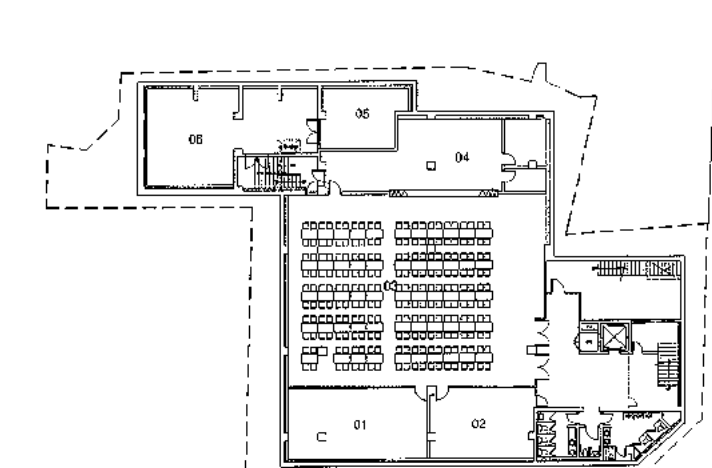
옥탑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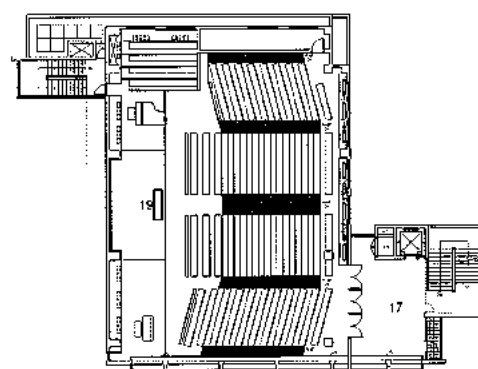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0 1 5 10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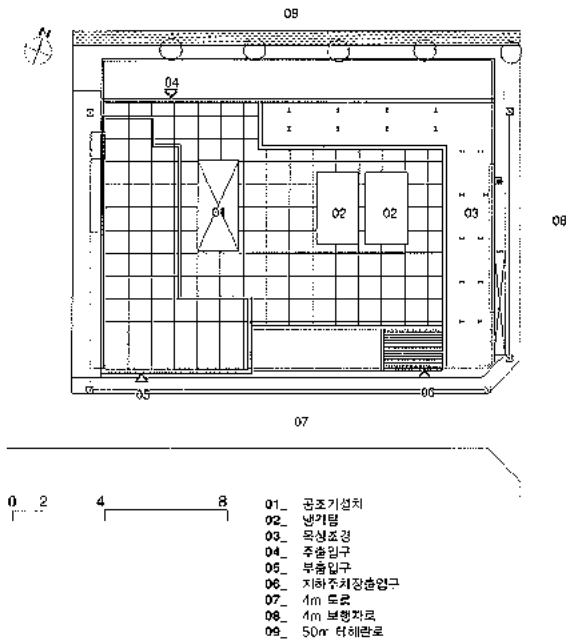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안제타워

Ann-Jay Tow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2, 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1종미관지구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59.80㎡
건축면적	384.00㎡
연면적	9,612.73㎡
건폐율	58.20%
용적률	1,086.01%
규모	지하 5층, 지상 20층
구조	철골조-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물갈기,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ACCESS FLOOR, 본타일 스프레이, 화강석물갈기
감리	윤영철, 이종현
구조	(주)신구조
기계	(주)설화 엔지니어링
전기	(주)영광전기
토목	(주)천일 지오 컨설턴트
시공	(주)풍림 산업
설계담당	고영미, 임성혁, 최순민, 김광진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Prologue...

많은 건물이 제각기 뿔내듯 테헤란로 넓은 도로변에 즐비한 빌딩 숲속에서 볼썽 건물 하나가 탄생한다. 역삼역 주변 근거리면 땅값과 위치, 환경을 보아 누가 봐도 황금땅인 듯 싶다. 이 위치에 내 나이에 작품하나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인연인지 이 빌딩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대지의 계획, 수정을 겪은 결과일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지... 우선, 1층과

2층의 높은 임대수익을 뒤로하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옥외공간(쌈지공원)을 수용해주신 건축주께 감사드린다.

한마당

정면성(테헤란로변)을 부각시키기 위해 1층 레벨을 높임으로서 후면도로에서의 주차 진입이 원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층과 2층 Void공간의 자연스러운 계단식 옥외공간이 형성되었다. 전방과 후방에서의 옥외휴게

공간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용이하며, 폭은 좁지만 시야감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전면의 2개층 Void공간은 대부분 막혀 있는 건물과는 달리 통과성을 부여한다.

접대기

전체를 외피화(화강석)하고 주요부위만 창을 냈지만, 아무래도 테헤란로를 전면 도로로 두고 있으니 이정도 규모라면 조망 또한 끝내주기에 동서로는 차단하고, 남북으



로 전면 개방하는 입면 Study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측은 서향의 일사량 차단,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로서 Core를 배치했으며, 동 쪽으로는 건물이 근접하여 필요부위만 창을 두었다. Curtain-wall계획도 여러번 수정되었고, 창문 개폐방식도 모두 도입해 보았고, 북 층유리의 크기에 따라 수십번 찢어보았으며, 전면유리 관계로 풍동실험인 Mock-up도 실시하였다. 그래도 과거에 배운 건축수업의 Simple한 Design이 건물에 주는 나쁜 영향이 가장 적다고 생각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안체의 힘

건물이 높은 반면(20층), 체구가 작아보니 공법, Span 등 구조상에 상당히 민감해졌다. 장 Span(11.9m)과 편심 Core의 관계에서 생기는 변형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Core

반대편에는 구조적 Bracing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구조해결로서 내부는 무주공간이 확보되었으며 탁 트인 사무공간을 형성했다. 입구에서 반대편에는 Bracing이 노출되고, 북쪽으로는 강남의 이북이 다 보이고, 남 쪽으로는 우면산까지 보이니 전경 하나는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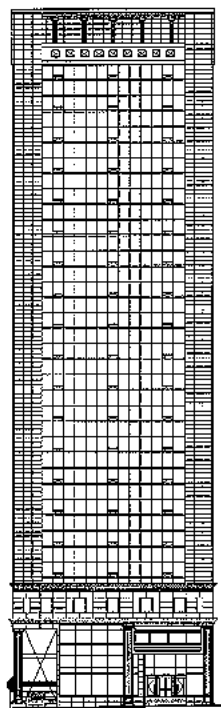
뗏부리가+하늘마당

저층부의 처마귀집이와 원형노출기둥의 고전적인 요소도입, 기준층의 Curtain-wall, 옥탑부의 노출기둥으로 고전과 현대의 Design요소를 조화시켰다. 후면의 노출보도 처음에는 컬러Beam으로 처리하였으나, 일 관성있는 화강석마감으로서 건물의 Mass를 깎이지 않은 직사각형 형태로서 규모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타 건물과 달리 건물 외피가 화강석 버너구이가 아닌 화강석 물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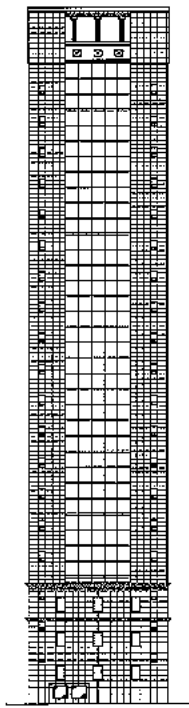
기로써 공해 등을 고려한 건축주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다. 옥상의 곤도라 설치 공간을 공사중간에 취소하고 이 공간에 녹지휴게 공간을 두어 하늘과 휴식을 고층부의 이용자들에게 개방하였다.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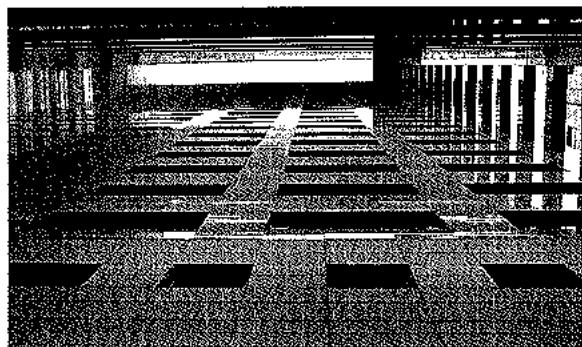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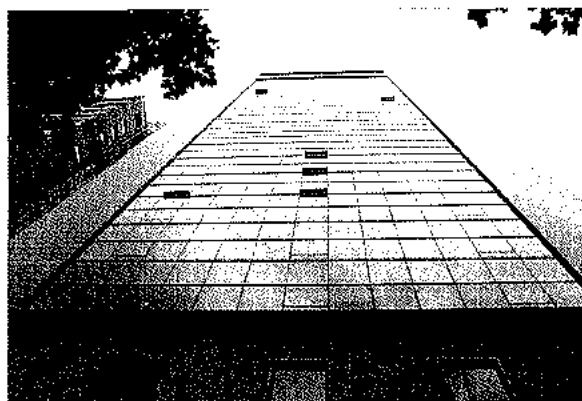
모든 Project가 그렇듯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옥상외부의 하고픈 Design, 강남 역에서 바라보이는 서측면의 Mural-painting, 1층과 2층 Void공간 상부의 이질재료 Design, Curtain-wall의 Design, 화강석 외피에 뚫어진 개구부 형태, 1층의 도입부 등 끝이 없었지만 공사비가 문제가 된다. 건축주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는 언제 쯤 우리의 건물을 우리가 하고픈 Design을 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몇 배로 가져올 수 있을지... 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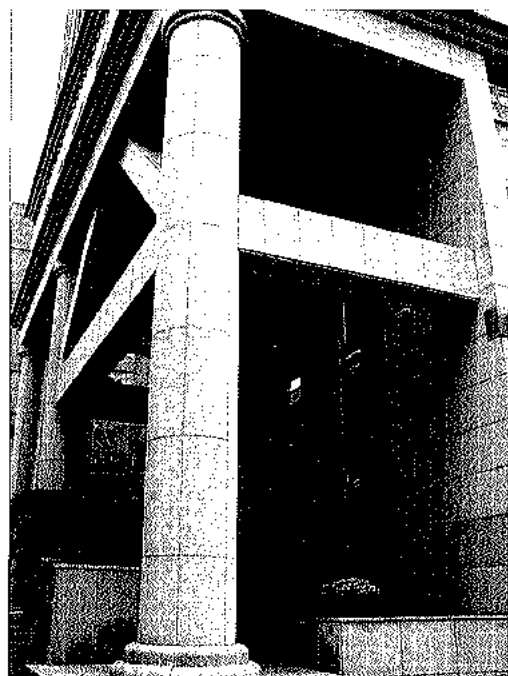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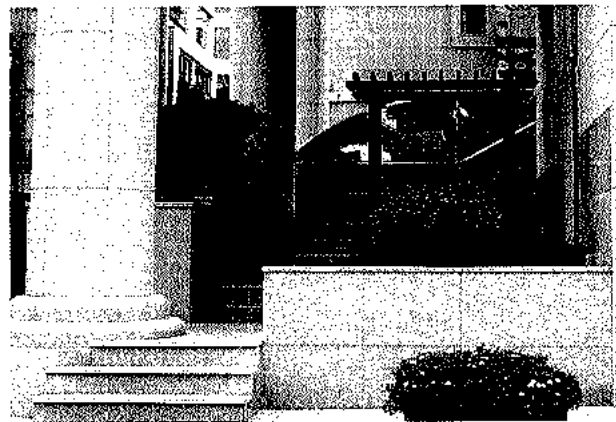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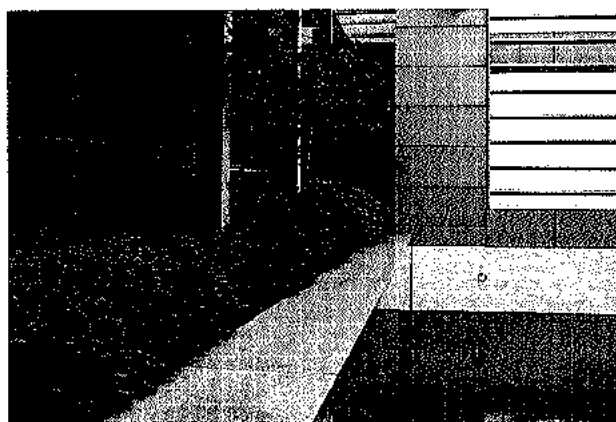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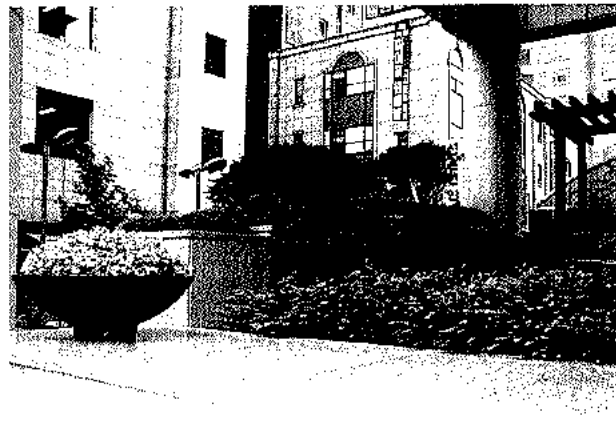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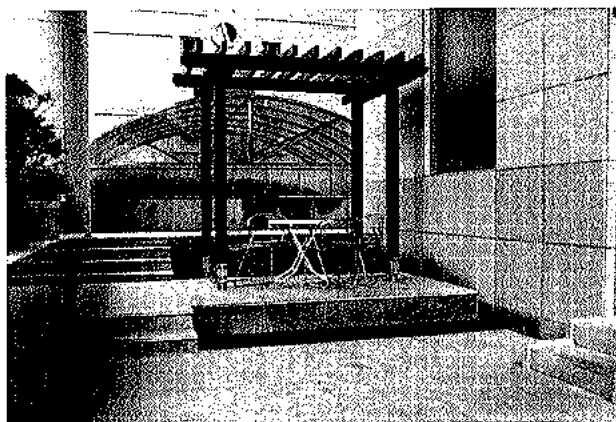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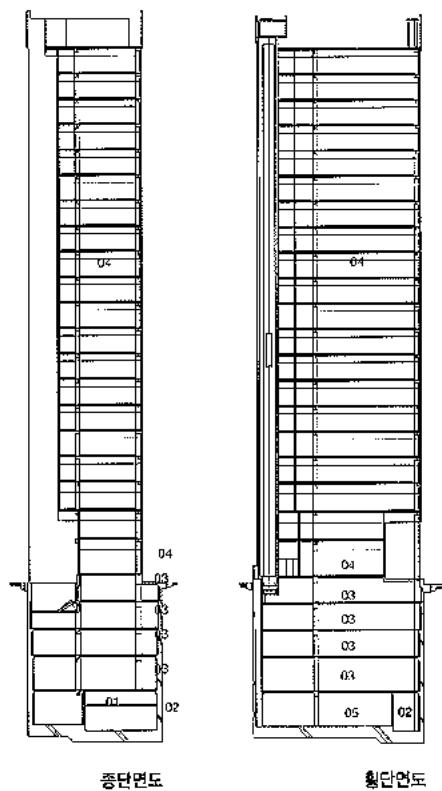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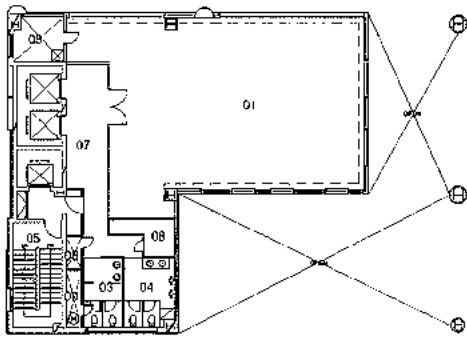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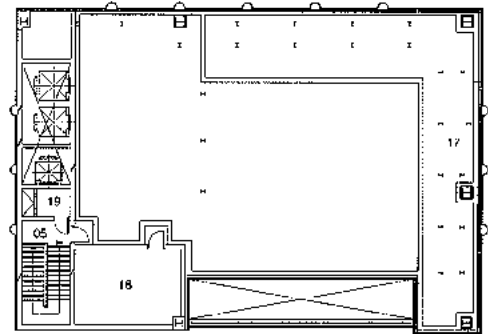


- 01. 발경기실
- 02. 경화조
- 03. 주차장
- 04. 업무시절
- 05.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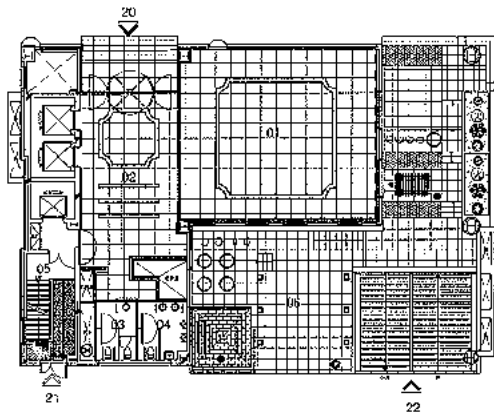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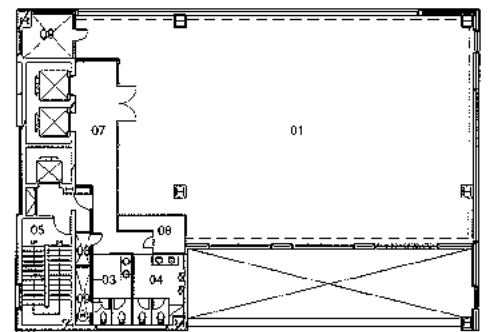


옥탑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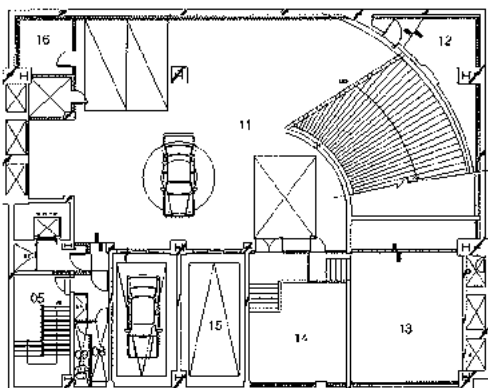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사무실
- 02_ 복비
- 03_ 여자화장실
- 04_ 남자화장실
- 05_ 계단실
- 06_ 공개공지
- 07_ 엘리베이터탑
- 08_ E.P.S
- 09_ P.S
- 10_ M.D.F실
- 11_ 주차장
- 12_ 관리실
- 13_ 방재센터
- 14_ 공조실
- 15_ CAR LIFT
- 16_ 음원실
- 17_ 옥상조경
- 18_ 음명크실
- 19_ FAN ROOM
- 20_ 주출입구
- 21_ 부출입구
- 22_ 주차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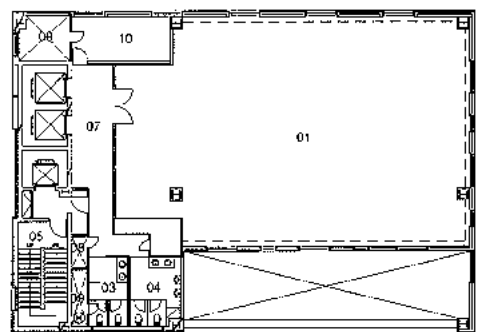


기준층(4~20층) 평면도

0 2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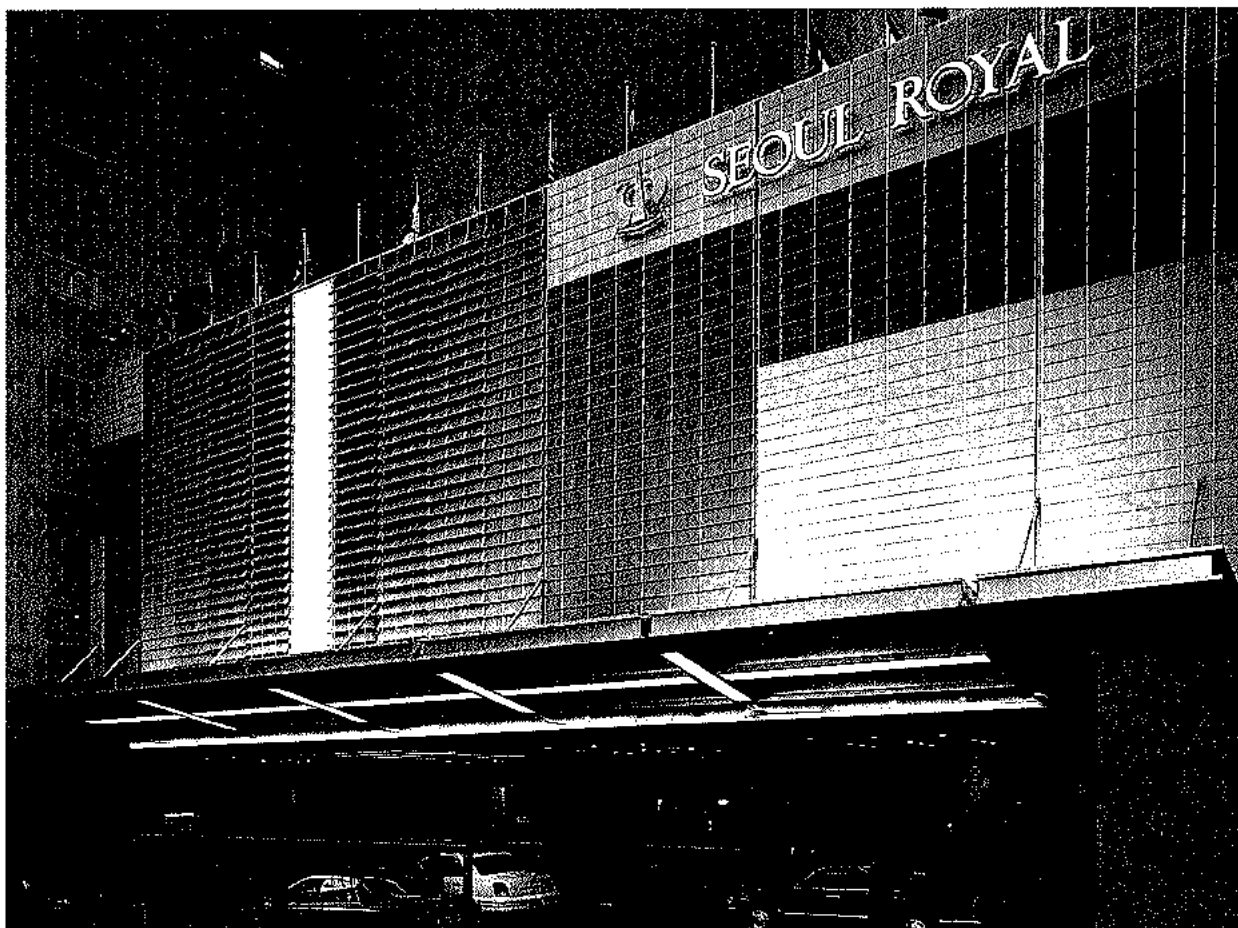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서울로얄호텔 저층부 외관 리모델링

Facade Remodelling of Seoul Royal Hotel



프로젝트의 시작

- 리모델링 프로젝트와의 첫 만남

우리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와의 첫 만남은 1999년 '구 상업은행 본점 리모델링'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인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해본 프로젝트

였다. 당시 시행사 측의 요청으로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관한 각종 법규검토와 프로젝트 규모계획 등을 지원해 주었지만 실질적인 디자인 과정에서는 시행사 측의 요구에 의해 손을 떼게 되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였다. 그 후로 2001년 6월 중구청에서 발주한 '서부종합체육문화센터 활용방안

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의 입찰작업을 S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리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했고, '리모델링'은 설비관련 부분의 '성능개선 작업'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었다. 서부종합체육문화센터 활용방안의 경

우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로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였다.

- 시공사와의 첫 만남

사회에서 만난, 전공이 같은(하지만 설계보다는 시행을 해보고 싶어 했다) 후배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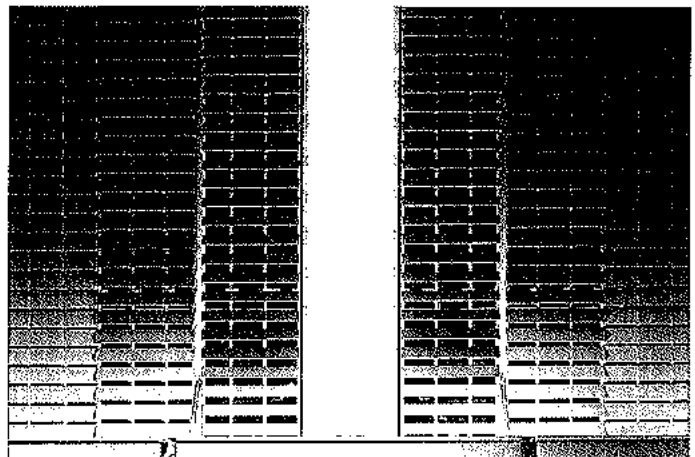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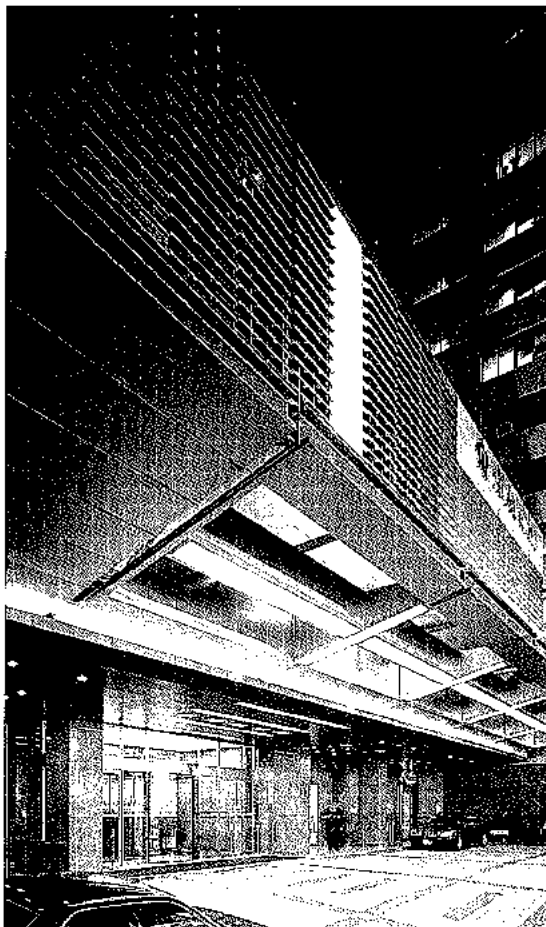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였다.

- 서울로얄호텔의 기억

서울로얄호텔의 모습은 과거 몇 번의 명동성당에서의 결혼식 피로연(여기에는 파트너인 오혁근 건축사의 결혼식 피로연도 포함된다)

- 제안서의 수용과 프로젝트의 시작

우리의 제안은 건축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과 더불어 프로젝트의 진행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시공사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시공계획과 디자인의 조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호텔의 주진출입 부분을 공사하는데 문닫지 않고 지속



을 졸업하고 다니게 된 회사에서 업무에 대해 문의해 왔다. 이후 시공사 측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에 관련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몇 번의 디자인 제안들이 건축주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판단,

참석을 위해 이용한 기억으로 떠올랐다. 각종 홍보물들이 여기저기 걸려있던, 육종하게 걸려있는 금속 구조물과 상당히 비좁은 호텔 출입구에서 얹혀있는 차량들, 복잡한 명동길에서의 접근 등 호텔로서의 기억보다는 피로연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정도의 기억 밖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다.

적으로 명업을 해야하는 호텔의 사정은 신축 공사와는 전혀 다른 시공계획을 요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시철 계획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고,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해진 절대공시기간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착공까지의 설계기간이 짧아 고민하게 되지만, 이 프

로젝트의 경우 설계기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설계 이후의 기간, 즉 공기의 제약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디자인의 전개

- 호텔

호텔이라는 어원은 '피로를 풀고 휴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호텔의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잡지는 숙박의 기능 외에 결혼식, 피로연, 각종 모임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이제는 야간의 숙박시설로서가 아닌 주·야간의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할 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호텔이 더군다나 온갖 건물들과 상인들로 숭실 틈없이 가득 차 있는 복잡한 서울 명동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서울로얄호텔의 위치적 상황은 호텔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 줄 필요를 요

구하고 있었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이 호텔은 최근 건설된 호텔에 비해 좁고 기능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 로얄호텔

서울로얄호텔은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호텔 측면 부위를 주출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동길에 바로 인접하는 배치에 따라 주출입구의 진입공간은 상당히 협소하다. 또한 별도의 창호없이 3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전면부는 완자무늬의 금속 구조물로 장식되어있고 1층 현관부분의 섯백(set-back)으로 형성된 캐노피 공간이 아주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다. 호텔부지 경계선 전면부에는 국기 게양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 디자인 범위

개구부가 없는 측면을 진입공간으로 사용하므로 저층부 외벽면의 넓은 금속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파사드(facade)와 기존 현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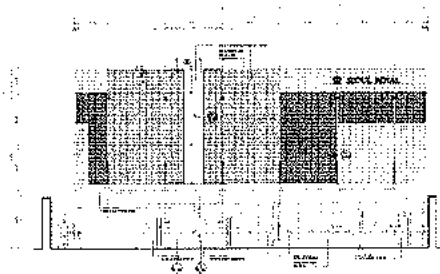
분의 캐노피 부재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캐노피의 신설이 필요하였다.

-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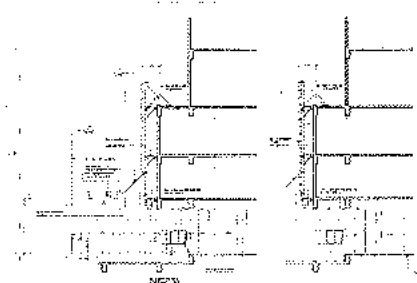
좌측에 치우쳐 있는 주출입구의 진입을 강조하기 위해 입면 디자인의 워킹포인트를 주출입구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출입구 상단 2, 3층 외벽면에 수직을 강조하는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시각적 중심(Visual Target)을 형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외벽면이 디자인되었다. 캐노피의 경우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자들이 고려해 법적인 허용한계 내에서 외부공간의 대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캐노피 하부 천장부분과 바닥부분에 조명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주출입구로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 유개(有蓋)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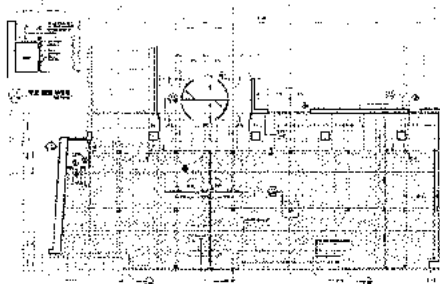
셸터(Shelter)의 개념을 충족하면서 내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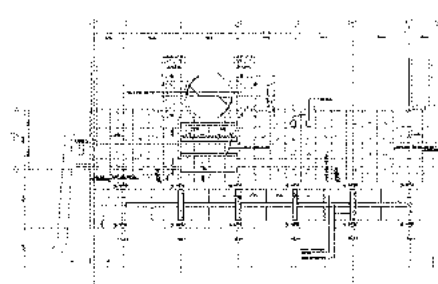
정면도



단면 상세도



1층 평면 상세도



캐노피 천정 평면 상세도

실시설계도면

공간의 완충지대로써의 역할을 위해 캐노피 하부 천정부부는 건물 내부 천정의 연속성을 활용하였다. 캐노피 하부공간에서의 공간적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캐노피 단부를 깎아서 들어올리고 천창을 설치,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앞마당

협소한 외부공간을 극복하고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층 외벽재료를 외부공간 측면 부위에 연속해서 적용하여 마치 외부가 호텔 내부공간인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 마감재료

1층의 외벽재료는 칼레도니아 화강석을 사용해 안정감있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바닥은 다소 화려한 무늬의 자일로 베네치아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2, 3층은 금속 구조물에 무기질세라믹판넬

을 다양한 각도로 부착하여 육중함보다는 경쾌함을 추구하였고 판넬의 컬러는 기존 호텔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은 톤에 명도만 달리하는 색상을 선택하였다.

- 조형물

전면에 위치했던 국가계양대는 측면으로 위치를 변경, 전면에서의 시각적 부담감을 해소하였으며 호텔의 담장처럼 자리잡고 있던 기존 석재 조형물 대신 호텔의 로고를 새긴 유리 조형물(사공 중에 호텔 로고는 제거되고 호텔의 성장을 상징하는 패턴으로 변경됨)을 설치, 호텔구역에 대한 경계 역할을 하면서 개방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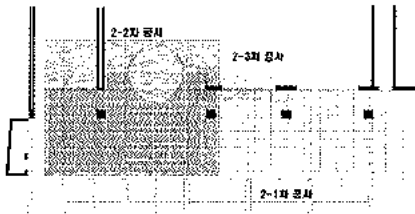
결(結)

서울로알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가시설물들을 공사기간 동안 10여 차례 옮긴 기억과 외산 자재를 사용

하다보니 자재 수급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연락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하다. 서울로알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설계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향후 다른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타산지석이 되는 프로젝트로 기억되고 있다. 圖

건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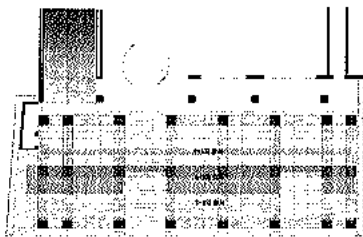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1가 6-1
용도	숙박시설 (관광호텔)
대지면적	2,104.70㎡
건축면적	1,319.19㎡
연면적	20,138.70㎡
건폐율	62.68 %
용적률	783.09 %
구조	토담구조 (구조기술사박종안)
외부마감	무기질세라믹판넬, 고밀도목재패널, 화강석, 스테인리스스탈(탈피 나뉨)
시공	현대리모델링(주)
설계담당	김용민, 유재훈, 안종원
사진제공	현대리모델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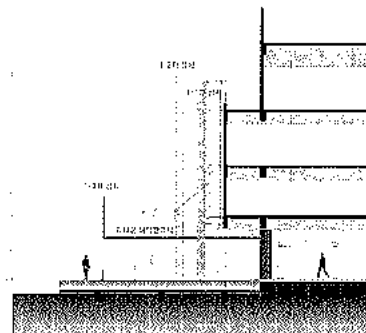
캐노피하부 회전문 및 1층 네외공사도면



가시설공사 천정평면도(3차)



평면(AST)



가시설공사 천정평면도

가시설 도면

이 관 표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by Yi Gwan-Pyo

지하건축물 짓길 망아하니까 Negative Remarks on Underground Buildings

우리나라 지하건축물은 전부 잘 못 지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에서 짓고 있는 지하건축물은 거의 전부 문제가 있겠군요...” 이 말은 필자가 설계한 건물의 지하부분에서 생긴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고 고생하다가 물어 물어 찾아간 영국의 세계적인 지하공간 구조전문가가 약 십오년전 필자에게 했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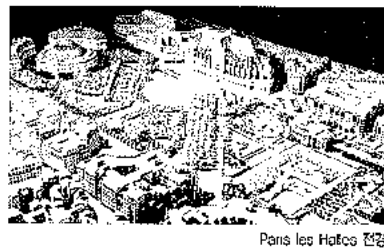
당시 필자는 다른 건축가에 비해 일찍 대형 지하건축물을 여러 차례 설계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건물 대부분이 완공이후 크고 작은 결함을 보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내에 대형 지하건축물에 대한 전문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면 세계적인 전문가나 전문회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얼굴도 알지 못하면서 서울에 주재하는 그 나라 상무관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미리 질문서를 제출한 다음 몇 달 후 약속된 날짜에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 만난 지하구조물 구조전문가에게 “요즘 한국에서 대형 지하건축물의 상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깊이가 깊고 규모가 큰 지하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줄이고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필자의 말을 들은 유럽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처럼 대형 고심도 지하건축물을 많이 짓는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대형 지하건축물은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외부방수이고, 둘째도, 셋째도 방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형 지하건물을 짓다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개 높은 지하상수위면 때문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에 잠길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콘크리트의 재료내부에 존재하는 미세한 공극(Pore) 때문에 소위 모세관 현상이 생겨(Porous Capillarity) 지하수와 접촉한 구조체 표면에서 약 20센티미터 정도까지 습기가 배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부분에 배근된 철근의 부식과 부피 팽창으로 균열이 심해지고 구조강도 저하가 불가피해져서 장기간이 흐르면 매우 위험해진다 것이었다. 때문에 방수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필자는 대뜸 “대개 대형 지하건축물은 슬러리월(Slurry wall)이나 C. I. P 또는 S. C. W와 같은 연속벽체 공법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 공법이 외방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방수는 불가능하므로 내방수를 철저히 시공한다”고 하였다. 필자의 말을 들은 이 전문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대형 지하구조물에서 외방수가 불가능한 경우 내방수를 하면 외벽쪽으로부터 스며든 습기로 철근부식과 균열누수 등이 심화되는데도 이러한 결함을 방수층이 은폐하게 되어 결함부위도 찾기 어렵고 조기 보수시기도 놓치게 되므로 오히려 건물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커서 오히려 철거시기가 앞당겨져서 영국, 프랑스에서는 층수가 많은 지하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짓게 되더라도 외방수를 못할 경우엔 아예 내방수도 하지 않고, 차라리 철근부식을 막기 위해 외벽쪽 콘크리트 피복을 매우 두껍게 설계한다”라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통증이나 상처로 병세가 노출된 것은 병도 아니지만 간암이나 폐암처럼 증세도 없고 병세의 진행을 감지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한참이나 지나 위중해져야 비로소 눈치를 챌 수가 있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이미 암으로 치면 3기나 4기 정도나 되어 어차피 고치기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셈이다.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대형 도심도 지하구조물은 전부 잘못 지어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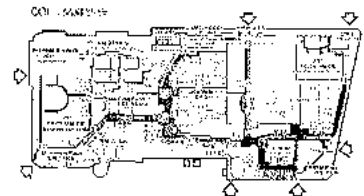
왜 지하건축물이 점점 대형화 되나

건축물의 가치는 대개 인식성과 접근성을 곁에 놓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곧 ‘건물가치=인식성×접근성’이 될 수 있고, 만일 인식성이나 접근성 중 하나라도 재료가 되면 건물의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다. 상업 건물은 쉽게 보이고 쉽게 드나들 수 있어야 비싼 건물이 된다는 뜻인데, 과거 후진국형 도시구조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교통이 버스, 승용차, 도보 등의 지상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에서 가장 잘 보이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1층이 제일 비싼 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로 대부분의 도시교통이 해결되는 선진형 도시구조에서는 하루 최대 15만 명 이상 40~50만 명까지 처리가 가능한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대형 지하상가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지하층의 임대료나 분양가가 당연히 지상 1층보다 비싸게 되는 역전현상이 생기게 된다.

최근 지하철역과 직접 접속만 된다면 크면 클수록 소위 도심테마형 지하상가(Urban Theme Space)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례가 입증되면서부터 지하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점차 강화되는 법정 용적을 제한 때문에 최대 용적률로 지상건물을 짓고, 용적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에 주차장 등

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지하건축물은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 투성이인 것이 문제다.



COEX MALL 평면도

지하건축물은 처음에 잘 지어야

가능한 대지경계에 바짝 붙여서 최대 규모의 지하층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이 된 우리나라에서, 대지경계에 바짝 붙여서 대형 지하건축물을 짓고 그 위에 고층건물을 짓게 되면 추후 중대한 결함이나 필요에 따라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려 해도 철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 지하구조물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이다. 지상건물이야 폭파를 시켜도 되고 위에서 한층 한층씩 철거할 수 있겠지만 지하건물을 폭파 철거하면 인접한 건물이 함께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지극히 어려우며 한층 한층 철거하더라도 엄청난 토압과 수압으로 지하외벽이 붕괴되고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반드시 기존 지하구조를 외벽 바깥쪽에 새로운 외벽을 미리 설치하고 횡력에 지지하도록 한 다음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지경계선과 기존 외벽의 간격을 1m 정도 밖에 띄우지 않고 짓는 잘못된 국내 관행 때문에 만일 외벽 두께가 1m가 넘는 지하 4~5층 보다 더 깊어지게 되면 이 방법도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기존 벽체를 포기하고 내부 쪽에 합벽으로 새로운 벽체를 보강해 나가면 이런 일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결국엔 지하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된

다. 물론 기술이 발달한 요즘 여러 가지 특수한 공법과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철거재시공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빈 땅에 처음 짓는 경우보다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2~3배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2~3배 많은 비용과 공사기간을 감수하고 다시 지었다 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논리 속에서 볼 때, 주변 건물보다 2~3배의 임대료, 분양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면 실제로 대형 지하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재시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 강남의 한 복판에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붕괴우려가 있다하여 건물폐쇄 및 재시공을 명령받고도 8년째 방치하고 있는 백화점 건물이 있다. 지하건축물은 일단 한번 지어놓으면 보수나 재시공이 기술적으로 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엄청나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것이 유럽 선진국의 상식이다. 유럽 등지에서는 공공 지하건축물의 경우 가급적 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굳이 짓더라도 6m 이하로 지하 1개 층만 허용하고 있다.



Les Halles 지하공사현장

우리 후손은 60여년 뒤엔 모두 300층 아파트에서 살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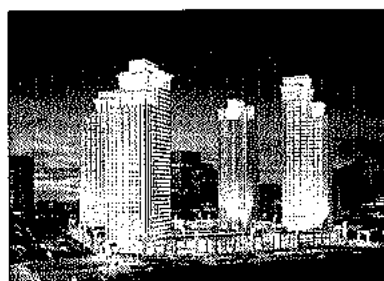
지은 지 20년 된 5층짜리 저층형 아파트를 철거한 뒤 이보다 4배나 높은 20~25층 고층 아파트로 짓는 것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재건축방식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당초 10여 평의 조그만 아파트 소유자가 재건

축을 통해 이보다 3배나 되는 30여 평 아파트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가져가고, 이 부분의 공사비는 기존 건물소유주들이 가져가고 남은 아파트 여유분을 일반분양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또다시 20년이 지난 40년 후에는 20층 건물의 4배인 80층으로 또다시 20년이 지나 손녀손자 세대가 어른이 되는 60년 뒤에는 80층의 4배인 300여 층 아파트를 지어야만 같은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과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금년부터 완공연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가능기간을 $(\text{완공연도}-1980) \times 2 + 20\text{년}$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공식 하나 바꾼다고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층 철골구조물의 내구연도는 100년 정도를 산정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설계하기에 따라 100년~200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선진 외국에서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을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경우 설계수명은 최하 100년에서 200년 정도나 된다.

대형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20~40년 만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지하구조물은 콘크리트구조로 밖에 지을 수 없고 일단 한번 지으면 철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100년 이상 건널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다.



목동고층주상복합건물계획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있기 전까지 건물이나 구조물은 지어 놓기만 하면 아무런 관리나 유지보수를 안해도 웬만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오랫동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매우 튼튼하고 훌륭한 구조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미세한 공극의 크기가 평균 15~1000 옹그스트름($\text{\AA}$)이나 되는데 비해 철근을 부식시키는 물이나 염소이온의 입자크기가 불과 1.8~22 $\text{\AA}$ 밖에 되지 않아서 지하수에 맞닿는 콘크리트 내부로 물이나 염소이온이 쉽게 배어 들어올 수 있고, 이 경우 피복두께가 3인치(75mm)라도 염소이온 오염도가 1,200ppm이나 되어 허용치의 3~4배나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최근 5~6년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해 불신이 팽배되어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원칙적으로 균열과 하자를 피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구조방식이므로 철근콘크리트로 밖에 지을 수 없는 지하구조물을 지을 때에는 극히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지하건축물의 적재하중은 법정하중의 3~6배로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건축물인 Forum des halles(포룸데알)을 지을 때 적용했던 적재하중은 무려 1000~1800 kg/m^2 정도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프랑스의 법정 적재하중보다도 무려 3~6배나 되는 무거운 조건이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200년 가는 튼튼한 건물을 짓자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게 오래 버티려면 구조로 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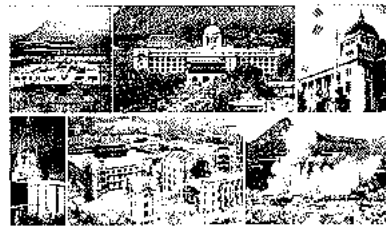
것이 아닌, 실제 세부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지하건축물의 설계하중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 중 가장 설계하중이 많이 나가는 실내수영장이나 서고, 수창고와 같은 수납기능을 감당할 정도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을 해놓지 않으면 구조 보강 없이 오랜 기간동안 이런저런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과거 거의 100여 년 전에 일본인들이 조선 을 영원히 지배하리라는 망상에 젖어 지었던 조선 총독부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 사무용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1900년대 초에 완공되어 1996년 정치적으로 철거될 때까지 100여 년을 버티며 전쟁도 겪어 냈다. 그동안 20년 넘게 우리는 이 건물을 적재하중이 적은 관청이 아닌, 엄청난 적재하중을 반영해야 하는 박물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했으나 100여 년을 겪는 동안 이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당초 지어질 때부터 엄청난 하중을 버틸 수 있게, 어찌보면 무식할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철거 당시 재미 삼아 건축관련회에서 “요즘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까?”하고 추산해보니 평당 2,500만원이 넘는 건물로 판명되었다.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앞으로도 10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건물은 품질이나 내구성은 무시한 채 무조건 싸면 좋다는 식인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이런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만일 100억짜리 건물을 60억에 싸게 짓고 20년만에 수명이 다했다고 철거한다면 1년에 3억원을 쓴 셈이지만 이 건물을 120억을 들여 무지하게 튼튼하게 지어놓고 200년을 사용했다면 1년에 6천만원밖에 안 쓴셈이 되는 것처럼 투자를 많이 한 내구성이 긴 건물은 자물 당시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쓴다면 이것이 더 경제적이 될 수 있다.



총독부건물부터 철거까지

영구배수배제공법(Dewatering)은 형사처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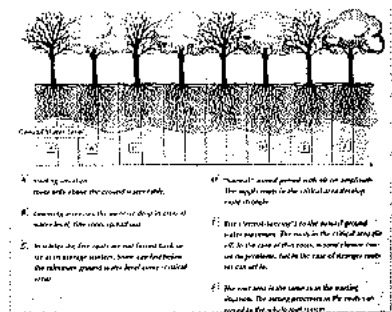
지하건축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대개 높은 지하수위로 인해서 대형건물이 물위에 뜰 배처럼 떠오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부력이 작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중증가, 어스앵커, 록앵커 등의 방법을 구사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관리가 복잡하다든지 등의 이유로 요즘은 소위 지하수를 펌프로 배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고 부력도 감소시키는 영구배수배제공법(Dewatering)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손쉽게 지하수위를 낮추어서 수압으로 인한 활력과 부력을 모두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함부로 지하수위를 낮추게 되면 이 건물반경 수백미터 이내가 수위변동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이 범위안에 있는, 기초가 부실한 중소형 건축물은 부동침하로 인한 균열, 파괴가 될 수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용치 않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정책이며, 이를 함부로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지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독일 베를린시의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일대의 건물을 조사 견학하러 몇 해 전 가보았을 때, 독일 베를린시는 공사도중 지하수위 자동측정기(Ground water level sensor)를 굴토현장 주위에 설치해 놓고 자동으로 기록, 관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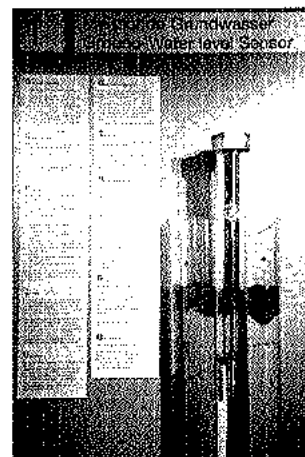
만일 공사도중 지하수위 변동폭이 $\pm 50\text{cm}$ 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포츠다머 광장일대에서는 굴토면적 1,000㎡(약 30여평)당 1일 발수량 10 이하라는 무척 까다로운 규

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내면, 지하수위가 높은 베를린 시에서는 지하수가 고이게 되는데 이 물이 하루에 증발하는 양도 10 이하여야 한다는 비현실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 최고책임자인 마이어씨에게 지하구조물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은 즉, 이 일대 지하구조물 공사를 위해 물을 부어가면서 수위를 유지했고, 50여명의 잠수부를 고용하여 수중공사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규제를 지키느냐고 물었더니, 주변에 문화재로 분류된 스위스대사관 건물의 침하우려가 있었고, 지하수위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가로수나 정원수 같은 큰 나무가 고사하므로 나무뿌리가 물을 찾아 길게 뻗게 되는데 웃자란 뿌리가 다시 물에 잠기면 뿌리가 썩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나무가 죽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건설회사가 반사회적 기업으로 낙인찍혀 결국



지하수위와나무



지하수위측정기

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우리는 현재 아무런 규제나 관리 없이 지하수위 조절이 개별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시스템으로 건물이나 지반의 안정을 기대하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은 무조건 강화하면 좋은지?

십여년전 영국 런던 시내의 한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유리문 달린 캐비닛 속에서 여러 개의 자동기록 장치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장치들은 구청관내에 있는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탐지기와 연결된 일산화탄소 자동기록장치였는데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지하공간의 환기기준을 일산화탄소 기준 100ppm 이하로 운영하고 있었고, 기록자마다 살펴보니 대개 90ppm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경우 엄청난 벌금이나 처벌을 감수하고 이를 위반할 배짱 있는 건물소유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공간 환기량은 시간당 실내 체적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후진국형 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반면 이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이러한 조사내용을 관할 부서에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우리나라의 규제기준은 100ppm이 아닌 50ppm으로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 우리나라에선 일일이 이런 장치를 강제화 하는 법조항 삽입이 곤란하므로 이를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2배로 강화하였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관련법은 무조건 강화한다고 좋은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다. 대개 지하공간은 상당층을 주차장으로 쓰게 마련이고, 주차장 건물은 자동차 통행을 위해 층 사이

를 막을 수도 없으며, 이 경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 중 공기보다 무거운 일산화탄소는 적절한 환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맨 아래 층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에 해롭게 마련이어서 일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50ppm으로 하면 100ppm으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환기량을 두배나 늘려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면 대개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된 자동차 엔진의 현열 때문에 냉,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외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환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름과 겨울 외기온도 차이로 인해 상당한 실내온도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온도변화로 지하구조물 내부 구조체에 온도차이에 따른 신축을 일으키게 된다. 지상건물과 달리 건물사방에서 엄청난 토압과 수압으로 조이고 있는 지하구조물에서는 신축 팽창에 따른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응력이 부재를 따라 전달되다가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슬라브, 보와 같은 부재에 심각한 균열, 휨 등을 유발하게 된다. 즉 기계환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쉬운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강화한 이 법 규정이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환기량을 유도하며, 이로 인한 온도 변화로 인해 지하구조물의 균열과 결함을 유발하게 되어 건물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 셈이다.

일정길이가 넘는 지하구조물은 반드시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지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하자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 된다.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건축가들의 대착각(Architects fallacy)

화재가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유독가스 질식사(窒息)가 원인이다. 유독가스 농도가 짙어지면 불과 서너번의 심호흡만으로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재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의 초점은 화재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건물이라도 일단 화재 초기에는 본격적인 화재발생 후 불과 3~4분 이내에 실내온도는 800°C 이상으로 뜨거워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실내에 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도 대부분 사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는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인 입, 콧속, 기도, 폐 등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800°C나 되는 뜨거운 기체가 드나들면 폐나 기도에 화상을 입어서 조직이 과사하고 이런 부분은 재생도 안되고 치료가 어려워져 결국 구해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화재시 산소공급이 원활한 지상건물에서는 유독가스 발생이 비교적 적은 완전연소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무창층이어서 밀폐구조가 되기 쉬운 지하공간은 산소공급이 곤란하므로 대부분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불 완전연소 상태가 되어 특히 위험해지며, 같은 조건의 지상 건물안에 있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화재와 동시에 발생되는 정전현상 때문에 지하공간에서 화재와 정전이 동시에 발생되면 대낮이라도 암흑상태로 되어 보행속도가 초속 20~30cm 밖에 안되고, 이런 속도로 법정 피난거리 30~50m를 이동하려면 2~3분이 넘게 소요된다. 뜨거운 불 속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된 채 2~3분을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구해나도 사망에 이르는 긴 시간이 된다.

건축가들은 흔히 도면으로 건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피난시 일반인들이 최단 피난거리 경로를 이용하리라 짐작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은 오히려 위험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우왕좌왕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클로비스 하임사스(Clovis Heimsath)는 "건축가들은 건축을 설계할 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평면도 인식 방법으로 건물을 이해하면서 최악의 상태가

아닌 평상시 정상인이 건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물고 간다'는 위험을 소위 건축가의 대척각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불이냐면 지하는 난로덩어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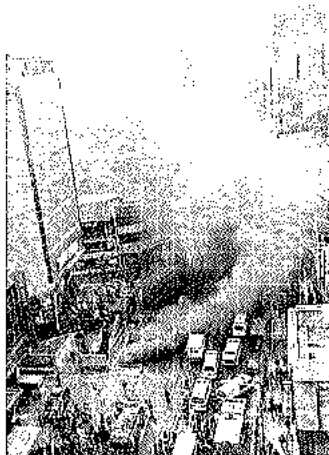
대개 불이냐면 소방관들은 계단에서부터 물을 뿌리면서 건물내로 통로를 확보해 나가면서 진화활동과 구출활동을 한다. 그러나 지하건물에서 불이 나면 계단입구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발화지점은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유독가스가 줄어들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어느 정도 불길은 스스로 수그러들기 전에는 소방관들이 건물 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야만 살 수 있다. 때문에 지하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면서 피난을 해야 하고, 유독가스 역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서 피난방향과 일치된 방향을 갖게 되므로 피난하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지난해 대구지하철 사건 때 200여명이 되는 고귀한 시민의 목숨이 희생된 것도 당시 수많은 소방차와 소방관이 일찍 도착했지만 초기에는 아무도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몇 해 전 인천 호프집 화재로 고등학생이 50여명이나 죽고 다친 것 역시 술집으로 개조하느라 창문을 밀폐하느라 지하공간처럼 무창층으로 만든 것이 원인이었다.

1980년 일본 시즈오카 지하상가에서 화재로 인하여 십오명이 피난계단에서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일본정부는 그 당시 지하공간 관련 안전규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법개정을 통한 안전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그 후 10여 년 간 법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지하공간 관련법을 정비

하였고, 이 기간동안 단 한 건도 지하공간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선진국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몇 년 간격으로 끊임없이 지하공간 또는 밀폐공간의 대형화재로 참사를 겪으면서도 한번도 지하공간 관련법을 본격적으로 개정하거나 허가를 유보한 적이 없었다. 한쪽에선 끊임없이 사고가 나면서 한쪽에선 끊임없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형 지하건물을 허가 내주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사안이다.



대구지하철참사

계단이 안 보이는 백화점들

미국의 인명안전규정(Life Safety Code)에서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Moving-walk)와 같은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피난경로로 인정치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7. 2 7항)

그 이유는 기계장치들은 방재의 원칙 중 하나인 소위 페일-세이프의 원칙(Fail-safe)에 따라 원하지 않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1987년 11월 영국 런던 킹크로스 지하철역에서 담뱃불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또한 화재시 승강기를 타면 대개 불이 난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면서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이 때

맨손으로는 승강기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단의 이용을 강요하면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인지 대개 백화점 등에서는 매장 한가운데 시야확보가 잘되는 곳에 에스컬레이터만 달랑 설치하고, 계단은 후미진 모서리 구석에 감추어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화재 시 사람들은 귀소성이 있어서 올라온 길로 되돌아 대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창문이 없어서 지하공간처럼 밀폐되어 있고 불붙기 좋은 인화물자인 상품으로 가득 찬 백화점 같은 건물에서 계단을 숨겨 놓는 설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이다.



에스컬레이터촌장

건물옥상의 헬리콥터는 화재구난용?

전세계적으로 통틀어 보아도 고층건물의 꼭대기 모습이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크라이슬러 빌딩, 존한콕 빌딩처럼 뾰족한 지붕을 가진 건물을 한 채도 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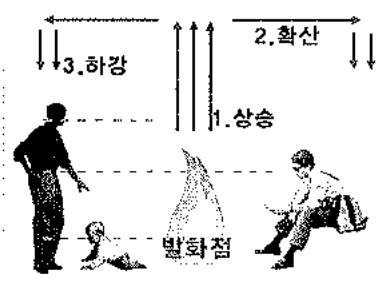
일정높이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층건물 옥상은 평평한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는 건축가나 관련 공무원조차도 헬리콥터의 착륙장의 용도가 건물화재시 옥상에 대피한 사람을 소방헬기가 구조해 내는 용도로 오해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9.11 항공기 테러정면을 TV를 통해 눈으로 보신 분들은 그 당시 그 건물 옥상에 단 한 대의 헬리콥터도

착륙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미국의 인명안전규정 (7.21.5.3항)에는 '연소중인 건물의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영웅적인 구조장면은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지나지 않으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일 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백 도나 되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건물상부에 헬리콥터가 접근하면 엔진 폭발이나 조종사 질식으로 극히 위험상태에 빠지므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쩌서 이런 법규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박정화대통령 시절,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군인과 무기를 신속하게 건물옥상으로 배치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발상으로 생겨난 것이다. 전국에 걸쳐 뽕죽한 지붕의 고층 건물이 한 채도 없는 나라에서 건축에 술이나 조형성을 운운하는 것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고층건물(High-rise Building)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23m를 넘는 건물을 지칭하는데, 이는 화재시 계단 등의 통로가 봉쇄되더라도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탈출이 가능한 소방사다리차가 접근 가능한 높이까지를 저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재가 나면 소방사다리차가 와도 사다리를 댈 수도 없고 댈 곳도 없는 것이 지하건축물의 약점이다. 대형 상업용 지하건축물을 만듦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채광, 자연환기, 지상으로 통하는 직선 피난계단 등이 설치된 계단형 선관광장이나 지하 아트리엄 광장과 같은 1차 피난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독가스확산과정



world trade center파괴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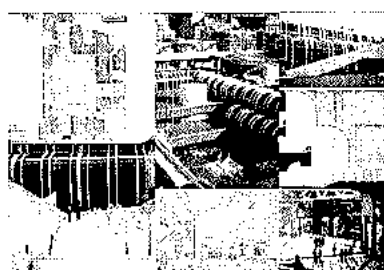
지하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바보를 살려내는 길

이태리 건축가 파시니(Passini)는 'Wayfinding : 길찾기'라는 책에서 위험도가 큰 건물일수록 통로구성은 단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흔히 대형사고에 처한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심리에 휩싸이면 정상적공황(Panic)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성인이란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바보(fool)처럼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보와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도 무사히 살아남아 목숨을 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방재의 원칙 중 하나인 툴-푸르프(tool-proof)의 원칙이다.

화재와 정전이 되고 유독가스가 가득 찬 이수라장이 된 극히 위험한 지하공간에 내뿜어댄 바보와 같은 상태에 빠져서 공간 지각능력이 상실된 채 공포에 휩싸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통로구성, 자연환기, 자연채광이 반영된 밝고 안전한 공간, 손쉽게 찾기 쉽고 여기저기 사방에 배치된 계단 등일 것이다.

화려하고 복잡하게 미로구조로 지어진 지하상가 건물은 유사시 극히 위험한 건물이 되어 바보는 커녕 정상인도 살아남기 어렵다.



단순한평면, 1차피난광장, 선관광장, 피난계단, 아트리엄단면

그래도 지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지하공간이 지하철과 연결되어 대형화될 경우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징점을 빼면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방재, 안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하공간은 극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약점 투성이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토록 위험한 지하건축물을 별도의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지상건물을 지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대한다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잘하는 짓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면 기존의 법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분야의 안전기준을 몇 배씩 확대 강화 적용하여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선진 외국의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일은 정부가 시스템(System)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혹시 몇 십 년 후 우리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건물을 지었길래 철거도 할 수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골치 아픈 건물을 이렇게도 한꺼번에 많이 지어 놓았나?"라고 원망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출**

김 향 희
건축사사무소 줄은집
by Kim Hyang-Hee

제10차 전국여성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Looking Back on the 10th General Meeting of Women Architects

많은 장맛비가 내릴 거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적당히 흐린 날씨는 이번 행사가 필자에게 주는 의미를 인지하는 듯하다. 불안정한 기류를 타고 시작한 지난 99년 사무소 개설이후 처음 참석하게 된 부산에서의 '제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필자에게 자궁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울타리를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으며, 길을 잃었을 때 지침이 되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여성건축사회(회장 오경원)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가 올해 들어 10회 째를 맞아 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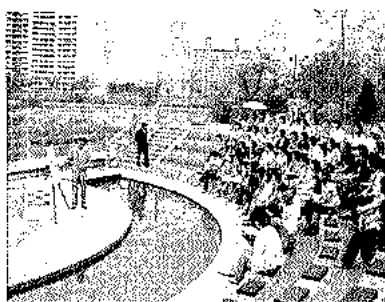
통게이트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전주로 향하는 내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대회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며 미소짓게 한다. 서울에서 출발한 팀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과 서로의 안부를 건네고, 이어 도착하는 각 지역의 회원들을 기다리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늘어나는 회원들의 참여가 여성건축사들의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역시 요구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단하게 행사 일정이 소개되고 늦그릇에 정성스레 담겨진 전주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전주에서 1박 2일의 제10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일정은 시작되었다.

지시제 생태공원과 평화 주공단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지시제 생태공원'의 당초 계획은 매립 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생활권과 주거지에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시제를 도시민을 위한 수변 레크리에이션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으로 보존하고자 계획을 변경한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장소다.

진입광장은 기존 고목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숲대와 목교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편안함을 주는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행사와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마련된 수변무대는 주제적(Thematic) 성격을 지닌 무대와 저수지 수위 레벨(Level)을 고려한 계단식 좌석배치, 그 사이에 물을 도입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용수 공급을 위해 개발되는 지하수를 폭포에서 계류를 따라 흐르도록 해 계류 부에 석교 및 자연석 징검다리 등을 조성하는 친수형 놀이공간과 생태학습장까지 조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수지 분석에 맞춰 다소 상업적 목적에만 치우치는 건축물에 일침을 놓으려는 듯하다.



지시제 생태공원 수변 무대전경

전북 도청사

전체공정의 65% 정도가 진행된 공사현장으로 현재 택지 개발 중인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진행 중인 공사 진척도 및 공사 전반에 걸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이

모저모를 살펴보고, 도청사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채워질 건축물들이 적절한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주길 바래본다. 여성건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금산사

입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시간이어서인지 아니면 오는 듯 마는 듯 내려지는 보슬비의 영향인지 고즈넉한 느낌과 함께 경건함마저 들게 한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듯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산사는 바람소리를 곁들인 속삭임으로 우리를 반기는 듯 하다.

작은 사찰일거라는 편견을 갖고 만난 금산사는 모악산 도립공원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백제 법왕원년(599)에 창건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춘 사찰로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모셔진 탑이 능선 위 제일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 일반 사찰과는 다른 가람의 배치를 보여준다.

국보 제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삼층 목조법당으로 그 내부가 통 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 옥내 입불로서 세계 최대라고 하는 11.8m의 미륵불상이 모셔져 있다.

저녁식사를 위해 찾아간 한정식 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그자 형식의 주택에 놓여진 마당과 토담, 그 위에 올

려진 한색의 고무신이었다. 얼른 신어보고 싶은 충동과 함께 아련히 떠오르는 할머니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알맞은 스케일의 공간과 정성스럽게 올라온 밥상을 승냥으로 마무리한 다음, 상을 물린 채 그 자리에 벌렁 드러눕고 싶은 충동은 어딘지 모르게 잠재된 우리네 건축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아닐는지...

숙소에 도착해 이어진 정기총회는 늦은 9시에 시작돼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전·현직 회장님(문숙경·오경은)과 여성건축가협회 회장님(박연심)의 격려사가 주고 지한 메시지는 하나같이 어려운 현재상황을 소신을 갖고 자신 있게 헤쳐 나가자는 내용이었으며, 해마다 늦게라도 비쁜 일정을 쏙 개 참석해주시던 지순 선생님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는 직접 전달치 못했으나 지면을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토의안건 중 하나인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건은 지역적으로 떨어진 회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터라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거쳐 진행키로 했으며, 차기년도 대회 개최의 건은 수원에서 광범위한 형식의 대회를 갖기로 하여 그 위상을 높이지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기타의건으로 각 지역 건축사회에 여성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본 협회(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공문을 요청토록 하며, 성공시례를 통해 침체된 건축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자는 의견은 공감 가는 대목이다.



전북도청사



금산사 미륵전

전통 문화의 거리

대회 이틀째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이동한 식사장소는 전주 율건축사사무소 김화순 건축사님의 초대로 콩나물국이 시원한 해장국집이었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오전 일정을 감안해 든든하게 속을 채운 뒤 전북대 김재식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전통문화의 거리로 이동하여 전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풍남문에 도착했다.

전주부성 4대문가운데 하나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대문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서·북문은 철거되고 남문만이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78년에 복원하였다.

이어 도착한 전통성당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워진 성당이다.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절충한 건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성당이다.

성당 내 경이로운 디테일을 감상한 뒤 태조 이성계의 여진(영정)을 봉정하기 위해 태종 10년(서기 1410년)에 창건된 수려한 주변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전에 도착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통해 구수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전사박물관인 공예관, 공예전문 갤러리인

기획관,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전주공예품 전시관에서는 실생활에 접목시킨 다양한 관광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가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 900여 채를 비롯해서 오목대, 향교 등이 산재해 있어 전통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한옥 밀집지역으로서 선조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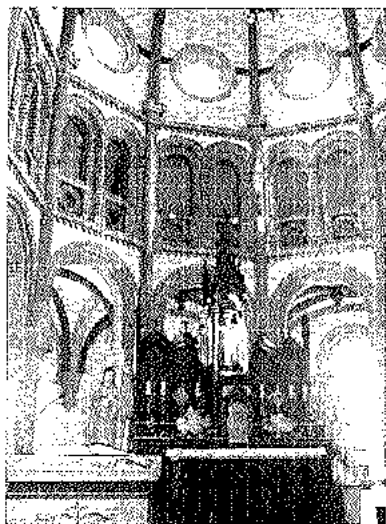
전주 전통문화 센터

도착한 이곳은 김재식 교수님의 작품으로 한국적 현대 조경공간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통적 한국경관 요소를 수용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함' 그것인데, 각기 다른 세 개의 독립된 건축물 앞에 각각의 마당을 도입 마당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되 담장의 개구부를 통해 타 공간과의 연계를 도모했으며, 연계의 수단으로 폭포와 수로를 이용, 수평적 마당과 수직적인 담장들의 조화를 이뤄 불륨 있는 공간구성을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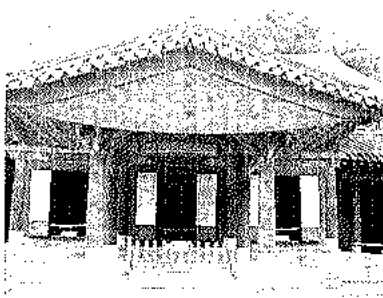
만족한 시공이 아니어서 다소 아쉽다는 교수님의 끝말이 작가의 욕심이라기보다 애착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남아 있는 작가 정신이리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쉬운 인사를 건네며 돌아서는 순간 지금껏 돌아본 건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에서 조금 전 현재가

과거가 되어 그 자리에 흔적으로 남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역사가 동기가 되어 역사적 관점으로 건축 행위를 하도록 몹으로 남긴 채 짧은 여정을 마쳤다. 



전통성당 내부전경



경기전 전경



제10회 장7동회 광장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1

Dutch Modern Housings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필자 주>

목 차

-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04_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 05_전원도시의 전통
-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 07_표준화
- 08_이데오로그(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역사서문

아파트(apart)는 우리를 생활에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어로서 언제부터인가 삶의 본거지요. 재테크의 산물처럼 되어 버렸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부(富)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되고, 또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능력의 상징처럼 보여져 왔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로 아파트먼트 하우스(apartment house)가 줄여져서 만들어졌으나 상용화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건축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속하며, 여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여기서 면적에 관계없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정의내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共同, community)'이란 용어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의 형태에서 전이된 전통적 '모여살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생활에서 '모여살기'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고 구조물이 집합된 공간에서 거주할 뿐이다. 즉, 개체(個體)가 모여 집합(集合, collectivity)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집합주택'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유럽 각국에 파급되고, 1850년 이후 여러 번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일터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영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주거공간이 해결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기거하고 심지어 돼지 등의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만큼 심각한 주거공간의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건축가는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집합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으나,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수평적 관계에서 집

합화된 공간의 수직적 확장으로 인하여 커뮤니티와 위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1902년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주택법은 오르지 이운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횡포를 차단하고, 집합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뒤이은 건축가의 집합적 공간에서 커뮤니티 실험은 다양한 건축운동의 발생과 더불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 전후부터 유럽의 각국에서 집합주택의 중요성이 서서히 강조되고, 이를 국가간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 것이 1927년 슈트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집합주택 전시회를 들 수 있다. 2년 후인 1929년 CIAM 제2차 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주택'이라는 테마를 갖고 주거공간의 적정화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집합주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일찍부터 건축가를 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을 설계경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네덜란드 근대 건축가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더불어 거주공간을 단지 주거를 위한 기능적 수단만이 아닌 도시적 측면에서 건축물이 갖는 미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집합주택에서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바르나우(A.J. Barnouw)는 '근대 네덜란드의 형성'(1948)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각 개인생활을 엮어 공동의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네덜란드인의 역량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 스스로 정한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함으로써 협동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도시는 기념비적 공공건축물이나 우뚝 솟은 초고층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이런 건물들은 하나의 점으로써 표현될 뿐 대부분의 가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거건축이며, 이는 도시 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만큼 집합주택은 현재나 다가올 미래의 주거공간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또한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며 더불어 도시의 생명력을 잉태하는 요소-단일 건물이 도시전체를 리드하기 보다는 하나 하나의 건물이 조화를 이룬 전체의 각부분을 구성하여 도시전체가 하나의 복합체-라는 인식은 네덜란드인의 기본적인 정신인 것이다.

첫머리에

젊은이들은 오로지 앞서 이룩한 과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베를라헤에 의해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건축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베를라헤의 중요성은 새로운 건축의 요소적 구성을 시작하기 시작한 데에 있다. 암스테르담은 베를라헤의 신념에 따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암스테르담이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과정에 치우쳐 새로운 발견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근대의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단순한 것을 단지 집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잔재라는 것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로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우드와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그룹들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로피우스에 의하면 아우드의 건축은 기능적인 반면 암스테르담 건축은 상당히 다이내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두 조류의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무리인 것 같다. 로테르담은 분석을 통한 이성(reason)을 가장 중요시한 반면 암스테르담은 직감을 통한 비이성(unreason)을 중요시하였다. 분석적인 로테르담은 환상

을 거부하였다. 환상적인 암스테르담은 로테르담의 분석적인 객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능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관능적인 면이 결여된 기능은 단지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두 조류에 대한 문제를 조정(reconciliation)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조류는 모두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서로에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암스테르담이 합리성(ratio)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한 로테르담이 유연성을 갖는다면 두 조류는 통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두 조류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로테르담은 죽을 정도의 냉혹한 특성으로,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스스로 다이내믹한 화염(火焔)에 의해서, (1923년 8월 18일/멘델 존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내용)

1923년, 멘델존은 자기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암스테르담 건축과 로테르담 건축과의 차이점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는 당시 몇 개의 혁신적인 집합주택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본서에서는 바로 이런 집합주택의 현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멘델존이 정의 내린 두 조류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멘델존이 어떠한 조정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집합주택 이념과 그 실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과의 대립적 구도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간단히 귀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멘델존은 암스테르담派(Amsterdam School)의 표현주의적 건축에 대한 아우드와 그 추종자들의 비판은 지금부터 6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암스테르담派의 영향은 1923

년을 기점으로 쇠퇴한다. 바꾸어 말하면 1923년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 가장 우수한 건축가였던 폴르크가 작고한 해인 동시에 만하임 미술관(Mannheim Art-Gallery)의 관장인 하르트럽(G.F.Hartlaub)이 처음으로 신즉물주의(New Objectiv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해이기도 하다. 신즉물주의라는 용어는 본래, 포스트 표현주의에서의 객관적 회화(objective painting)나 그래픽을 위한 전시회 테마로 사용된 것으로 결국은 모든 감정을 배제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멘델존과 아우드의 사고로부터, 이 용어가 쉽게 건축의 분야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네덜란드語인 Nieuwe Zakelijkheid(신즉물주의의 의미-역주)로 전이되어가는 것도 쉽게 인지되고 있다.

1926년 멘델존은 신즉물주의가 건축으로 이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특성을 로테르담의 분석적 객관성(analytic objectivity)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신즉물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니우버 바우웬(Nieuwe Bouwen, '새로운 건축'이라는 의미-역주)에 관련한 건축가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은 1920~30년대 건축의 급진적이고 형태적인 측면이나 상징적 양상의 접근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하고 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대립구도 양상은 멘델존은 물론 후세의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지적 받아 왔는데, 이는 1900년부터 1940년에 걸친 네덜란드 건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하우스링(housing, 이하 '집합주택'으로 해석-역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시는 합리주의에 점령된 것도 아니고 형태로 충만된 것도 아니다. 아마도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1920년대 이후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정치적 환경으

로부터 두 도시간의 차이를 자주 거론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은 특히 독일 및 소련의 발전에서 오는 영향으로 건축적 형태와 정치적 위치를 연관 지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집합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베를라헤가 이론 건축, 강연, 저서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베를라헤의 업적으로부터 네덜란드 근대건축을 논할 때, 모든 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을 한정짓는 벽면의 단순화된 미학 개념에 대한 공헌과 건축의 모랄리스트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 베를라헤가 네덜란드에서 집합주택의 전통과 1920~30년대의 혁신성 사이에 가교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본서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베를라헤가 전통과 혁신사이의 과도기에 존재했었다는 점과 1920~30년대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실험성내지 혁신성으로 고려되어온 것이 더 스타일의 비판에 선행하여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기능주의의 공헌에 대한 독자성을 옹호하는 측면에 대해 명백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본서의 최대의 과제인 집합주택의 폐쇄형 배치계획으로부터 개방형 배치계획으로의 전개과정은 네덜란드 국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네덜란드의 공헌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르 꼬르뷔제를 둘러싼 신화(神話)와 네덜란드語라고 하는 언어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집합주택의 건설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02년 주택법이 시행됨으로서 생긴 커다란 변화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주택법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집합주택의 방

1) Oskar Beyer, ed., Eric Mendelsohn: Letters of an Architect (London, 1967), pp.59-60
2) Fritz Schmalenbech, The Term Neue Sachlichkeit, Art Bulletin, 22, No.3(1940), pp.161-165

향성은 단순하고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네덜란드 공업화의 지연은 도시와 기술의 수동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는 1917년 더 스테일 결성 전후로 발생한 개혁의 본질이 되었다. 본서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많은 집합주택은 오늘날까지 흥미를 끌고 선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선진성과 관련된 네덜란드의 전통과 혁신의 긍정적 인 양상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영향을 통합화하는 과정도 밝히고 싶다. 네덜란드 이외의 나라에서 네덜란드 건축가, 도시계획가, 주택공무원들의 관심은 이념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멘델존이 지적한 합리주의와 다이내믹한 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건축가들의 목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건축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조류의 통합을 시도한 건축가와 네덜란드 주택건축에 종대한 공헌을 한 건축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된 집합주택의 거의 모든 사례에 있어서도 전통과 혁신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1장. 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

외국인에 있어 네덜란드라는 국가적 이미지는 변함없이, 풍차, 나무로 만든 신발, 광대한 툴립 밭, 그리고 장엄한 시민주택(burgher houses)등으로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네덜란드를 기술할 때, 자주 거론하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네덜란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합주택에 대한 네덜란드 가치의 지속성과 변형성을 통해서 명확하

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영향은 지적이고 실천적인 영향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네덜란드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1. 공간의 개방성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도시지역은 건설 가능한 토지의 부족과 더불어 택지 조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면서 조밀하게 건물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세기와 비교하여 볼 때 산업혁명 이전의 네덜란드 도시지역은 놀랄 만하게 넓은 녹지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녹지는 공공 장소보다는 개인주택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도심지의 거주자들은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재배하는 야채와 과일, 그리고 가족의 사육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옥외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집합주택들은 건물 뒤쪽으로 좁고 긴 형태의 내부공간을 갖게 되었다³⁾.

말할 나위도 없이 대지는 집약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대지는 테르펜(terpen, 언덕의 약마-역주)이나 제방 위 혹은 매립지 위에 조성되고, 그리고 경제적 수단이나 물리적 간결성이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로 확보되었다. 인구의 고밀도라는 산업혁명 이전의 물리적 간결성은 도시화와 주택투기로 인한 공간 부족과는 구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 19세기의 폐소(閉所) 공포증적 어려움(claustrophobic squalor)과는 대조적으로 '중세도시, 특히 방위에 전념할 필요가 없던 도시는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게다가 위생적이었다'는 것이다⁵⁾. 이런 사실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보수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주의자들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2. 도시와 농촌의 대립

오래 전부터 목재파일 기초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해 일정한 수위(水位)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축약함-역주) 사이의 협력이 요구되어 온 지리적 환경은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강한 전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상업지구에서의 조닝계획은 17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적 성공은 많은 중소 도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심지에서의 상업적 특성과 독특한 지리적 환경, 자율적인 자치단의 전통이 이미 존재하였다.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항해술 발전은 국가변영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과 지도제작에도 영향을 주었고, 크게는 토지이용계획에도 응용되었다. 부(富)의 집중이 네덜란드 서부 지역인 남부 네덜란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프랑스라든가 영국과 같이 대도시로의 발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시에서 형성된 개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적 경향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조밀한 주거지는 목초지와 운하 위로 딱 트인 넓고 개방적인 조망과는 대조적이었다. 도심지의 바다는 대부분 포장되고 시야는 차단되어 있었다. 평탄한 풍경과 완전히 차단된 인공적 도시와는 강한 대립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어로 폐쇄된 상태를 헤스로텐하이드(geslotenheid)라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호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17세기 델프트(Delft)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그린 베르메이어(Vermeer)의 풍경화에서도

3) Gerald L. Burke, The Making of Dutch Towns, A Study of Urban Development from the T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ies (London, 1956), p.157

4) Burke, p.156.

5) Catherine Bauer, Modern Housing (Boston, 1934), p.6

볼 수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베를라헤 등의 건축가들은⁶⁾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헤스로 편하이드는 단순한 미학성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부터 나타났다고 하겠다.

아무리 인간의 손에 의하여 구축된 대지라고 하여도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20세기에 전개된 도덕적이고 지적인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심리적 배경을 가져오게 하였다. 네덜란드의 물리적 특수성은 더 스테일 운동이나 전원도시 운동과 같이 다양한 방어적 입장에서 자극을 받게 되었다. 더 스테일의 창시자인 두스부르흐는 1926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행기에서의 관찰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듯이 인간정신과 자연사이의 방법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정신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질서가 침투하여 조정되고 있다. 이런 질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에 바탕을 두면서 전혀 다른 형태, 색채, 선, 그리고 긴장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시가 농촌에 대한 관계성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적대감내지 대립성은 인간정신의 구조가 자연구조에 대한 관계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정신은 자연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적대적이다(아무리 모순되더라도). 이중성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⁷⁾

그러나 전원도시 운동의 제창자인 모리에(Granpre Moliere)는 조화된 통일성을 지각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이원론 안에서 인간정신의 원천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델프트파(Delftse School)와 마찬가지로 신즉물주의(Nieuwe Zakelijkheid)에서 자연

을 과거와 낭만주의와 관련짓고, 또한 도시는 이와 대립적으로 합리주의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3. 가로와 주택

몇 가지 사례를 예외로 하더라도 19세기 이전에 폐쇄형 주동배치계획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주택들은 건축이 가능한 가로변을 따라 주로 건설되었다. 도로의 교차로에서도 주동의 연속성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끊어졌다가 도로 반대편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때로 도로가 제방 위에 건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극도의 노동집약형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계획되어진 집합주택의 정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도로의 길에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대당 정면 폭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로변에 면해 있는 주택들은 정면 폭이 좁은 대신 건물의 뒤쪽으로 길게 형성되었다. 또한 기초파일의 건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끔은 조적벽을 공유하기도 하였다.⁸⁾

네덜란드는 위도상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보다 햇빛이 많이 요구되어, 구조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물의 정면이나 배면에 가능한 한 커다란 창문을 설치하여 빛을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지어진 시민주택그림은 낮 동안의 햇빛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덧문과 유리의 조합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적절하게 빛을 유입시키고 집중광과 확산광으로 서로 다른 빛의 밝기를 얻을 수 있었다. 17세기 회화에 나타난 실내 풍경은 이러한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그러나 유리창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택에 관한 지방세의 일부가 유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책정되었고, 또한 주택에서 창문의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 부와 지위를 나타내곤 하였다. 따라서 17세기의 경제적 성공은 도로에 면한 창문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곤 하였다. 주택은 정면 폭과 비교하여 뒤쪽으로 현저하게 길어진 형태로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평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주택 내부 깊숙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방의 폭보다 높은 천장을 갖게 하였다. 이런 사실은 커다란 창문이 주는 의미와 더불어 도로 쪽에 면한 방을 모이카머(mooie kamer, 아름다운 방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가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곤 하였다. 브루주아 계급의 명성과 자존심에 대한 이미지의 공헌자로서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유럽에서 발전한 건축 형태 언어에 있었으나, 이것은 네덜란드 벽돌 건축에 대한 전통적 범주에 적용되면서 수정을 보게 되었다. 이런 형태 시스템은 거대한 바로크식 케이블(baroque cable)에서 고전주의적 몰딩과 다테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적 특징은 경쟁심을 위한 기준이 되어 네덜란드 전국에 걸쳐 유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에서 운하를 따라 양쪽에 줄지어 서 있는 바로크식 케이블의 단순성은 농촌주택



그림 1. 암스테르담 라이드세 운하 주변에 있는 시민주택. 17-18세기경 도시의 긴밀한 허물하고 주거환경이 일약한 주택의 속창고 등에서 실었다. 운하를 따라 건설된 시민주택(canal housing)에서의 공간적 개방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이런 반공을 주택의 상징성은 시민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세기 건축가에게 의해서 모식된 집합성 이미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6) 예를 들면, 프롬하우트(W. Kromhout)의 *Arbeiders Woningen in Nederland* (Rotterdam, 1921), p. xiv.

여기서 그는 도시와 마을의 확장에 관한 토론에서 폐쇄성(Afgeslotenheid)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7) The van Doesburg, *Schilderkunst: Van kompositie tot contra-kompositie*. *De Stijl*, VI, No. 73/74(1962), pp. 24-25

8) Steen Eiler Rasmussen, *The Dutch Contribution*, *Town Planning Review*, 24, No. 3(1953), p. 163

9) Ibid. 이것은 라루스센(Rasmussen)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과 도시의 가로변에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의 파사드에도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3).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르네상스나 바로크식 건축양식에서 볼 수 있는 지나친 예술적 표현은 네덜란드 국내에서는 그다지 성행하지 못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기 자본주의, 특히 개인 자산에 대한 표현이었다. 주택의 각세대는 잘 정리된 거리와 디테일하게 제한된 집합적 전체의 범주에서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주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세대당 건축물의 폭은 몇 미터에 불과하고, 또 한편으로 큰 규모의 도시 구성요소인 운하가 개인과 공공의 관계를 공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속적인 관련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 밖의 요소에 대한 관찰은 본서에서 밝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여러한 이유에서인지 상인들은 주택을 점포와 독립시켜 분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건물매스의 거대한 섬유조직의 일부로서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는 카미로 지테의 영향과 대량생산방식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이미 상식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 영국이나 독일의 귀족은 도시의 성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네덜란드 귀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끔 시민주택의 건축어휘가 명확하지 못하여 가로에 면

한 파사드만으로 건물내부를 충분히 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¹⁰⁾.

18세기 건축형태의 외관상의 의미에서 보면 파사드의 규칙성과 반복성은 네덜란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잘 도입이 되고 있었다. 큰 거리(avenue)는 가로수와 위풍당당한 파사드로 채워져 있고 비인간적인 파사드의 내면에는 호화로운 삶이 영위되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정원이 있는지, 또는 산책로는 만들어져 있는지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문화의 전체성에서 형성하는 건축형태의 시스템과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20세기초 수 십년에 걸쳐 유일한 계급인 노동자들을 특별히 상징화하여 새로운 건축언어를 창조하는데 전념하였다.

4. 중정으로서의 호훼

폐쇄된 공간(enclosed space, '중정을 갖는 주택 형식'을 말함-역주)을 의도적으로 만든 산업혁명 이전의 주택형식을 호훼(hofje)라고 불렀다. 네덜란드어로 호흐(hof)라는 말은 정원(e.g., 에덴의 정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 영어의 코트(court)라는 말이 갖는 공간성(spatial), 공평성(judicial), 애정성(amicorous meanings) 등의 풍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¹¹⁾.

그러나, -je라고 하는 접미어가 붙은 호훼(hofje)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극히 한

정되고, 13세기 초기부터 형성되어온 고아나 노인을 위한 박애적, 종교적 빈민구원 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서 다양한 외부공간의 접근은 기능적, 상징적 중심이 되는 중정에 면하여 설계되었다. 몇몇 커다란 호훼는 자율적이면서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방어적 기능으로서 '울타리(enclosure)'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호훼는 부유층이 빈민을 위하여 제공한 최초의 주택 사례로 19세기 노동자 계급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서 가족주의는 노동자의 작업이 깨지지 않는 전통으로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호훼는 가끔 노동자들이 만든 관리위원회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반영하고 분위기를 표출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프랑스 하레 미술관(Frans Hals Museum) 1층의 대규모 공간을 노인을 위한 호훼, 그리고 감독 및 관리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노인들은 간소하고 협소한 윗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¹²⁾

호훼에서 찾을 수 있는 내부세계의 감각은, 지금까지 도시와 관련하여 논해온 것과 병행하여 공간적 폐쇄성(spatial enclosure)이 장소성(spaciousness)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내부와 외부의 이중감각, 그리고 우물내지 양식 정원이 주는 상징적 중심성은 20세기 노동자용 주택에 공유정원이 설치됨으로써 재해석하게 되었다.



그림 2. 시민주택의 전경, 암스테르담 중심부, 16세기경



그림 3. 시민주택의 전경, 암스테르담 중심부, 18세기경

제2장. 산업화와 도시화

네덜란드에서 공업화를 향한 실험적 시도는 윌리엄 1세가 권력을 잡은 1613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통치하의 네덜란드

10) Bauer, p.4

11) Audrey M. Lamn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London, 1971), p.182

12) Lambert, p.182

의 경제적 사정은 불황이 계속되어 최악의 상태였다.¹³⁾ 영국에서 교육받은 윌리엄 1세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영국 공업화의 성장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특히 도로, 운하, 항만시설 등의 정비라고 하는 하부구조를 근대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네덜란드 국내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였다. 1870년대까지 네덜란드에서 근대 자본주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자본 투자는 네덜란드 국내 생산의 제조직화를 향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오히려 영국이나 벨기에와 같이 이미 산업화가 된 나라에서 즉시 이익이 될만한 분야에 투입되었다.¹⁴⁾

17세기의 풍부한 부의 원천이 무역에 있었듯이 1824년 무역협회 설립을 기회로 금융투자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보장되었는데, 이는 네덜란드 국내 경제에 미묘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증기생산 기계장치가 1787년¹⁵⁾ 초기에는 간척지의 배수용으로 사용되다가 1800년 초기에는 제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¹⁶⁾ 당시 네덜란드 산업은 중세의 수공업적 성격이 강하여 기술발전에는 무관심하여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1839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나, 이는 암스테르담과 할렘 사이를 운행하는 여행을 위한 철도였다. 증기기관차가 개통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철도는 1870년경¹⁷⁾ 철도망이 확충되고 화물수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결과 대륙 간 무역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해외무역에 대한 가능성은 수이더제이(Zuyderzee)해를 통하는 것보다는 암스테르담과 북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1876년 북해 운하의 개통은 암스테르담 미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로테르담은 항만시설이 개선되어 독일의 루르(Ruhr) 공업지대와 북해를 연결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루르 공업지대의 산업화는 네덜란드에 철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로테르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독일과의 경제교류가 문화교류까지 확대되었고 나아가 네덜란드의 주택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섬유산업이 시작된 것은 1830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변화는 증기기관차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1860년경부터 일어났다. 아인스헤데(Enschede)는 섬유산업의 중요한 중심지이고 알메로(Almelo)는 남성용 가성복을 만든 메카였다. 그리고 헹헬로(Hengelo)는 금속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헹헬로는 스토르크(Stork)형제에 의해서 강가의 철도 분기점으로 개발되었다. 이들 형제의 회사는 염료, 봉제, 방직 그리고 주물에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었다. 이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성공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그들을 위한 주택부족을 초래하였다¹⁸⁾. 따라서 이런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주택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891년 필립스(G. Philips)는 아인트호벤(Eindhoven)에 소규모의 전동공장을 설립하였고, 이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가족주의적 경영방식에 따라서 회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들을 총괄 지휘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예

외로 하더라도 네덜란드 산업화는 영국, 독일, 벨기에와 비교하여 지연되었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였다.

다양한 자연요인 중의 하나로 1863년 이전의 수입 휘발유에 대한 물품세를 들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운하 시스템에 대해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값싼 영국 상품들이 네덜란드 시장에 범람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산업화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농업기술의 개선은 1878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난 유럽의 농업감소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영향은 특히 네덜란드에서 치명적이었다. 영국은 살아있는 가축의 수입을 금지했고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Bismark)가 자국에 대한 농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¹⁹⁾.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북미로부터 값싼 곡물이 수입되는 결과를 가져와 네덜란드산 곡물수요는 저하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도시 인구는 미국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²⁰⁾.

특히 네덜란드의 인구증가는 두드러졌으며 특히 1830년부터 1896년에 걸친 암스테르담의 인구증가율은 240%에 달하였고, 그 밖에 할렘은 286%, 로테르담은 347%, 그리고 아넬은 367%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²¹⁾. 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19세기 열악한 주거환경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도시의 확장은 주택건축에 있어서 건축적, 계획적 개선의 배경이 되었다. ■

13) Lamb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p. 256

14) I.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1812-1870 (Utrecht, 1973). 이 책은 기초관련 연구로서 당시를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

15) Lambert, p. 275.

16) Brugmans, p. 42.

17) Brugmans, p. 77.

18) Lambert, p. 277; Hengelo'sche Bouwvereniging, Tuindorp Het Lansink (Hengelo, 날짜 없음)도 참조할 것.

19) Lambert, p. 262

20) Bauer, Modern Housing, p. 11

21) J. Th. W.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1829-1925 (Arnhem, 1969), p. 5

협회소식_kira news

2004 한국건축문화대賞 작품공모

준공건축물부문 9월 1~2일, 계획건축물부문 10월 11일 접수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준공 건축물부문은 2002년 9월 1일 이후 2004년 8월 31일까지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로 오는 9월 1일과 2일 접수를 받고, 계획건축물부문은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Nature in Architecture」 주제에 맞는 미발표 창작물로 오는 10월 11일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대상을 주거건축물과 비주거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대통령상을 각각 시상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주거건축물의 출품기회를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광고와 홈페이지(www.kira.or.kr)를 참조.

제9회 이사회

2004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승인과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등이 논의됐으며, 이밖에도 정관 개정방안, 감사규정 개정방안, 입회비적립금 대여원리금 회수관련 건의에 관한 내용이 기타사항으로 협의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승인의 건

- '04. 6월 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선임하기로 함

- 위원장은 기명투표 결과, 신문섭 회원을 선임

- 위원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

-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 건축연구원운영규정중 아래의 사항을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함.

- 안 제11조중 '회장에게'를 '이사회에'로 수정

- 별표 1의 '연구원 임용자격기준'중 학위 제한규정 대신 건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 제3호의안 :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고, 문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시 승인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방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감사규정 개정방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입회비적립금 대여원리금 회수관련 건의에 관한 건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

- 개최일자 : 2004년 10월 7일(목)

- 장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올림픽 파크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고될 예정

- '04. 6. 30일까지 미상환한 건축사회에 대해서는 해당건축사회에 매월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에서 미상환 이자부터 상계하여 환수 조치하기로 함.

· 다만,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 당시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과 현 금리상의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제4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

2004년도 제4회 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가 지난 7월 9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본 협회 이세훈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관한 안건을 포함해 2004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7/14)시 해당 건축사회 회장은 가급적 모두 참석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7/14) 개최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04. 7. 13(화) 15시(협회 회의실)

· 회의내용 : · 공정위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 작성

· 공정위 회의시 역할 분담 등

· 제2호 : 2004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전국대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아홉소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제3호 : 정관 개정방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함.

· 제4호 : 감사규정 개정방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대책의 건

- 건축법령 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이슈화하기로 함.

강원도건축사회

춘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7월 10일 춘천시 서면 신대리 고슴도치섬에서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 족구대회로 회원상호간 친목을 다졌다. 특히 부인과 자녀들은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자녀와 함께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이날 서울시 서초회원(청년분과위원회 강성후 위원장과 4명)도 참석하여 춘천지역과 서초지역 건축사 상호간 친선교류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 속초지역건축사회(회장 임기섭)는 참예된 건축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올바른 건축문화정립을 위한 월례회의 및 친목대회를 2004년 7월 10일(토) 속초 소재 하일라 벨리 잔디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은 특히 관내 12개 사무소의 회원과 임직원 및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와 족구, 여직원 발야구 등으로 상호 친목을 돈독히 했으며, 소속과 직위를 떠나 건축인으로서 동질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04년 도민 건축대학 - 건축물 답사 개최

지난 6월18일(금) 경남건축사회에서는 도내 건축사를 비롯한 공무원, 주부, 학생 등 약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도민건축대학-건축물답사'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도민 건축대학의 일환으로 경남도민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예년과 달리 더욱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건축물 답사 형식으로 경남 산청의 안솔기 생태마을, 남시마을 및 하동 쌍계사와 최창판 덕을 경유하며 진행됐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우리의 전통가옥과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같은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참가소감을 전했다.

경남건축사회 정응규 회장은 답사 후 "금번행

2004 건축자격시험

· 일 시 : 9월 12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장 소 : 8월 25일 본협회와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예정

사가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계속 펼칠 것을 약속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익산, 남원지역건축사회 방문 간담회 실시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7월 1일 각각 익산지역건축사회와 남원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장기종 전북건축사회 회장을 위시한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과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축사업무발전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게 토의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신문」창간 5주년 기념 리셉션

부산건축사회에서 발행하는「건축사신문」창간 5주년 기념 리셉션이 지난 6월 22일 서면 유원오피스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 협회 이세훈 회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 유길준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지호경 회장,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김신재 집행위원장 등 60여명이 참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본 협회 이세훈 회장은 "심층취재와 책임보도

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건축계의 건강한 언론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운용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세무 정보 :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상담 사례 :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제15회 건축사진아카데미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는 제15회 건축사진아카데미를 2004년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간 개최한다. 건축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 강좌는 건축에서 사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가지 이야기와 미래의 건축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을 제시해 준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이론강의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일정)

- 기간 : 2004년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간)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청암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 참가인원 : 선착순 12명
- 참가비 : 30만원이며 참가지는 온라인 입금후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 외환은행 024-18-29834-0/예금주 임정의
- 이메일 : imfoto@hanmail.net
- 문의 : 담당자 석정민 011-9891-1740
- 전화 : 02-444-7088
- 팩스 : 02-444-7058

(내용)

- 01- 건축을 보는 눈
- 02-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03- 빛과 공간의 이해
- 04- 인공광과 자연광의 비교
- 05- 현대건축과 도시촬영실기 (고건축과 현대건축)
- 06- 각종 모형촬영 이론과 테크닉
- 07- 인테리어 촬영 이론과 테크닉
- 08- 건축사진의 표현방법

09- 건축과 자연 촬영실기 답사 (1박2일)

10- 흑백사진 현상, 인화 실기

11- 건축과 프레젠테이션

12- 포트폴리오 제작 및 총평

* 건축답사는 추후 결정되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악도는 청암연구소 홈페이지나 프리챌카페 [건축과 사진]자료실 악도 참고

* www.foto.co.kr

* www.freechal.com/irifoto

제5회 고건축사진 공모

지난 20여 년간 고건축을 소재로 한 흑백사진으로 캘린더를 제작해온 (주)기린산업이 2005년 캘린더 제작을 위해 사진을 공모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한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과 함께 A4용지 1장에 제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와 작품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 작품내용 : 성(城)과 주변 건축물을 소재로 한 국내외 미발표작
- 작품부문 : 무광 인화지 흑백 사진
- 작품규격 : 11"×11" 또는 11"×14"
- 응모자격 : 건축계 종사자
- 출품방법 : 우편발송과 당사 방문 제출
- 마감일자 : 2004년 9월 1일
- 심사발표 : 2004년 9월 15일(개별통보, 기린산업 홈페이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주)기린산업 4층 홍보팀 이가은
- 문의 : 02-2106-7155



제4회 대상작(박재경)

한옥과의 만남

대구 달성 남평문씨 세거지에서 3번째 만남 개최



한옥문화원(원장 신영훈)은 매년 여름, 건축·문화재·역사·고미술 등의 분야 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문화재 가족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고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한옥과의 만남'.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남평문씨 세거지에서 그 만남이 준비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은 문학점 선생 후손들이 모여 사는 남평문씨 세거지로서 대구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을 처음 터를 잡은 사람이 자손들의 집이 들어앉을 터를 미리 계획하여 그에 따라 골목과 집이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그 일부가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열리는 이번 '한옥과의 만남'은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기획성과 함께 마을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마을과 집성촌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지금이 핵가족 시대이기는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 다시 3, 4대가 더불어 살게 된다면', 혹은 '우리의 도시 개발이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개념에서 벗어나 삶

의 질이 존중되는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을 가정하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도시계획의 지식을 쌓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행사 일정은 8월 12일(목)부터 8월 15일(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며 공동 조사와 발표로 이루어진다. 강사진은 김대백(한옥 전문 사진가), 문정기(남평문씨 종손), 문태갑(남평문씨 문중 대표), 신영훈(한옥문화원장), 유문웅(단청, 실측 전문가), 이호열(밀양대 건축과 교수)씨로 구성되어 있다.

- 참가비 : 학생 140,000원/일반 18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

(urihanok@hanmail.net)

- 문의 : www.hanok.org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차 인터뷰심사 결과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의 2차 인터뷰심사가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심사에는 장학재단에서 위촉을 받은 창조건축의 김병현, 이로재의 송효상 두 분께서 수고하셨고, 옮겨버로 황두진건축의 황두진과 맥스트 랫의 신종환 두 분이 참여하였다. 인터뷰심사결과 유주현씨가 최종당선자로 선정되었다.

2차 인터뷰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8일에 미국에서 진행된 일차 포트폴리오 심사에서는 김태수선생, 백준준선생, Ryszard Szczypek, Whit Iglehart가 참여하여 금년에 지원한 총 37개의 포트폴리오를 심사한 결과 이태상, 김대욱, 이미영, 유주현, 신수영 이상 5개의 포트폴리오

를 선정한 후 5월 29일에 김태수선생과 Miekyoung Kim이 재심사하여 김대욱, 이미영, 유주현이 최종 1차 통과자로 선정되었다. 1차 심사의 총평은 전반적으로 결과물 면에서는 우수한 작품들이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데스크탑 퍼블리싱에서 오는 유사한 결과물들이 많았다.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리쉬한 그래픽에 치중되어 건축학도들의 소위 뽀빠새가 묻어나고 진솔한 건축자체를 음미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한다.

(2차 인터뷰 심사평 / 송호상)

응모자 1:

지방의 건축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한계- 정보부족이라든가 과제선택의 편협성, 진부한 표현방법, 심지어 중앙지역에 대한 편한 콤플렉스 등을 전혀 느끼게 하지 않는 작업내용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체제 자체도 나무랄 데 없는 출중한 것이었다. 다만 주의 주장이 넘치게 분명하여 스스로 만든 도그마에 벌써 빠져 있는 듯 느끼게 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이었는데, 이는 작업 내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어쩌면 여행을 보낸 목넓은 인력과 주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태수장학금의 대상은 그런 불확실한 대상에 수여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지금 가진 도그마적 사고를 켤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건축가로 자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응모자 2:

포트폴리오도 어느 누구보다 일관성 있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작업의 과정과 내용 또한 건축 초년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감각은 내가 데리고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로 전문가 수준을 넘어 있었다. 걸리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이면서 요즘 현대건축의 유행적 주제인 랜드스케이프에 너무 몰두해 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참식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나중에 깊고 넓은 건축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제출된 포트폴리오에 수록된 건축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렸다. 점을 배부터 크레딧에 관한 것은 지나칠 정

도로 분명해야 한다는 황두진씨의 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모자를 장학금의 수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못내 서운했지만 크레딧의 문제에 걸려 버렸다.

응모자 3:

조각에서 건축으로 전공을 바꾼 만큼 조형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이 분명하다. 공간에 대한 관심에 골려 건축을 택했다고는 했다. 그리고 건축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력도 상당하고 관찰력도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의 결과는 공간보다는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크다. 나는 이 젊은 건축학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건축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한 동안을 헤어나지 말고 그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미 해외연수나 여행경험도 있는 터라 그리 주장했으나, 역시 이 상은 상대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응모자의 몫임을 당연히 하신 김병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응모자는 나의 견해를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축하드린다.

2004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김병윤 교수 영예

김수근 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5회 김수근 문화상'을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김병윤 교수가 수상하였다. 지난 6월 14일 (주)공간사 사옥 마당에서 개최된 '김수근 문화상' 수상식에는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김병윤', '무주작업들-정기용', '덕원갤러리-권문성', '아트레온-김준성, 범건축, 박영건'의 네 작품이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중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건축적 개념과 도시적 해석, 공간의 완성도, 건축 열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식에 이어 제14회 수상자인 정영선, 조성룡 씨가 '선유도 공원'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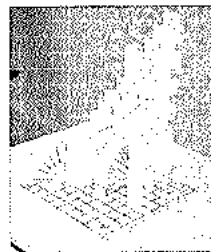
문의: 김수근 문화재단 02-743-7281

제3회 한양대학교 건축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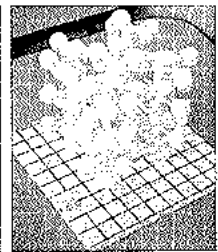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건축학부가 주관하는 '제3회 한양대학교 건축 올림피아드'가 지난 5월 29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축학부에서 열렸다.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피아드에는 무려 8백5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주제인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게 될 건축의 모습'에 대해 각축의 경연을 벌였다. 그 결과 한영외고 장세림 군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3명, 특선 4명,佳作 5명, 입선 27명이 발표되어 총 40명이 수상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초지고등학교에는 특별상이 주어졌으며,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지도 교사들에게는 지도 교사상이 수여되었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축학부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건축 올림피아드를 수년 내에 국제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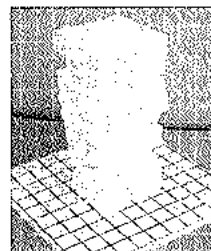
문의: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축학부
031-400-5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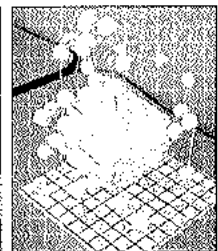
대상/장세림



우수상/이하나



우수상/주선하



우수상/최영준

2004 제4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제4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해양 도시 부산의 건축, 대립과 화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건축과 환경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건축문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낙동강에코센터, 부산영상센터와 같은 공공 부분의 건축을 통해 실제적인 건축적 성과를 얻겠다는 점에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중요함을 느끼고, 국제건축공모전을 통해 이를 실현코자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7일 발표된 낙동강에코센터의 국제건축공모 참가신청 마감 결과, 60여개국 9백50팀이 접수하는 대성황을 이루어 이미 부산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또한 심사위원단을 세계 생태관련 전문 건축가 위주로 구성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작품 접수 마감은 7월 20일, 심사 결과는 7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작품 전시회 및 강연회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 밖에 문화제의 단위 행사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말양 배내골에서는 아시아지역대학 건축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건축워크숍이 펼쳐진다. 워크숍은 '경계로서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2011년까지 가덕도 신항으로 그 기능이 이전될 부산 북항에 대한 워터프론트 공간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작품은 건축 작품전 및 심포지엄과 함께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부산광역시청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이미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잡은 일본의 쿠마모토현과 독일 베를린의 도시환경계획을 벤치마크한 것으로서,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건축환경과 문화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실질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중적인 건축제를 병행하는 이번 행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부산 북항 이전 따른 수변공유지의 활용방안 모색
주제: 대립과 화해 - 경계로서의 건축

부산의 대표적 항구, 북항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가덕도신항으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부산 도심 내에 대규모 수변 공유지가 생겨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아직 이 공유지의 활용방안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북항의 보다 체계적인 워터프론트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북항에 대한 '200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기로 했다.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동서대 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워크숍

은 지난해 유럽과 미주지역의 튜터와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워크숍은 '대립과 화해 - 경계로서의 건축'을 주제로 국내 학생 70여명과 아시아지역 학생 30여명이 참가한다.

워크숍분과위원장 이상준 교수는 "부산시민에게 있어서 북항은 지금까지 일상에서 그 실체를 느낄 수 없는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도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북항은 크게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로, 작게는 부산과 외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종착점으로, 부산의 문화와 다양한 이국 문화가 충돌·융합하는 장소적 경계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실질적인 경계로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예비 건축가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며 주제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6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건축디자인 지도와 특별강연, 건축투어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학생들은 3명 이내의 대학별 단일 또는 복합 디자인팀으로 편성된다. 튜터는 국내 13명, 국외 10여명으로 구성되며, 튜터 1명이 2개 팀을 지도하게 된다.

특별강사로는 일본 오사카대학 카가 아츠키 교수와 동서대 이상준 교수, 안성호(건축사사무소 시반) 건축사 그리고 해양대 이명권 교수가 초빙됐다. 또 9월 14일 중간 크리틱과 17일 최종 크리틱에는 송효상(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건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8월 28일에는 주제발표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4일에는 대지 현장 답사를 떠난다. 현장답사는 선박을 이용해



북항 대지

바다에서 복향을 관망해 봄으로써, 육지에서만 바라보는 워터프론트 계획이 아닌, 사고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수변공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외 학생의 경우, 대지 현장답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의의 수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 캠프를 부산시내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과위원 오기환 교수는 “워크숍 캠프가 시내에 위치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리적으로는 다소 떨어졌지만 참가학생들이 디자인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속의 배내골로 캠프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참가학생들에게 부담되었던 숙박과 식사문제도 이곳 캠프에서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학생들의 설계안이 트레싱지에 표현되어 추후 전시 및 책자 발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최종결과물을 컴퓨터 작업을 거쳐 CD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 1명의 디렉터가 워크숍의 준비에서부터 통역까지 행사 전반을 책임져 행사진행에 무리를 빚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7명의 코디네이터가 행사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워크숍 참가비는 국내 학생은 15만원, 외국 학생은 미화 200불 또는 일화 2만엔이다.

한편, 워크숍은 지난해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미래 건축가를 위한 건축설계디자인 워크숍이다.

문의 :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분과위원회

<http://biacf.org/2004workshop>

051-320-1824, 016-879-1824

- 코디네이터 : 이상준(동서대), 오기환(동서대), 유재우(부산대), 이명권(해양대), 이봉두(건축사사무소 녹원), 이차미(부산·후쿠오카 교류협회), 정태복(주)부산건축

- 특별 강사 : 카가 아츠키(일본 오사카대학), 이상준(동서대), 안성호(건축사사무소 시반), 이명권(해양대)

- 크리틱 : 송호성(건축사, 이로제)

- 튜터 : 강대화(건축사사무소 아키안, 토탈), 김기수(동아대), 김희수(주)생각하는 사람들, 변계성(창원전문대), 양재혁(동의대), 우신구(부산대), 윤영식(동명정보대), 이승현(영산대), 정연근(건축사사무소 토원), 정지영(신라대), 최임주(동의대), 표웅색(동서대), 홍성민(부경대): 국내 13명

해외 튜터 : 해외 건축사 및 건축대학 교수 10여 명 현재 섭외 중.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 및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 공모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과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의 신청 접수가 7월 1일자로 시작되었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 해외 건축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은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 당 작가의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참가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0월 8일에 공고된다. 아울러 시상식은 10월 11일 오전 11시에 배재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1점)과 우수상(4점), 특선, 입선 등 네부분으로 시상된다.

또한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은 10월 5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 건축물이 대상이며 여타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시상은 금상(1점)과 은상(1점), 동상(1점)으로 상패 및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 -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 042-824-9981,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 - 대전광역시 건축과 042-600-2834

- 출품자격

- 건축대전부문 : 제한 없음
- 초대작가부문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

서 초대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 건축상 부문 : 응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주간사를 원칙으로 함)

- 응모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 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초대작가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 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상 작품은 초대작가전에 동시출품 불가함)
- 건축상 부문 : 2004년 10월 5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건축물(주용도)로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설계자,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검사시점 기준으로 함)

- 작품규격

- 건축대전부문 - 패널 : 가로 100cm이내 × 세로 200cm이내
- 모형 : 가로 90cm이내 × 세로 90cm이내 × 높이 90cm이내, CD1매
- 초대작가부문 - 패널 : 가로 100cm이내 × 세로 100cm이내
- 모형 : 가로 90cm이내 × 세로 90cm이내 × 높이 90cm이내, (모형제출은 자유임), CD1매.
- 건축상부문 - 패널 : 가로 90cm이내 × 세로 180cm(작품명, 설계개요 및 개념, 전경사진(60cm×50cm), 배치, 평면, 입면을 포함, CD 1매
- ※ 패널은 나무로 제작(테두리는 검정색)하고, 유리부착금지, 규격 이외의 작품은 접수치 않음



2004 제22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제4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모

각각 '서울 시나리오'와 '유희공간'이 주제

(주)공간사가 주최하는 '제22회 공간국제학생 건축상'과 '제4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에 대한 상세한 일정이 발표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22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은 '서울 시나리오(Seoul Scenarios)'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MVRDV가 심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4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은 '유희 공간'이라는 주제로서 김개천, 유정환 씨가 심사를 맡는다고 밝혔으며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과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재미'라는 요소를 발견하는 일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랐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747-2892, 3

이메일 : archi@space-prize.com,
interior@space-prize.com

홈페이지 : www.space-priz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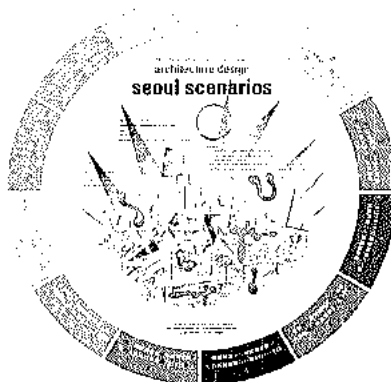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 서울 시나리오(Seoul Scenarios)

- 심사위원 : MVRDV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팀 3인 이내)
- 참가신청 : 2004년 8월 10일
- 작품접수 : 2004년 9월 14일 17:00
- 심사 : 2004년 9월 21일~9월 30일(로테르담)
- 입상발표 : 2004년 10월 초
- 심사위원 초청강연회 : 2004년 10월 말~11월 초
- 시상 및 전시 : 2004년 10월 말~11월 초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 주제 : 유희공간
- 심사위원 : 김개천(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유정환(니드21 대표)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팀3인 이내)
- 참가신청 : 2004년 8월 10일
- 작품접수 : 2004년 9월 14일 17:00
- 심사 : 2004년 10월 5, 6일
- 입상발표 : 심사종료 후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심사위원 초청강연회 : 2004년 10월 7일
- 시상 : 2004년 10월 7일
- 전시 : 2004년 10월 7일~10월 15일



2004년 동경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

실내건축 관련 전문 박람회인 '2004 동경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IPEC21- 4th Interior Pro ExCo)'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의 빅사이트 전시장(Tokyo Big Sight)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동경 실내건축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IPEC21)는 일본 실내건축가 협회가 주최하고, 일본 인테리어 산업 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실내건축과 연관된 자재, 소품, 신기술, 시스템 및 디자인 등이 총망라되어 전시되는 이 박람회는 일본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의 바이어인 부동산 개발업체, 건설회사, 건축자재 유통업체, 실내건축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전문 박람회다.

- 행사개요

- 기간 : 2004년 10월 13일(수)~15일(금)
- 장소 : 빅사이트 전시장(Tokyo Big Sight), 서1홀(West Hall 1)
- 공동개최행사 : ECOBUILD2004 (제4회 일본 환경 건축 박람회)
A/E/C Systems Japan 2004 (19회 일본 건축/건설 신기술 박람회)

- 전시품목

- 주거용 인테리어/실내 건축용 자재
- 쇼핑몰 및 상가 시설용 자재/설비
- 사무(오피스) 시설용 자재/가구
- 학교 및 교육 시설용 자재/설비
- 병원, 의료기관등 복지 시설용 자재/설비
- 인테리어/건축/환경 관련 서비스 및 간행물

- IPEC 21 특징

① 구매 상담 박람회

대부분의 방문객이 일본과 인근 아시아 지역의 인테리어 및 건축 설계회사에서 구매 의사 결정에 직결된 임원 및 실무진들이며, 지난

2003년 출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출품업체의 95%가 본 회사의 방문객 숫자와 방문객의 전문성에 만족하였다.

② 테마 공동관(Theme Pavilions)

매년 인테리어 산업에 있어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들을 선정하여 테마별 공동관을 구성. 여러 업체들이 선정된 테마 아래 공동으로 전시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디자인 및 소재 적용 등)를 극대화한다.

③ 컨퍼런스(Conference)

박람회 기간 중 인테리어 및 건축설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professional)들을 초청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최신 흐름과 기술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 2003년 행사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씨, 디자이너 키타 토시유키씨와 스기모토 타카시씨의 강연과 그의 실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④ 해외 디자인 특별관(Special International Presentation)

해외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흐름 및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외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특별 전시공간을 마련. 지난 2003년 행사에는 스웨덴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Swedish Creative Jungle'을 통해 스웨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산업의 트렌드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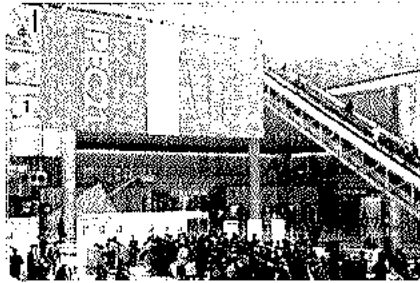
⑤ 디자이너 쇼케이스(Designer's Showcase)

여러 분야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 설계자들이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한다.

- 참가비용: Raw Space 250US\$/sqm (최소 36sqm)

Package Stand 3,000US\$/9sqm(3mX3m)

문의: SBA KOREA (02-708-4080, sbakorea@sba1t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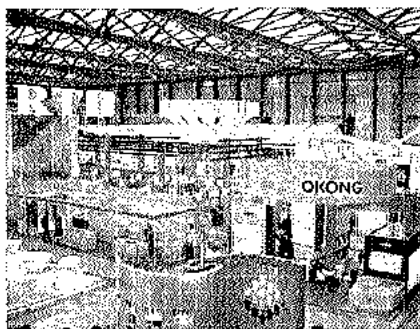


2004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 성료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상하이 푸둥 신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건축박람회 '제9회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The 9th International Building & Construction Trade Fair 200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된 행사보다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총 6개홀 6만6천㎡에서 개최되었으며, 19개국에서 1천1백38개 업체가 참가하고 4만7백58여 명의 건축 관련 바이어들이 행사를 방문하여 총 2억7천6백만 달러의 상담 거래가 이루어져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욕실, 부엌, 발트인 가전, 창호, 바닥재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전시와 병행하여 21, 22일에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으며, 국가관으로 참여한 독일의 연방 정부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독일제



조업 브랜드들의 새로운 욕실 솔루션(German brand manufacturers present new bathroom solutions)'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독일 욕실 산업에 대한 최신 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 오픈 한 6번 홀에 한국 국가관이 구성되어 1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는 것과 국가관과는 별개로 중국 시장 개척 및 대리점 확보를 위해 많은 개별 업체(총 16개 업체)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LG화학, 제일모직(스티론) 등의 유명 기업들은 중국 내 현지 법인이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와 투자 협력을 위해 현지 공장 및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수출 상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FM학회 회원사로 있는 대·중기업 건설 업계 임원, 건축과 교수, 주요 건축 설계사 약 50여명이 VIP로 초청을 받아 박람회를 방문했으며, 건축 분야 실무진들, 건축 자재 제조 업체 등의 개별 참관단들도 대거 박람회를 방문하였다.

이 박람회의 다음 행사는 2005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 푸둥의 신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문의 : SBA Korea 02-708-4080

'민간협·민예총 여름 건축강좌' 일정 변경

'민간협·민예총 여름 건축강좌'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되었다.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 과정으로 개설되는 이 강좌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흙이라는 재료의 가능성을 관찰함으로써 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정

·7월 3일 - 제강 : 흙 누리, 흙과 삶(신영호/연세대)

- 7월 10일 - 제2강 : 동양철학에서의 흠(김윤철)
- 7월 24일 - 제3강 : 흠의 인생(장동광/숙명여대)
- 8월 7일 - 제4강 : 흠의 건축/비술라르의물 질적상상력과흠의이미지(곽광수/서울대)
- 8월 21일 - 제5강 : 재료로서의 흠(황혜주/목포대)
- 8월 28일 - 제6강 : 흠의 건축/an old idea, a new future(강용상/좋은그릇)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문의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전화 02-739-6851
홈페이지(민예총www.kpat.org/민건협
www.mingunhyup.org)

제4회 청소년수련시설 설계공모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수련시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건립방향을 제안, 이를 시각화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제4회 청소년수련시설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주제 : 환경친화적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 부문(2개영역 중 택1)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수련관
- 자격
 -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26세 이하)

- 건축 및 조경 관련학과 재학생
- 개인 또는 3인 이하 공동출품 가능
- 응모신청기간 : 2004. 9. 13(월)~10. 16(토) 13:00
- 작품접수기간 : 2004. 10. 18(월)~10. 23(토) 13:00
- 접수처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

※ 자세한 사항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http://www.purumi.org>) 참고.

○○○소장을 ○○○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건축서비스팀」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건축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질 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의회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다)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문의 :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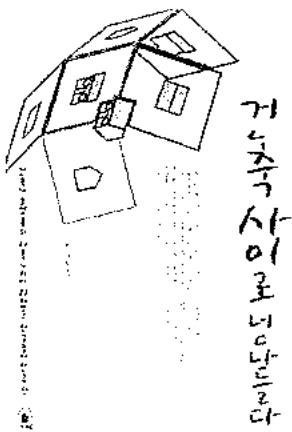
비로 잡습니다

※ 지난해(6월호) 118쪽 해와잡등항 중 「a+u」 2004년 5월호 - 「신건축」 2004년 5월호로 바로잡습니다.

※ 지난해(6월호) 110쪽 현상설계 서대문구 아진아가림도서관 중 「당선팩 / (주)가와중합건축사사무소(최상영)」 - 「우수작 / (주)가와중합건축사사무소(최상영)」으로 바로잡습니다.

건축 사이로 넘나들다

이 책에는 건축 사이사이로 넘나들며 사람 사는 의미와 세상과의 관계를 음미하는 삶이란 건축의 의미를 파헤치는 22개의 글이 담겨있다. 건축 팬과 건축인에게 공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무엇 무엇과 건축 사이'라는 제목 하에, 각 필자는 그들의 상상력에 따라 주제와 이야기 소재를 선택하여 독특한 필치로 써 내려간다. 독특한 개성의 필자들, 건축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필자들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건축이라는 작업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은가, 얼마나 폭이 넓은가, 얼마나 속이 깊은가를 새삼 느끼게될 것이다. 건축이란 흥미로운 작업임에 분명하다.



안상수 외 지음/390쪽/14,000원/서울포럼 발행
(02-514-9387)

건강을 부르는 웰빙가든

건축설비를 전공한 원예치료사인 저자가 요즘 트렌드인 웰빙을 실내 정원과 접목시킨 책

이 책에서는 물주기와 관리방법 등의 식물 기르는 방법은 물론 각각의 식물을 어디에 두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원꾸미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이성현 · 김소희 지음/168쪽/15,000원/도서출판 조경
발행(031-728-496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 강북구건축사회/833-2830 · 강서구건축사회/681-8999 ·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 구로구건축사회/884-5826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 노원구건축사회/037-1106 · 도봉구건축사회/590-8720 ·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32 · 동작구건축사회/515-3026 ·
- 마포구건축사회/333-676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 성북구건축사회/3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5153 ·
- 임천구건축사회/394-0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유성구건축사회/389-1496 ·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5748 ·
- 중랑구건축사회/437-5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5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그양지역건축사회/(031)963-6902 · 광명건축사회/32-684-5645 ·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6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587~8 ·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5 · 안산지역건축사회/031-460-9130 ·
- 만안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 0.전지역건축사회/031-625-0545 ·
- 피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 오산 · 파주지역건축사회/(031)375-9848 ·
- 공인지역건축사회/(031)333-0140 ·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3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8 ·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6708 ·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2-6080 ·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시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6752 ·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28 ·
- 충주시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 음성지역건축사회/(043)373-010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55-2217 ·
- 시안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51-4551 ·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3)452-3315 ·
- 남원지역건축사회/(063)831-2223 ·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966-9944 ·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8688 ·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 상주시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 안동지역건축사회/(054)253-0244 ·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 영천시지역건축사회/(054)534-8256 ·
- 철곡지역건축사회/(054)674-7025 ·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8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60 ·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 마천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 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 암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 통영지역건축사회/(055)841-4530 ·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성남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Seong-nam Yuldong Book Theme Park

1위작 / 임옥상미술연구소(임옥상) + (주)이로제
(송효상) +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김인수)

대지위치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 2-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5,950㎡
건축면적 495.5㎡
설 계 팀 임옥상미술연구소 - 라운주, 임용현, 정선영
이로제 - 이동수, 이기태, 최원준, 박종훈,
심형근, 유영수, 정세훈, 이종원, 조윤희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 정윤희

책, 세상의 배꼽

대지 위에 쓰고 그린 한 권의 책, 하나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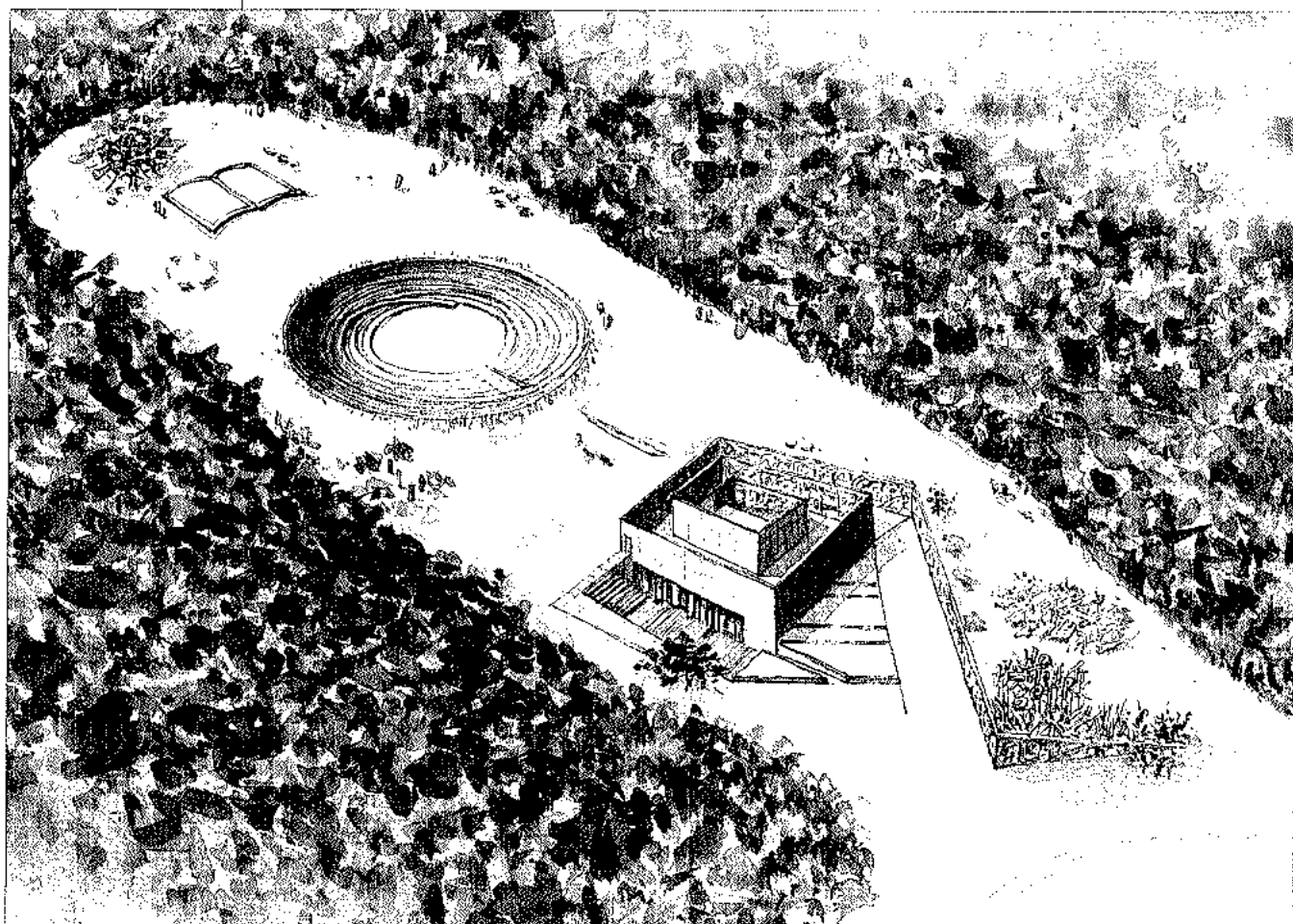
건축과 미술의 경계를 넘는 Nomadism.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의 장.

책은 '우리=우주'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인류가 역사-현재-미래와 의사소통 하는 장이다. 공원은 자연 속에 소요하고 휴식하며, 소요와 휴식을 즐기고 명상하는 일상적이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책 테마 공원은 자연과 공존하는 책의 공원이며 '책=공원'이며 '공원=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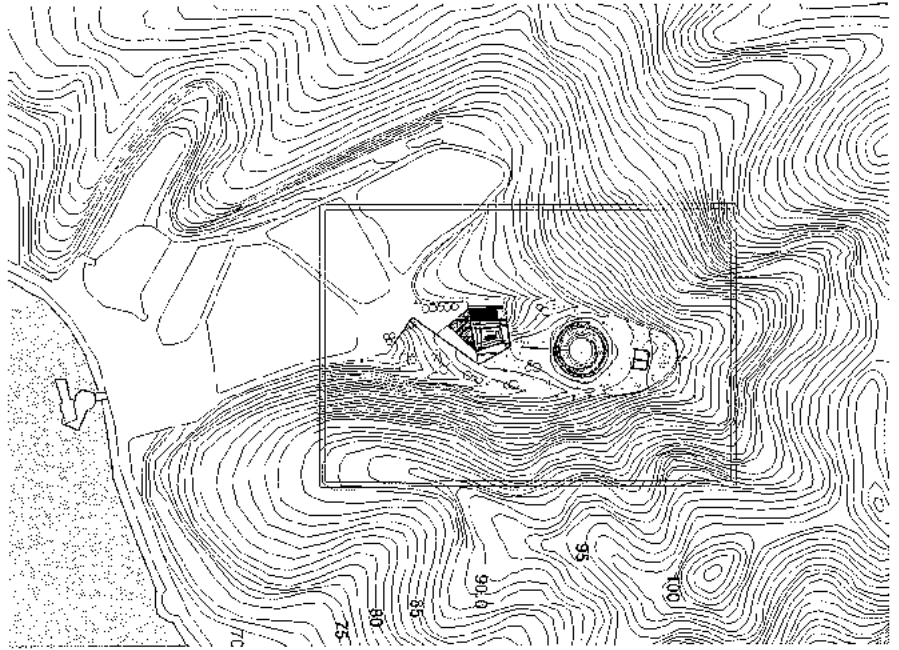
우리는 이 공원이 화가-건축가-조경예술가-작가가 한 몸으로, 빛과 공기와 흙과 돌과 물과 바람과 나무로 지상에 쓰는 한 권의 '공원=책'이기를 비렷다.

성남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106
군포시어린이도서관	112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인력개발원	116
부산시남구청사	118
국악기채현전수관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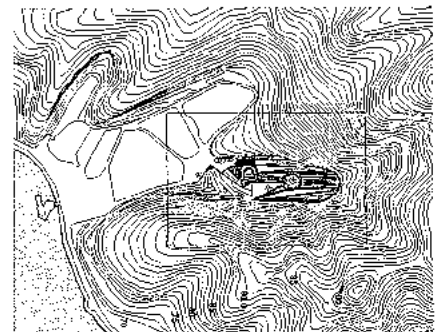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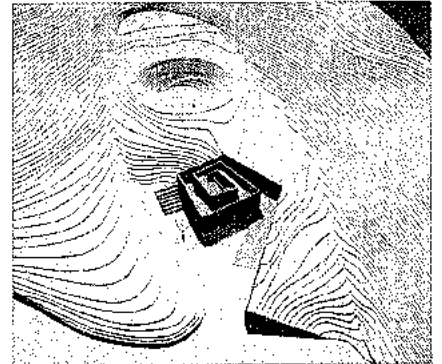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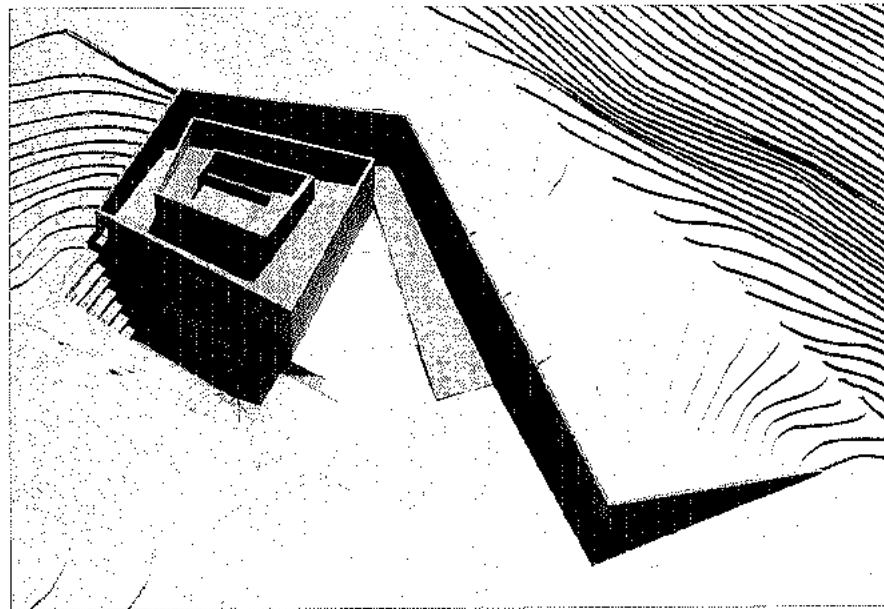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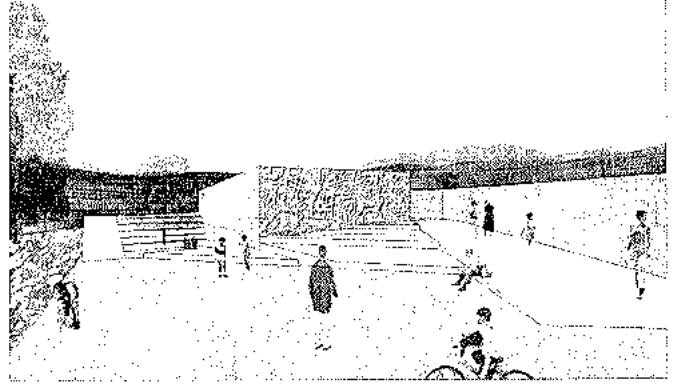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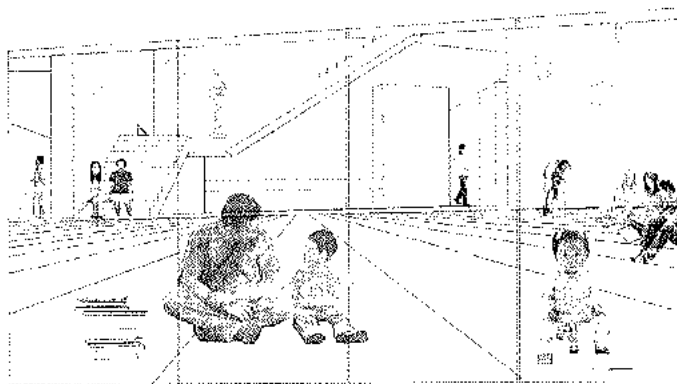


이 '책=공원'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책의 탄생, 미래의 길"이다.

문자 이전과 이후, 종이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후 미래의 책의 역사가, '책=역사'가 책의 상상력으로, 아니 '책=상상력'으로 펼쳐진다. 2단계는 '책=세상'이다. 하늘의 책(고원)은 미래("책의 탄생 역사" 벽화와 지하건물)를 통과하여 다다른 책의 고향이자 자궁이다. 그곳은 비어있는 등근 하늘 그릇이자 미래의 배꼽이자 평화의 물결홀이다. 3단계는 뚜렷한 장소나 모양이 아니라 1단계 '方=미로'와 2단계 '圓=광활'을 끌어질 듯 있는, 그리고 의미를 심화, 확산시키는 의미와 음악의 신경망 혹은 stop들(조각벤치, 놀이공간, 조각물 등)이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입면도

성남문화공원 2 레지마르

Seongnam Cultural Complex 2 Regimar

2위작 / (주)예술의 도시(이상만·김성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S&K(송호섭)
+ 기술사사무소 영일조경(구영일)

대지위치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 2-2번지 일원
대지면적 5,940㎡
건축면적 120.88㎡
연면적 495.50㎡
건폐율 6.72%
용적률 8.33%
구조 철근콘크리트 RC + 벽식구조
규모 지상 2층
설계팀 예술의 도시 - 오형태
가인S&K - 이진두, 박재한, 정수진
영일조경 - 윤청운, 박세진

계획 개념

① 배치 및 평면 개념

- 자연에 순응하는 배치
- 기능에 따른 Mass의 다원화
- 공간의 분절 및 집합
- 중심형 배치
- 중심축을 따라 입구에서 후정에 이르는 다양
한공간의 위계 구성
- 절선축에 의한 파격
- 중심축에서 비대칭 배치에 의한 파격적 공간
구성
- 공간의 개방성 및 융통성 확보
- 환경조형물로서의 역할 기대

② 단면 및 입면 개념

- 상징성의 극대화
-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열린공간 개념 도입
- 자연과의 일체성 확보

- 시각적 개방감 및 자연채광 도입

- 다양한 실내공간 연출을 위한 단면개념 도입

외장 및 내장 계획

① 외 벽

- 0.8T VM ZINC Shd 평형이음 공법 채택
- 오석(물갈기) 및 화강석 (버너구이)

② 지 붕

- 0.8T VM ZINC Shd 이음 공법

③ 창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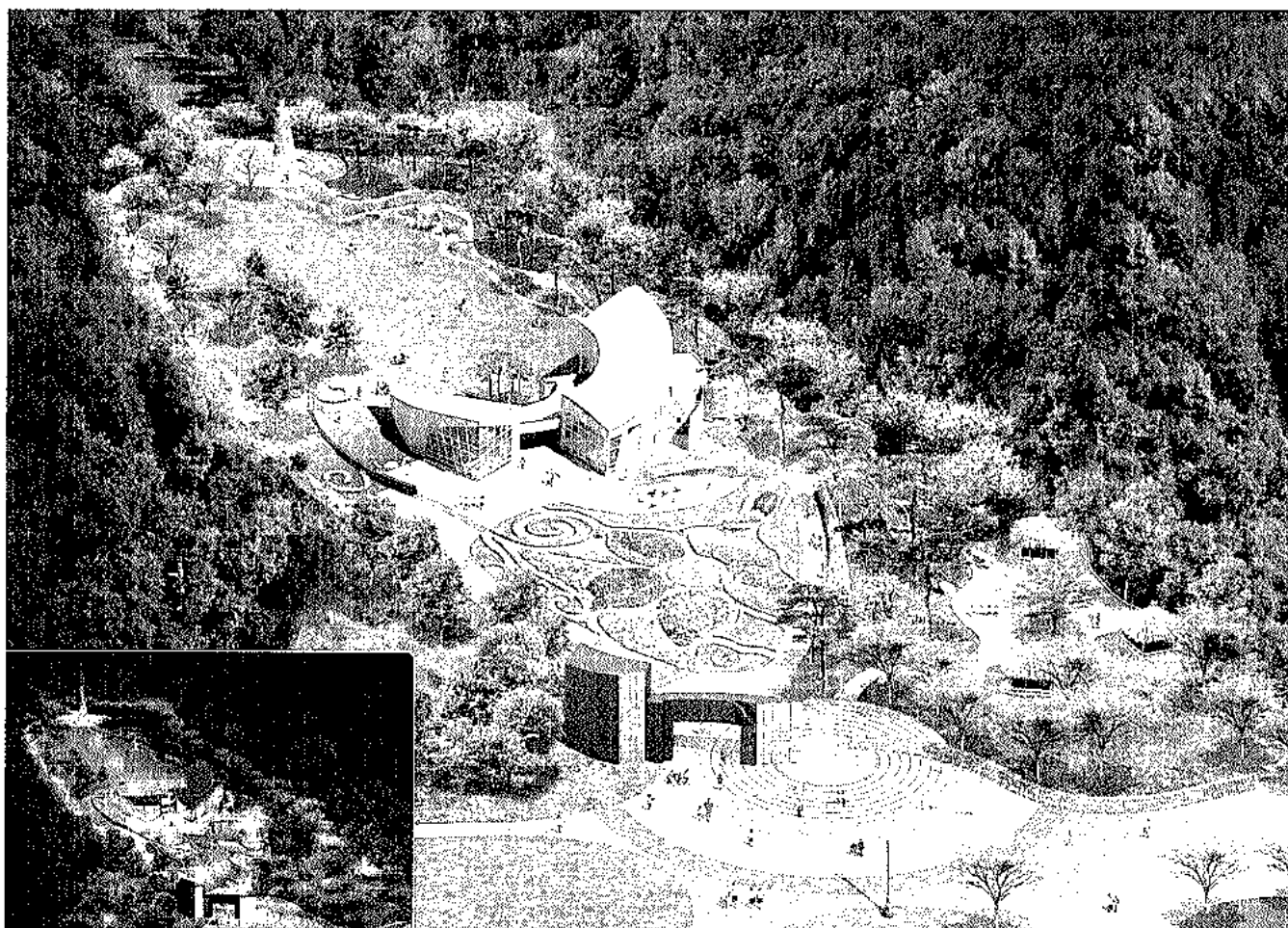
- 대형 복층(24T) 유리 및 컬러 알루미늄 프레임

④ 내 장

- 각 실별 기능에 맞는 최적의 인테리어 자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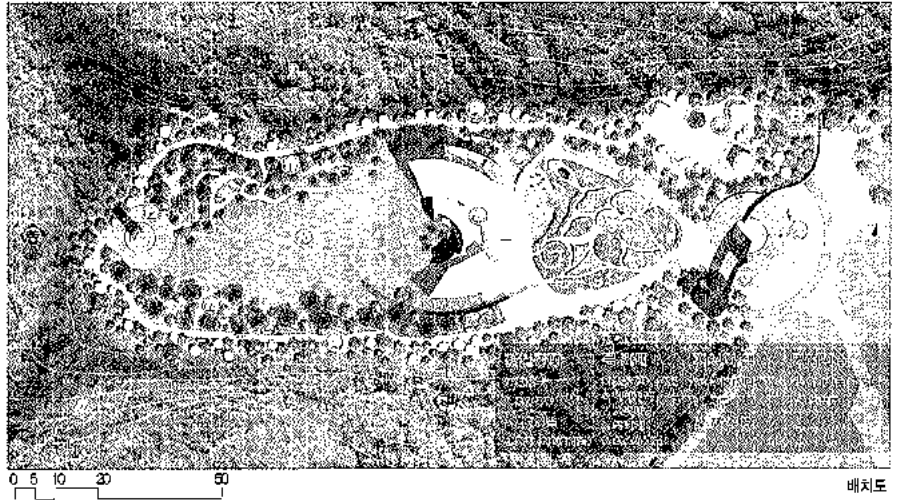
기계설비 계획

- ①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가 경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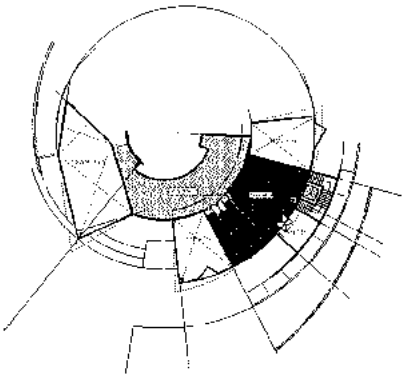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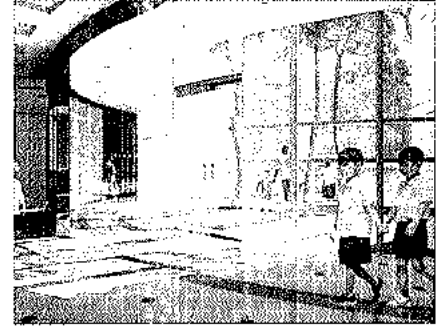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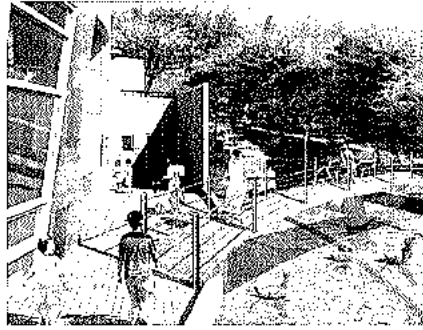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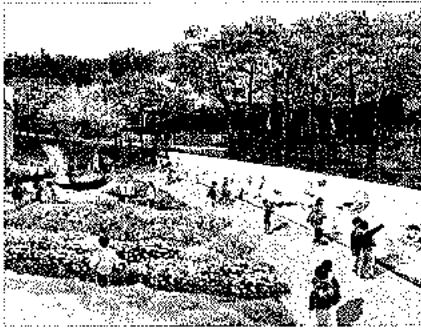


System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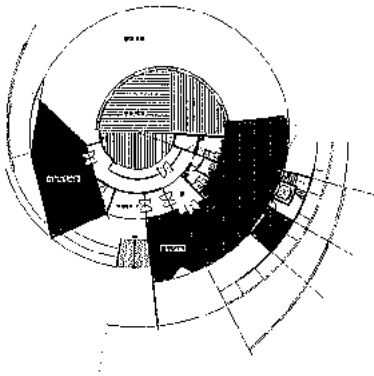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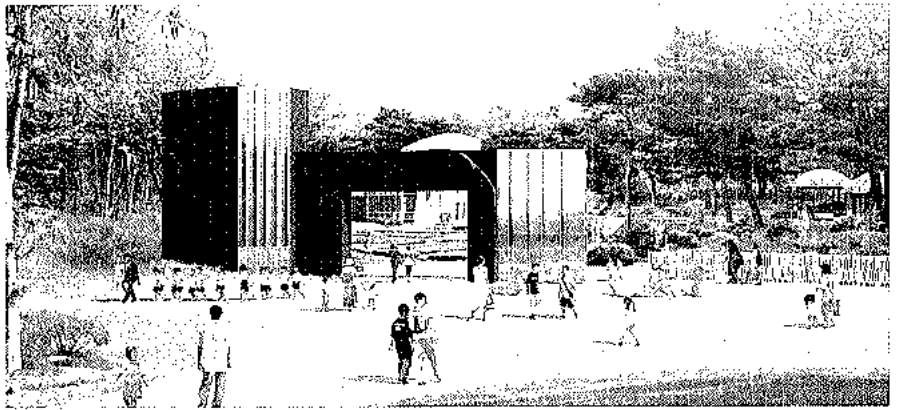
- ② 최적의 실내환경 유지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설비 도입
- ③ 적정 사용량의 분석으로 기기류 용량 간소화 도모
- ④ 유지 관리의 간소화
 - 설비 시스템의 간소화
 - 설비기기 대수의 최소화
 - 보수 점검의 용이함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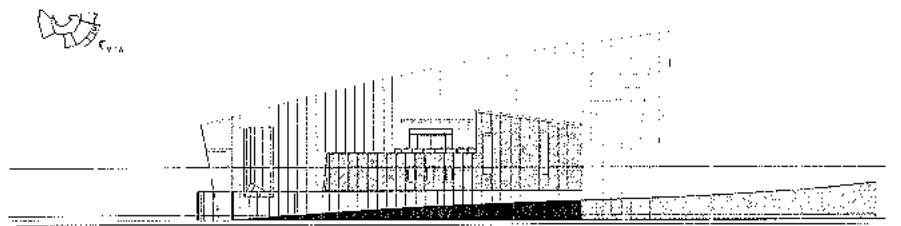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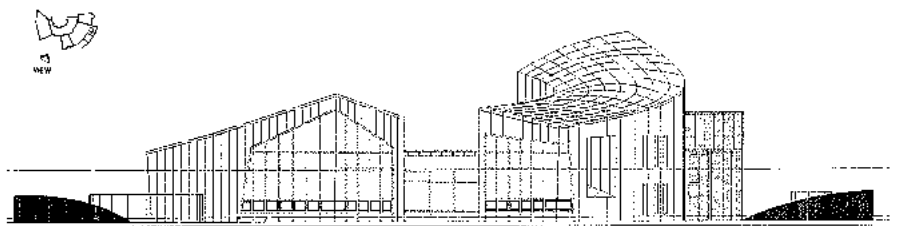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성남시 분당구 울동 산 2-2번지 일원

3위작 / 인서울건축사무소(김진호) +
(주)환경디자인 아르떼(김정수) +
(주)인서울(이윤제)

대지위치 성남시 분당구 울동 산 2-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관광 휴게시설
대지면적 5,940㎡
건축면적 477.45㎡
연 면 적 489.15㎡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규 모 지상 2층
주요시설 강당, 전시실, 도서열람실, 휴게실, 화장실 등
외부마감 THK18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ZINC 패널,
미송방부목
설 계 팀 인서울건축 - 송인욱, 신예진, 김영태
아르떼 - 박윤수, 조성애, 이인석, 홍시내,
김민경, 오정인, 홍성령, 고성림
(주)인서울 - 맹지선, 임창래, 유찬문, 김승환,
김경화

기본개념

- 공원 독서문화 조성 - 다양한 계층, 특히 아동 방문객을 위한 여가 및 독서문화 조성
- 자연과 조화된 복합 문화공간 - 울동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실내/외 문화장소 제공
- 종합 책(문화) 테마공원 - 건축, 조경, 조형물 디자인의 연계를 통한 책 테마 공간으로의 이미지 조성

대지분석

- 입지환경분석
- 분당 중심부부의 외곽 지역에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약 2.2km(도보 15분 소요) 정도 거리에 위치
- APT단지 이용객은 도보 접근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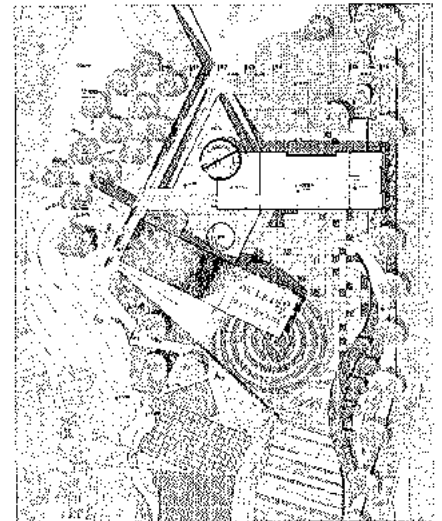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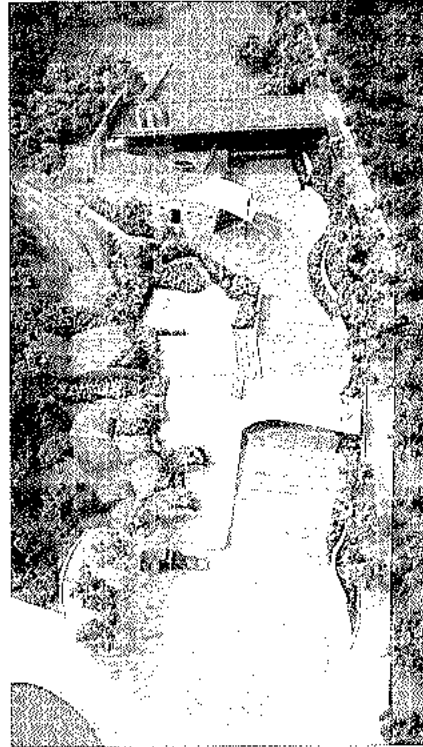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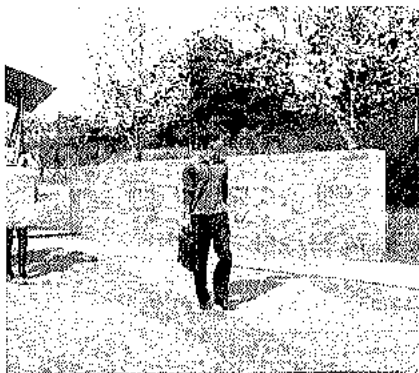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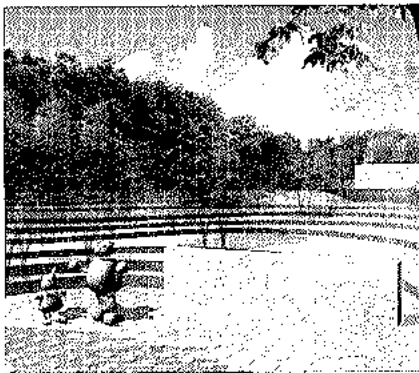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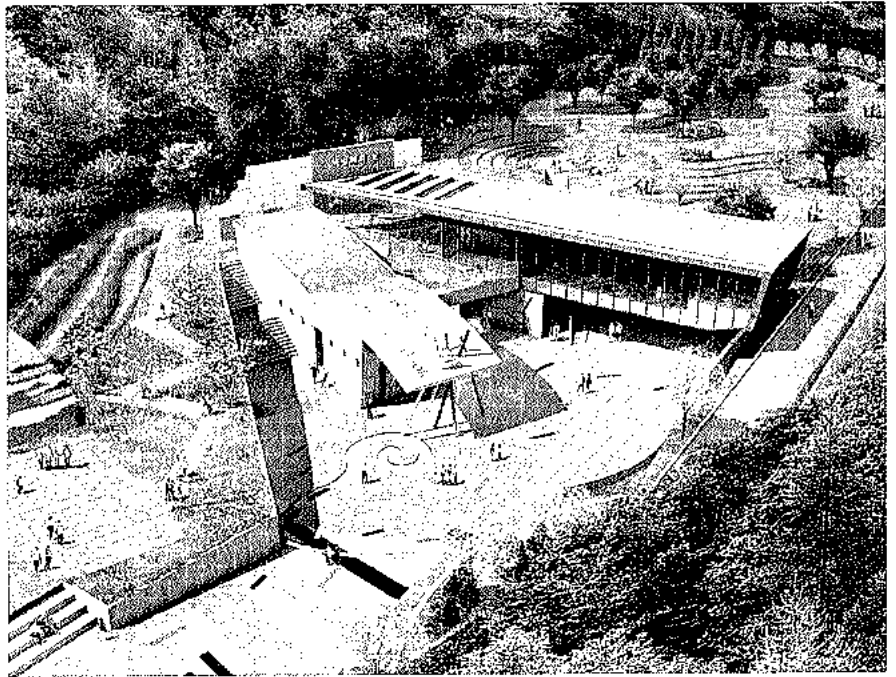
- 원거리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음
-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및 청소년 이용객 많음
- 주변환경분석
- 배신임수의 남북으로 긴 대지 형태
- 울동공원내의 여러 휴게시설 중 잔디광장, 관람광장과 근접하여 위치함
- 호수가 직접 내려다 보이며 숲속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음
- 주차장에서 SITE위치가 인지 가능함
- 공원 내 3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 싸여 안정감을 주는 곳에 위치함
- 대지종합분석
- 진입축과 지형축이 일치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OPEN VIEW와 산골짜기로 올려다보는 CLOSE VIEW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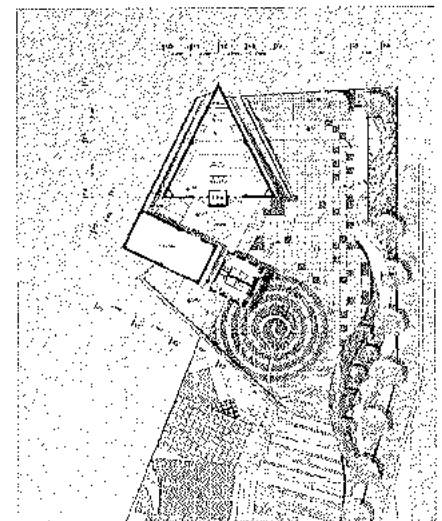
- 완만한 경사지로 주변은 산으로 둘러 싸여있음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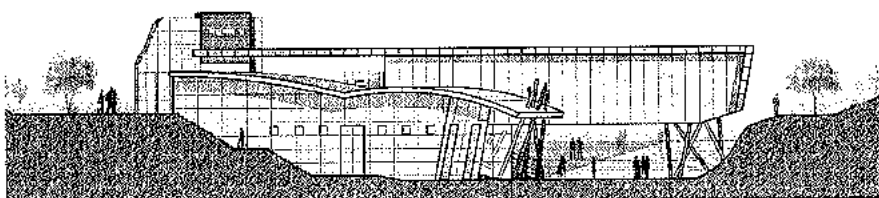
- 대지 입구부분에 광장을 계획 - 진입로에 있는
광장과 연결 공간
- 대지의 중심부에 건물을 두어 긴 대지의 공간
활용도 향상
- 완만한 오르막 대지의 특성을 살려 산책동선
구성
- 주 공간의 사이사이에 원충 및 연결공간을 둠
- MAIN동선을 대지의 한쪽으로 두고 주요 공간
을 반대쪽에 순차적으로 구성
- 주요 진입동선에서 광장 및 건물, 휴게 공간으
로 가는 길이 연결됨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군포시 어린이도서관

Gunpo-si Children's Library

당선작 / 회현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청영 · 구자선 · 이대근)

대지위치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농안공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어린이 도서관

대지면적 63,271.50㎡

건축면적 837.98㎡

연 면 적 2,200.58㎡

건 폐 율 1.32%

용 적 륜 3.11%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5대 (장애인 주차2대포함)

외부마감 베이스페널, 화강석버너구이, 적삼목, 컬러
복층유리

설비개요 EHP 냉난방에어컨

설 계 팀 구태형, 차순호, 이승훈, 조창남, CG-건축
공간

기본구상

- 군포시의 상징성 및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Land mark 형상으로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장소성 부각
-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의 정서에 적합하며 주변자연공원과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도서관 조성을 목적
- 배경을 이루는 자연(산)의 형태와 중첩되어 자연 과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을 조성
- 항상 열려있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MASS 및 어프로치 계획
- 시설의 접근성 및 문화공간의 기능별 조닝과 효율적 동선계획으로 이용률 극대화
- 장래 증축 및 확장을 고려하고 유지관리 경비 및 효율의 극대화

종합배치계획

- 도로에서 건물을 통해 자연으로 향하여 자연과 의 연속성 추구 및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배치
- 건물형태에 의해 형성된 내외부 공간을 적극적 활용 및 영역성 확보
- 열림(앞마당)→만남(사이마당)→어울림(안마당)→승화(다목적놀이마당)

동선계획

- 기존 형성된 공원 내의 등산로와 연계, 사잇길을 두어 어느 위치에서든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이용률을 극대화 유도
-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자연발생적인 레벨차를 이용해 분리
- 엘리베이터를 이용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용을 도움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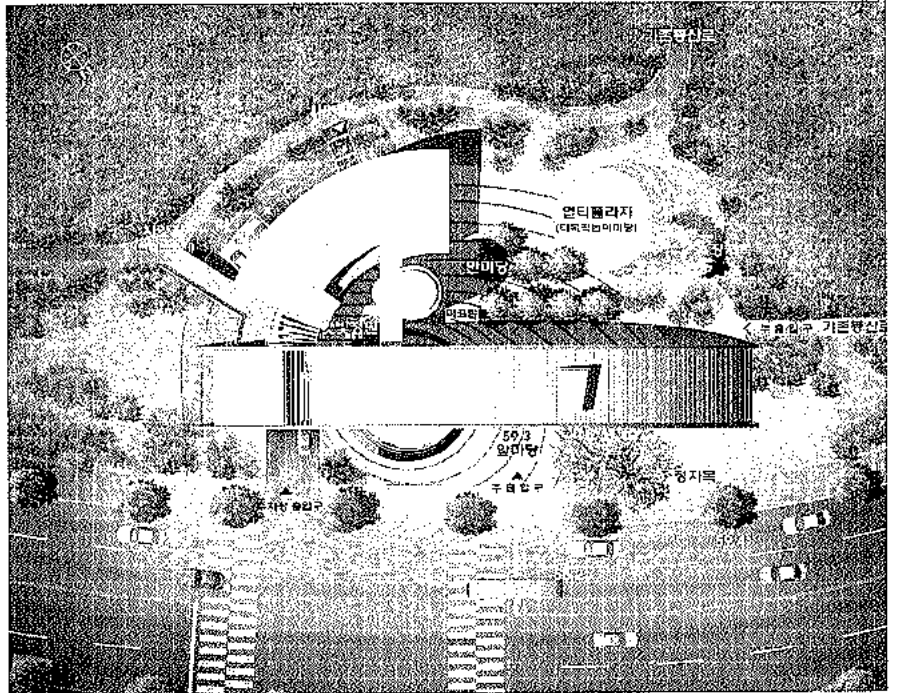
- 영아열람실과 유아열람실을 별도 구획, 내부를 오픈시켜 이용자의 창의성과 연령별 독립성 확보 및 자연적인 개방감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부모와 함께 하는 공간인 **이야기방**을 두고 이야기방의 형태를 태이를 입태한 모습으로 하여 부모와 함께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 창출
- 층별 열람실을 같은 평면 위치에 둬으로써 시설의 연계성을 중
- **재미있는 도서관** 계획의 하나로 2층 Deck 공간에서 1층을 연결하는 미끄럼틀 계획(놀이거리 제공)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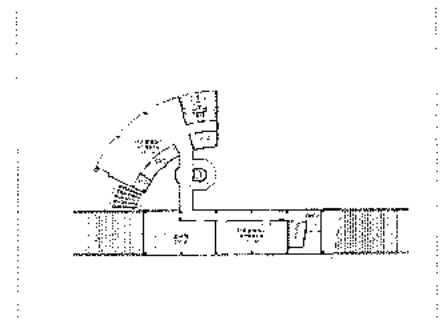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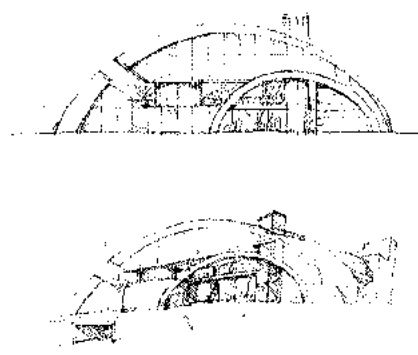
- 배경을 이루는 자연(산)의 형태와 중첩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향한 게이트와 이미지와 프레임임을 통해 자연을 보여주는 회화적 이미지
- 책의 중첩된 모양을 입면에 형상화하여 도서관의 상징성 강조
- 불규칙한 패턴을 통해 자연발생적인 수목의 형태를 이미지화
- 멀티프라자(다목적 놀이마당)와 연계한 멀티월 계획(멀티비전 설치) - 자연학습영상, 운동경기 관람 등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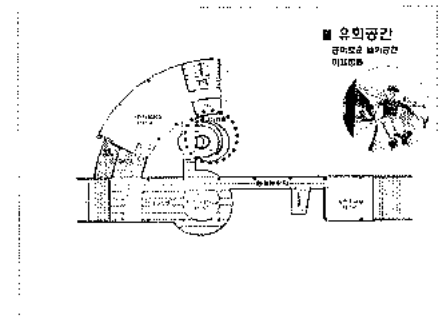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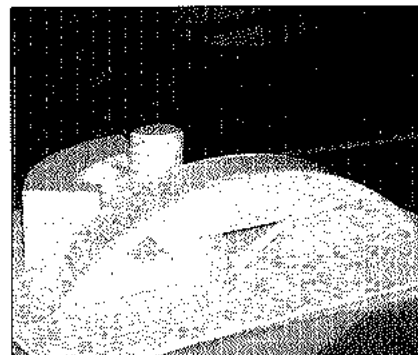
- 곡선볼륨을 이용 향후 증축을 고려한 층고계획
- 대지레벨을 이용한 보이드된 필로티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형성으로 차량분리
- 경사면을 이용한 내부 및 외부공간의 활용(이야기마당,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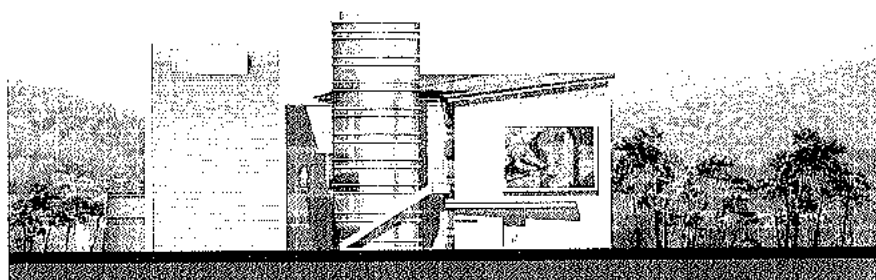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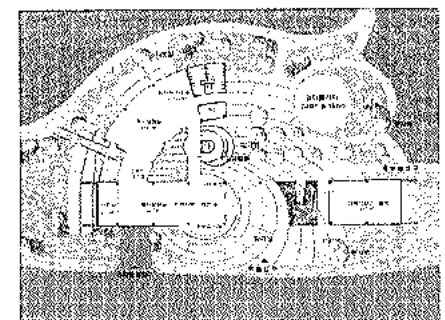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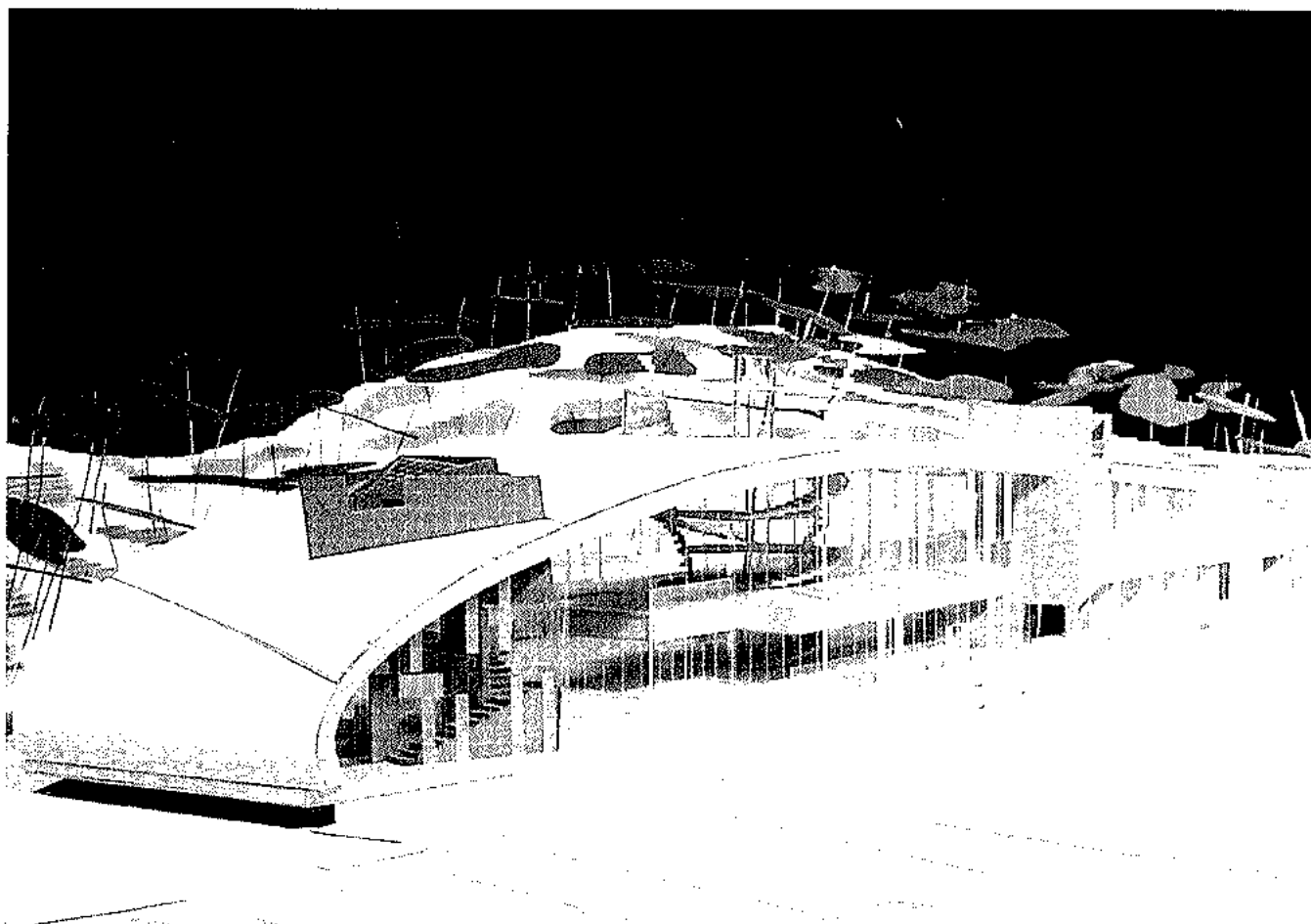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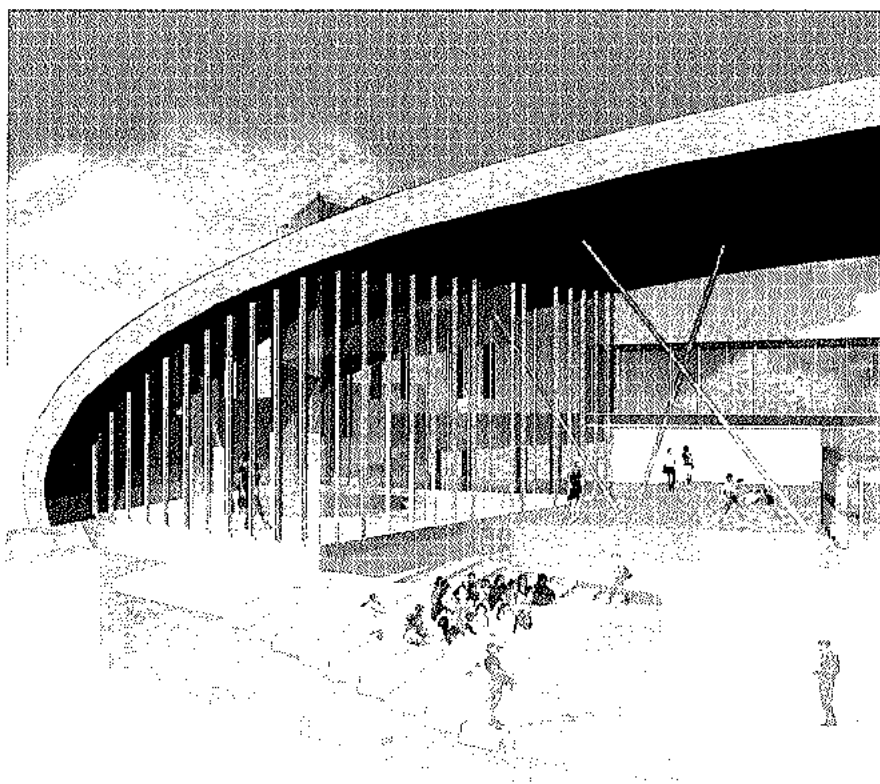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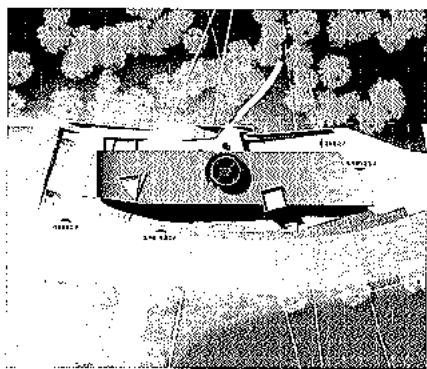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군포시 어린이도서관 Gimpo-si Children's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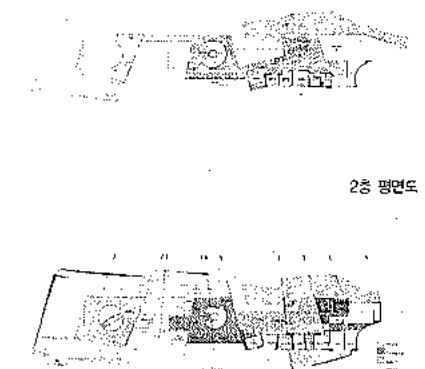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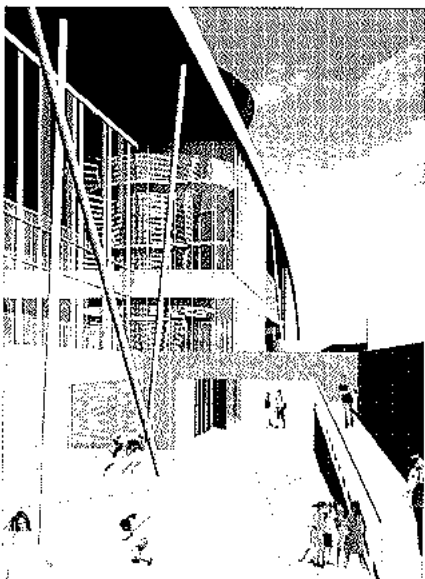
우수작 / (주)김이종합건축사사무소(오정임) + 김우영

대지위치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능안공원
대지면적 63,271.5㎡
건축면적 1,426.52㎡
연 면 적 2,315.87㎡
건 폐 율 2.25%
용 적 륜 3.6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구조
주차대수 12대(장애인용 1개소포함)
외부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THK16 라미네이트
유리, 조립식석재경량복합패널
설 계 팀 장웅태, 공지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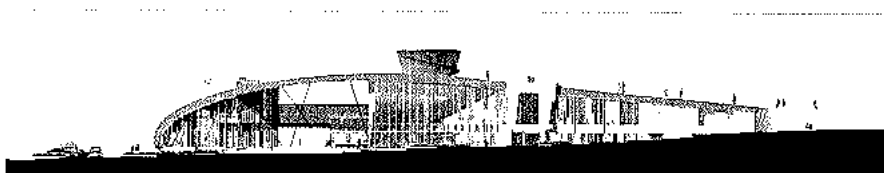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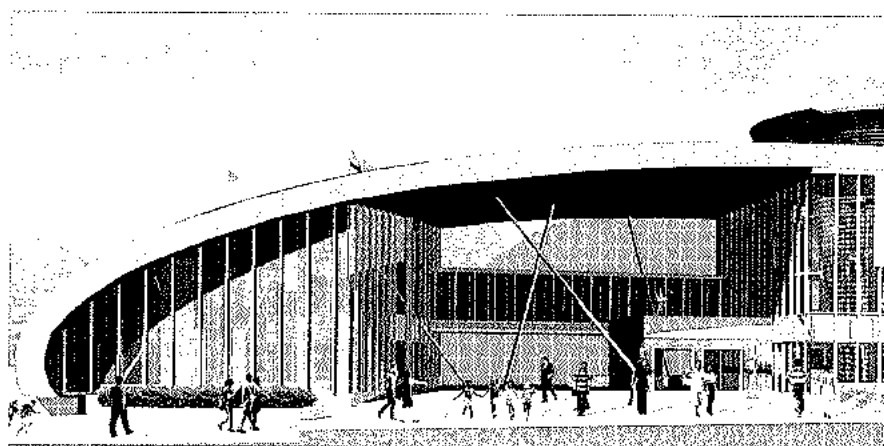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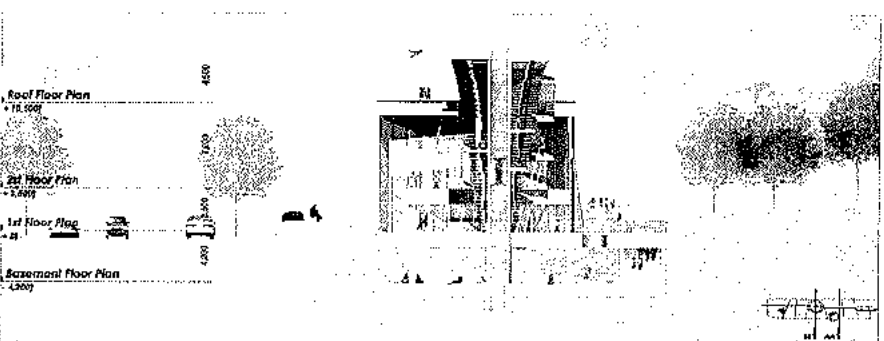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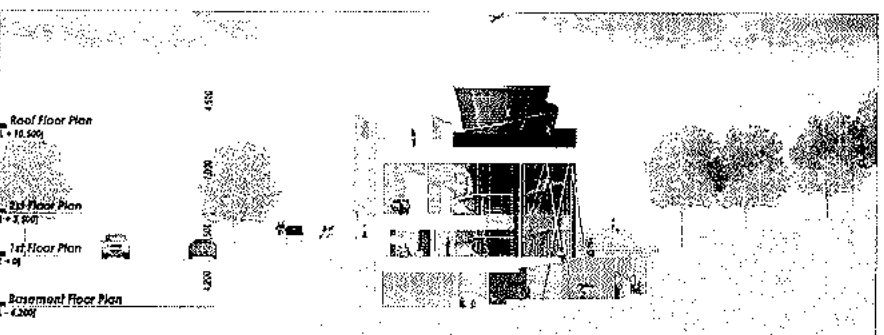
남측면도



단면도



B-B 단면도



A-A 단면도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인력개발원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금두연)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번지(현 아래 빌딩)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474.12㎡
건축면적	3,564.73㎡
연면적	45,392.03㎡
건폐율	47.71%
용적률	350.76%
규모	2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323대(장애인주차 7대 포함) 지상 12대 지하 308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투명강화유리, 컬러 PC패널, THK24컬러보충유리
설계팀	최준성, 박희준, 조 일, 구자해, 장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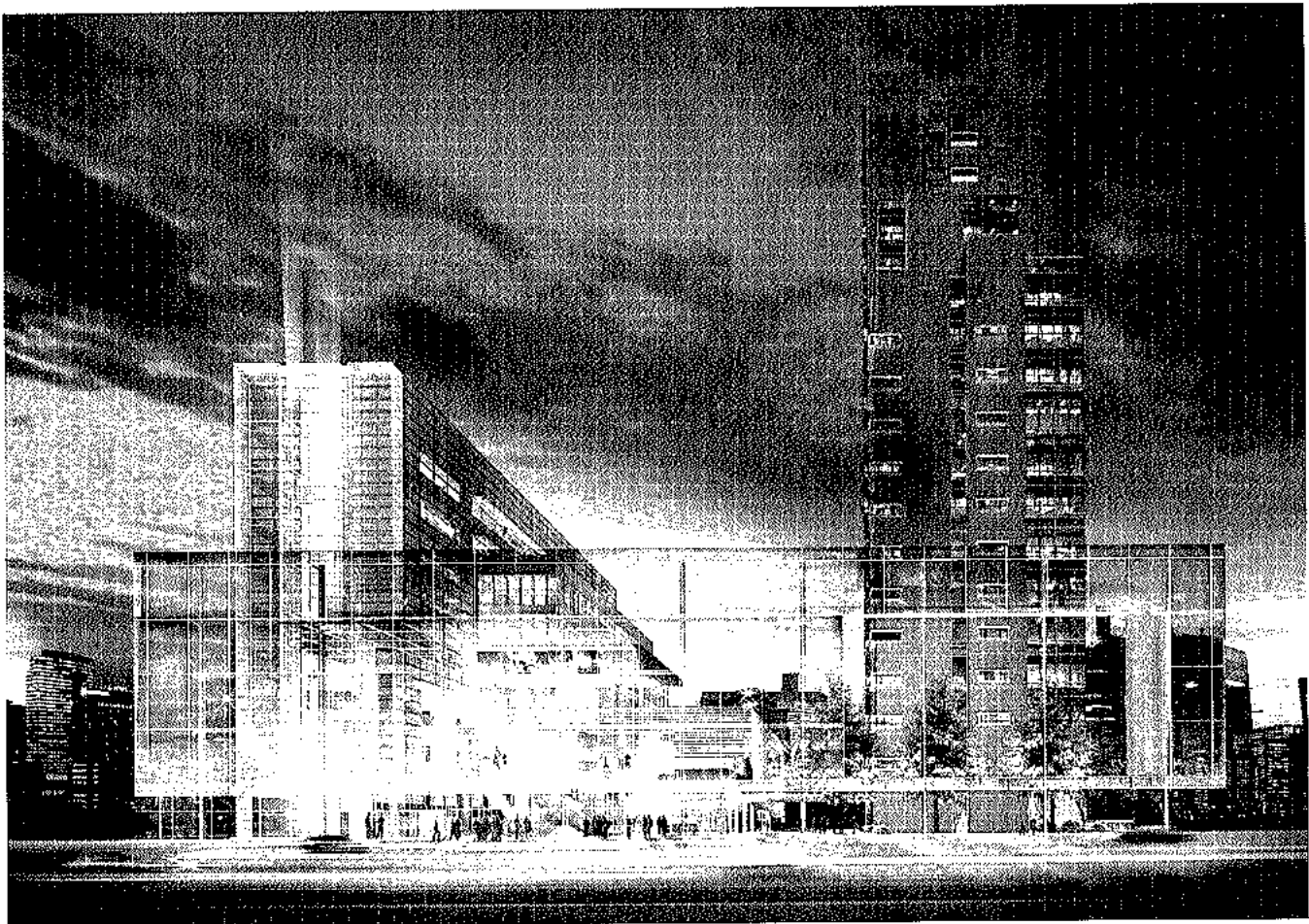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산업인력 연수센터로서의 완벽한 교육훈련 기능은 물론 일반 건물과 차별되어지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양화대교를 잇는 정면 35m 도로에 사회진출의 창이자 교육정보의 창을 형상화한 아트리움과 정면 유리벽(Viz Screen)은 미술에서의 클라주와 같이 산업인력 연수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수용하고 표현한다. 합리적인 평면, 환경친화적인 공간, 상징적인 외관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산업인력 연수센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번지로서 부지의 중앙과 북측의 기존 건물들을 철거한 후 지상 8층, 지하 5층, 연면적 6,000평 규모의 산업인력 연수센터를 제안하였다. 계획안의 주요 프로그램은 인력개발 사업단과 대한상의의 업무시설과 연수생들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다목적 문화·집회 시설로서의 대강당과 회의시설들, 그리고 근

린생활시설 등 네 가지 주요 기능들이 공적인 아트리움과 정면 유리벽에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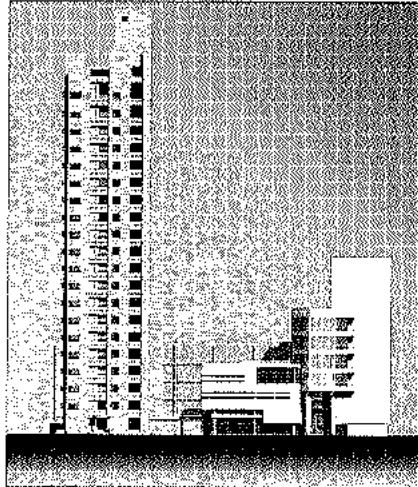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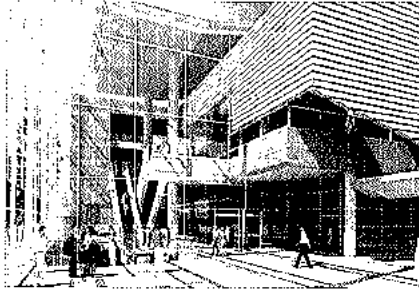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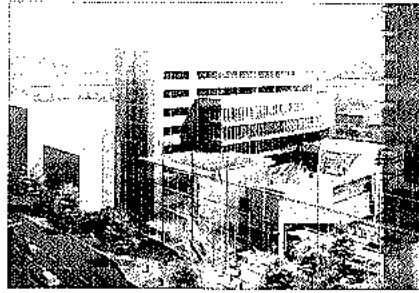
전체 공간은 북측의 교육·업무동과 중앙의 아트리움, 남측의 2층 강당매스, 그리고 서측 전면부의 전면 유리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박스형의 교육동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한다. 주요 외장재인 유공 메탈 패널은 북측 공장 건물로부터의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은 물론 개폐에 따라 한강으로의 조망 확보와 가로변에서의 입면 구성이 항상 변화하는 첨단적인 호기심의 상징으로 될 것이다. 박스에 부착된 6층의 커튼월 업무동은 당산역에서의 접근에 대응하도록 매스의 각이 변화하며 남측의 일조권에 대응한다.

한강을 향한 배의 형태를 상징하는 다목적 강당동은 가로로부터의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35m 가로변에 면해있으며, 뛰어난 형태적 인지성과 따뜻한 목재패널의 재질로 마감되어 제 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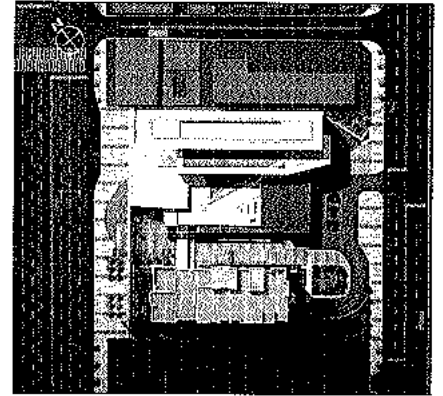


용권과 마트, 인터넷 카페 등을 수용한다. 아트리움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의 매스들과 진입 동선들을 통합하고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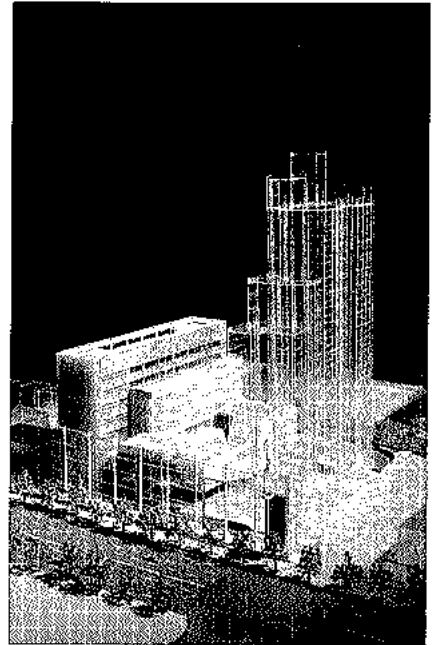
주요 디자인 요소로서의 전면 유리벽은 투명(Via)과 정보(Information) 그리고 자리매김(Zone)의 합성어이다. 산업인력 연수센터에서의 교육·훈련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면 유리벽은 미술에서의 콜라주와 같이 산업인력 연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축·조경적 요소들을 투영하며 광고·홍보의 막으로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크럽고 어지러운 양화대로변에서 전면 유리벽과 그 뒤에 아트리움은 하나의 보호막으로서 소음을 차단하며 외래인의 접근에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최적의 교육환경을 위해 계획되었다. 전면 유리벽을 통하여 내부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볼 수 있으며 내부 수익시설과 산업 연수센터의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첨단 미디어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간에 붙어 켜진 산업인력 연수센터는 정적인 가로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도시의 핵으로서 기능하며, 한강으로 향하는 차량들에게 시각적인 Focal Point가 될 것이다. 본 계획안은 도시의 구조와 흐름에 순응하면서 완벽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속 교육·업무 장소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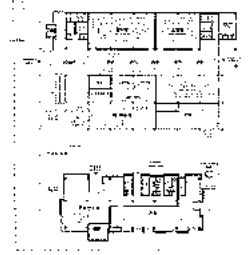
동남측입면도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부산시 남구청사

Busan Namgu District Office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임동건)+C&T종합건축사사무소(박종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와 3필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5,214㎡

건축면적 3,321.79㎡

연 면 적 22,475.30㎡

건 폐 율 21.83%

용 적 량 95.25㎡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규 모 규모 : 본청사 지하 2층, 지상 7층
의회청사 지하 2층, 지상 3층

주차대수 지상-52대(의전/응급차량포함)
지하-253대(장애인주차 14대포함)

외부마감 THK3 AL SHEET, 석재마감, THK24 북
충유리

설 계 팀 이정후, 정진환, 김학건, 윤종호, 최지영,
정복선

건축개요

이 프로젝트는 21세기 해양수도 부산 남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로서 지침에서 제시하는 큰 목표는, 구청사라는 공공시설을 통해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본개념

이에 이 계획안은 건축적 접근방식(청사건물, 의회건물)이 아닌 도시적 접근방식(청사주변환경)이라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현재 계획부지의 남측에는 못골역 등 도심교통의 주요시설이 형성되어 있지만, 북측 주거지역과는 단절되어있고 도시적 흐름이 끊겨 있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단절된 주변환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기본개념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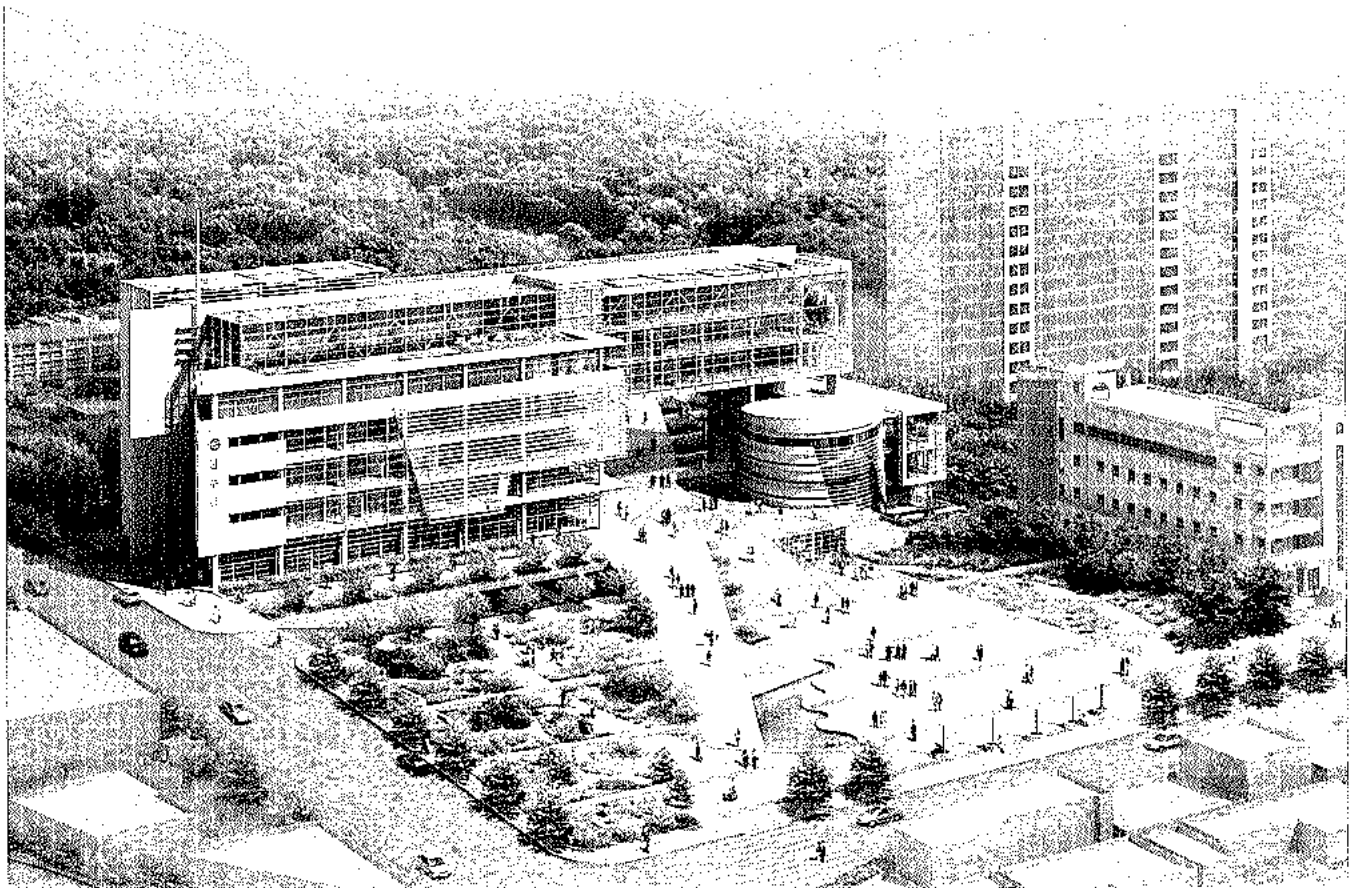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우리는 남북 도시흐름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과감하게 청사동을 들어올렸다. 이는 과거 권위적이고 상징적이었던 청사가, 이제는 구민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한 행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사각형 오픈 프레임(□)'은 청사와 의회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켰고, 측면도로에서의 빈번한 접근을 고려하여 민원실이 포함된 청사동을 좌측에 배치시켰다. 전면광장의 좌측은 도로 경사를 따라 녹지로 조성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우측은 구민광장을 조성하고 의회, 보건소, 다목적강당, 식당과 연계함으로써 구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 단면계획

평면과 단면계획의 주안점은 단순하고 분명한 공간조닝과 아트리움을 통한 개방된 환경의 조성이



었다. 청사동의 공간계획을 보면 지하 1, 2층은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할애함으로써 지상을 보행 공간화 하였고, 지상 1층은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계획으로 구민 이용 및 광장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 지상 2, 3층은 민원서비스공간을, 지상 4층은 자원관련시설을 배치시켜 민원존과 업무존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지상 5, 6, 7층은 순수업무공간으로 지침에서 제시한 3개국을 각층에 분리 배치시켰다. 의회의 공간계획을 보면 서측의 타원매스부분은 본회의장, 회의실, 문서고등 채광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실을 배치시켰고, 동측은 사무실, 위원회실등 업무시설을 배치시켜 근무환경을 증진시켰다.

입면계획, 매스계획

건물의 입면을 포함한 매스형태의 개념은 '개방과 비상'이다. 도시흐름의 연계를 위해 들어올려

진 건물형태는 시원한 개방공간을 연출하고, 이러한 개방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상부는 투명한 유리재질을 사용하였으며, 도약과 비상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남구청의 외지는 전면의 사선형태 루버로 상징화하였다.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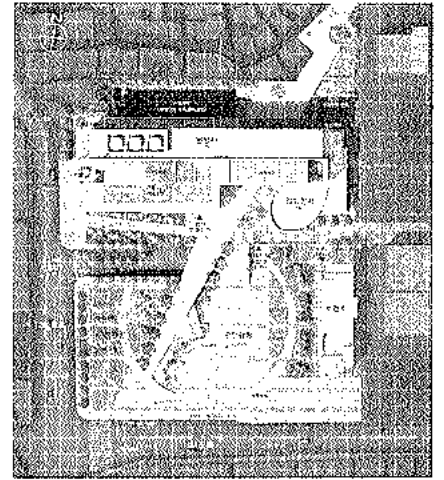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의 전체적인 개념인 '입구(口)'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C해양도시의 관문(口) - 남구를 대표하는 상징의 Gate가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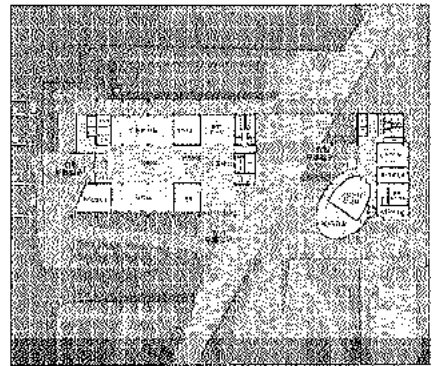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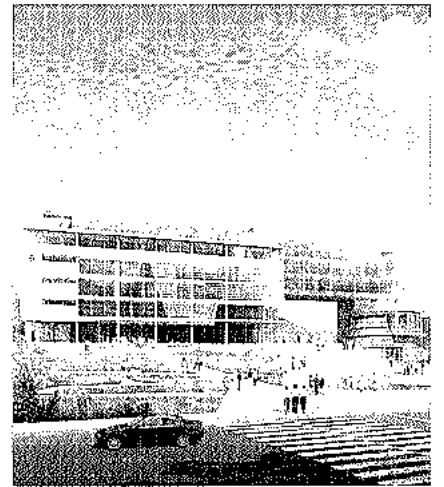
둘째, 미래를 여는 문(口) - 남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풍경의 문(口) - 지역내 공원 및 행정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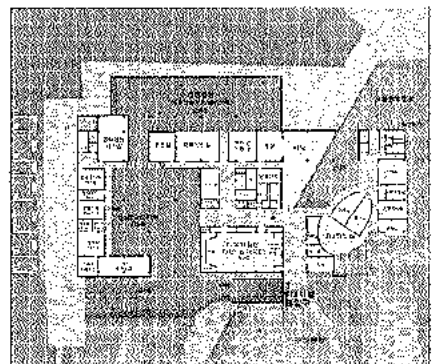
넷째, 교류의 문(口) - 구민 교류의 공간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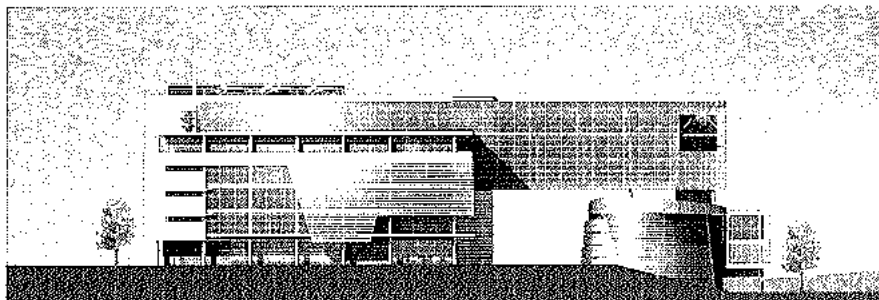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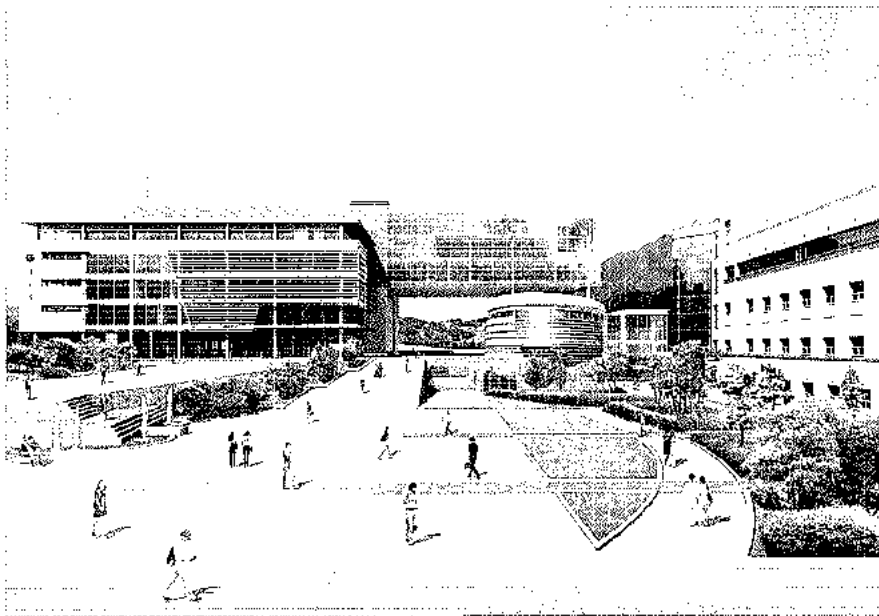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국악기체험전수관

Center for Korean Classical Music Instruments

당선작 / 예담건축사사무소(김규석) +
박광범(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지위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53-1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문화 집회시설

대지면적 1,983㎡

건축면적 530.1㎡

연면적 1,387.16㎡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설계개념

- 국악에 대한 영동군의 자긍심, 전통 고취
- 국악체험 전수를 위한 메카로서의 역할부여
- 정보화시대의 대응, 국악의 대중화
- 환경친화,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평면개념

- 가야금, 거문고 등을 형상화
- 이용자 유형별 공간분리(이용자의 편의도모)
- 대지형상, 경사지, 조망을 고려한 평면 구성

입면도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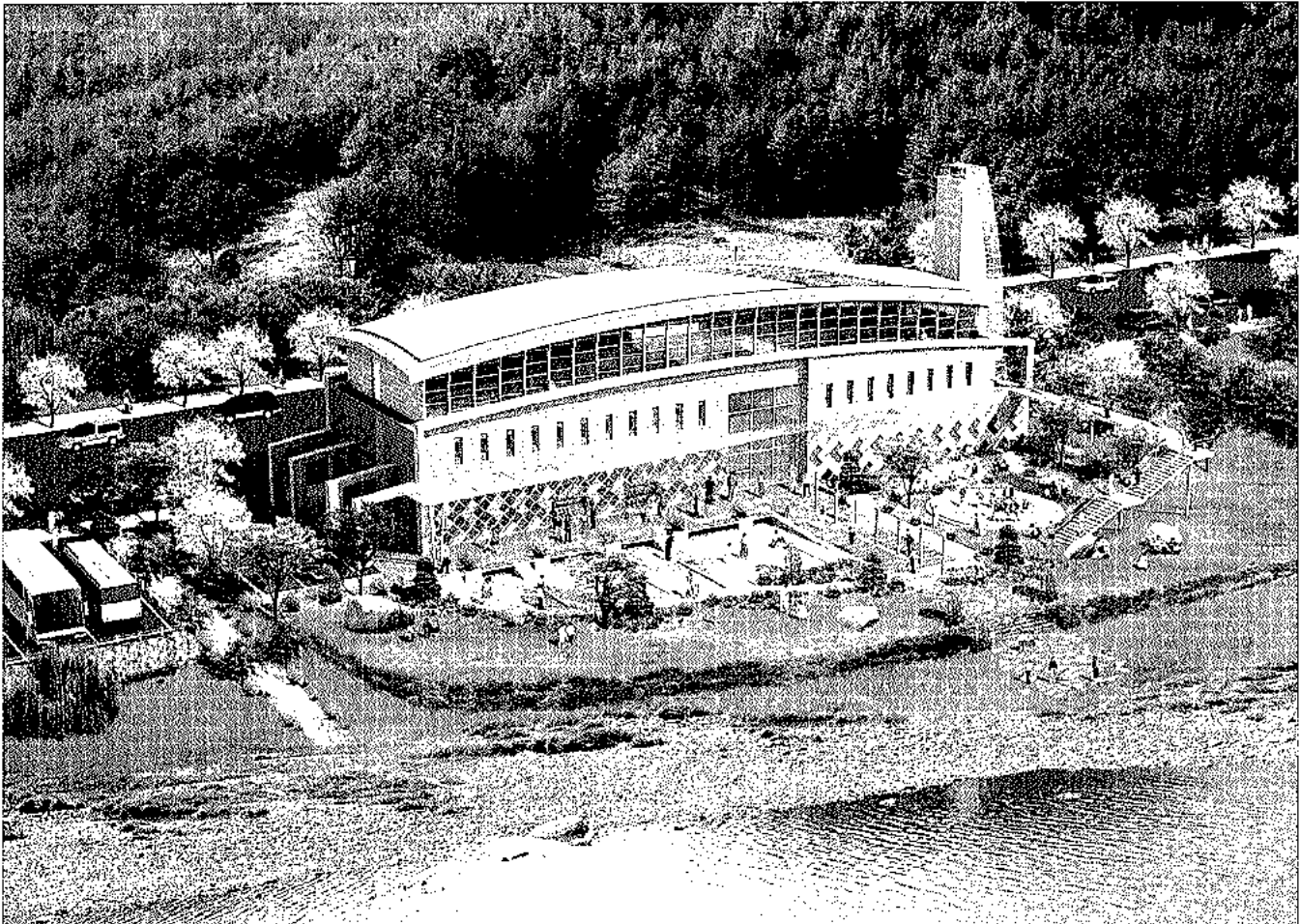
- 주변 국악박물관(전통건축형상) 및 자연지형과의 조화 및 현대적 이미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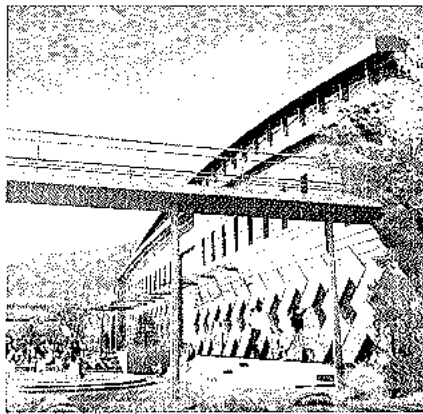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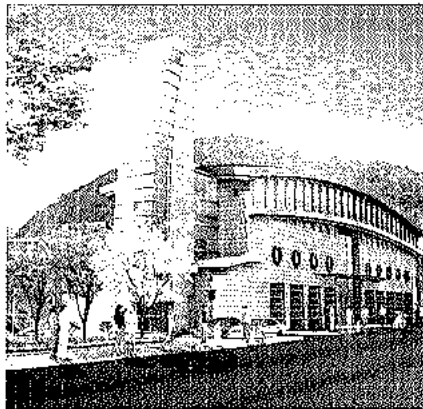
- 국악기(편종, 편경)의 모양을 입면계획 요소로

디자인 - 국악기 이미지의 상징

- 전통주거건축(초가지붕) 곡선의 이미지를 형상화

- 내부 공간 기능을 고려한 창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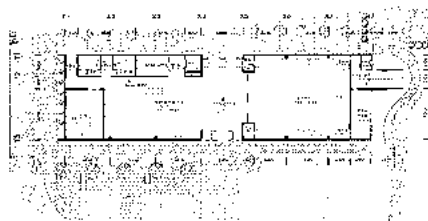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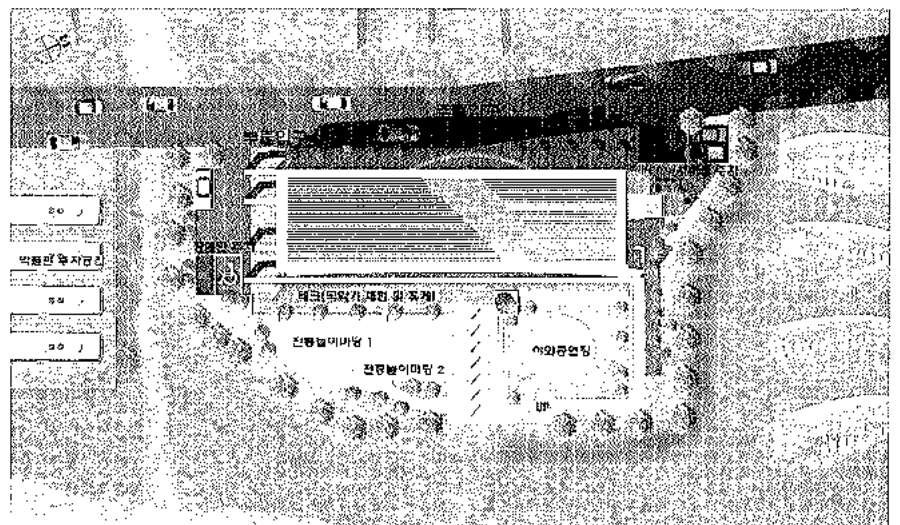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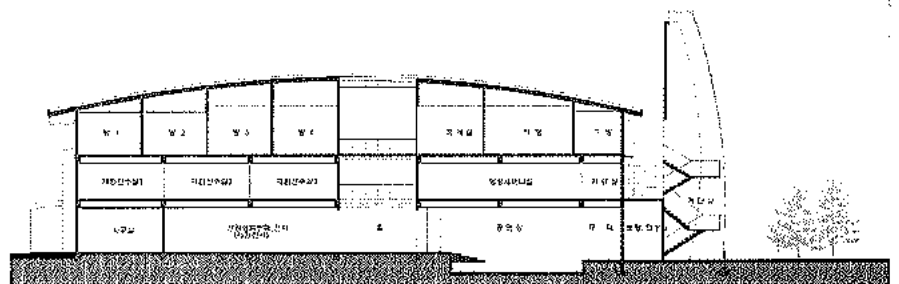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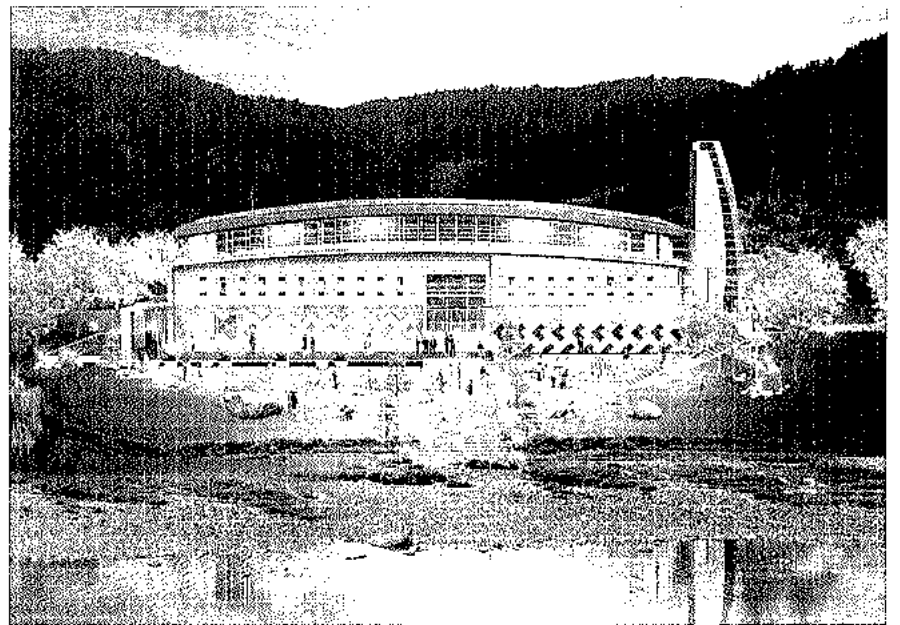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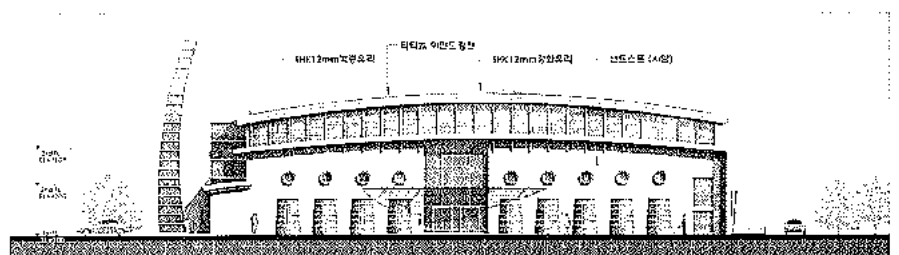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형단면도



정면도

Domus

2004년 6월

▶ OMA의
Seattle Central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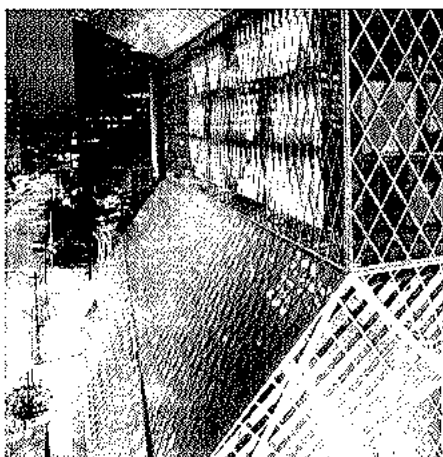
다음의 키워
드는 Seattle
Library에서
OMA가 의도한
것과 보여주고
자 한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

- 정의

도서관은 지식과 엘리트주의를 대변하는 전형적
인 사실이 아니라, 초대하는 장소이며, 안락하고
항상 문이 열려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도서관은 지
역 공동체의 허브이며, 도시의 삶을 통합하는 부분
으로서 재 정의 되어야 한다. Rem Koolhaas는
도서관 안에 도시 부랑자의 거처, 서점, 극장, 티켓
오피스, 푸드코트 등이 있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
가하고 반문한다. 도서관은 교류의 중심지이다. 다
시말해 근대의 광장-day agora-이다.

- 유연성

시애틀의 스포츠 경기장이자 전시장이었던
Kingdom은 그 용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패하였
다. flexibility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OMA는 모든
용도,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지



Seattle Central Library

않았다. 도서관은 쓰임에 맞는 장소들로 이루어진
다. 특정한 공간과 프로그램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것이다. 너무 경직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
고 너무 유연성 있지 않은 방식으로.

- 특성

환영하고 친근하면서도, 시애틀의 중심도서관으
로서 거대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도서관
은 설정되었다. 고전적인 카네기 펠론 도서관이나
낮고 평평한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이 아닌 그 중간
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배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그 정체성을 두었다.

- 시각/문자 자료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문자 자료뿐 아니라 시청
각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비디오, 이미지, 컴퓨
터와 비디오 게임 등,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들이
무시했던 팜문화적인 아이템들이었다. Rem
Koolhaas는 "도서관은 시각적인 것으로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적응하고 그것을 이
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기술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이 도서관은 기술의 중심
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시애틀의 위상을 반영할 것
이 요구되었다. Wired 잡지의 Brad Wieners는
도서관 디자인은 web의 은유에서 통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 가상현실에서 항해하듯이 이용객은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 탐색할 것이다.

- 아우라 (Aura)

가상현실의 시대에 새로운 매체는 오직 책의 아
우라-물질성, 즉각적인 접근, 찾아보기 편리함, 촉
각의 발생과 그것이 내포한 기억 등을 통해서 강화
된다는 것은 패러독스이다.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책을 대상으로서 보고 그것을 제거하여 디지털 미
디어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도서관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새
로운 형태의 열람실은 실제 책의 아우라를 강화시
킨다. 실제 책은 새로운 건축 안에서 보존될 것이
며,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다.

- 반즈 앤 노블즈 효과 (Barnes & Nobles
Effect)

Rem Koolhaas는 Barnes & Nobles가 실제적

인 도서관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책을 사고 그것들을 읽고 반환한다. 보다 덜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서점은 도시의 불변의 장소이다. 그 자체로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서관은 Barnes & Nobles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다.

- 시애틀 성 (Seattl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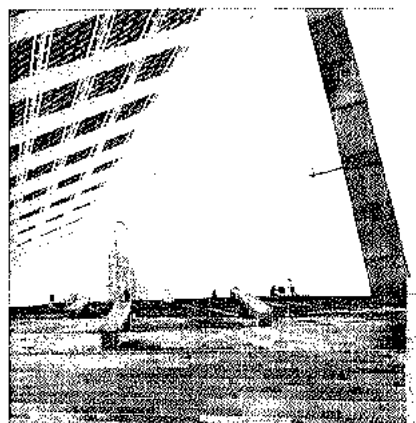
새로운 도서관은 반드시 시애틀을 위한 도서관이어야 한다. OMA의 목표는 시애틀의 다양한 문화-마이크로 소프트웨어 Grunge에 이르기까지를 아우르는 건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무 튀지 않은 방법으로 시애틀성(性)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념비적인 것은 거부하고 편안함과 단정함이라는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 도서관은 시애틀의 센터피스이며 다운타운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은 반드시 시애틀의 정신을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 Forum 2004 Barcelona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인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인가? 카탈로니아 태생의 건축가 Joan Roig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근 완공된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Stefano Boeri :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공공 공간의 의미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Joan Roig : 요즘은 공공 공간을 도시의 수직적 적층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지하에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위에 광장에 있으며 광장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가 매달려 있는 구조이다. 이 레이어는 물이 될 수도 있고(Herzog



Forum 2004 Barcelona

de Meuron의 대화의장), 빛이나 태양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Torres and Lapeña)

SB : 바르셀로나에서 당신이 말하는 공공 공간은 미리 정해진 용도가 없는 불확정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가?

JR : 80년대와 90년대의 공공 장소의 계획에서는 공간의 기능적인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모델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용도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귀일 공원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오늘날 그곳은 아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은 이 포럼의 계획에서도 유효하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6월

■ 예술을 위한 건축

갤러리 와 박물관은 소수의 지식인과 귀족을 위한 사적인 시설에서 공공을 위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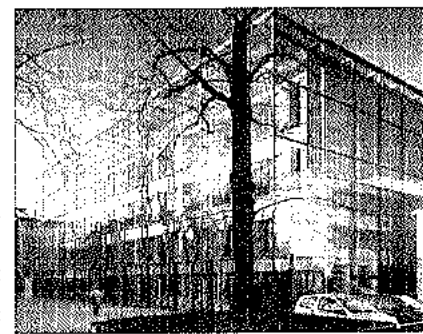
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극장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예술의 민주화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위대한 건축물을 발생시켜왔다. 텔레비전의 위력은 예술을 위한 건물을 변화시켰으며, 예술 그 자체의 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텔레비전은 일상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대한 열망을 발생시켰다. 예술은 이 현상을 받아들였고, 그 예술을 수용하는 건축 역시 놀라움과 충격 요법을 도입하였다. 그 대표적 예는 Liebeskind의 박물관으로 건물 자체는 내용물을 압도하였으며, 전시 경로에서의 경험은 놀라움과 충격을 동반한다. 그러한 장치는 1933년과 1945년 사이의 유대인 학살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압도물게 하고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 이와는 대비되어서, Frank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LA의 콘서트 홀은 놀라움과 충격을 주면서도 도시와 예술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 빌바오 미술관은 다소 단조로운 작은 도시에 시각적 중심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LA의 디즈니 홀은 반 도시적으로 유명한 LA 다운타운에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야외 산책로등의 다양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였다.

▶ Architektengruppe Stuttgart의 독일, Bonn, Rhineland Regional Museum

이 박물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측 파사드의 처리이다. 유리로 된 외벽은 목재 벽의 레인스크린이 되는 동시에 외기에 대하여 완충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 유리벽은 지붕에 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유리 케이스를 형성한다. 그것은 단순히 박물관의 상징적 외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전이공간을 형성한다. 노을을 감상할 카페테리아를 위한 반 외부공간이나 반 야외 전 사실이 되기도 한다. 안쪽의 목재 파사드는 이 유리 케이스와 대비를 이루는데, 반쯤 열린 서랍이 비틀어져 있는 형태로 그 열린 틈사이로 창이 형성된다. 실제 창은 매우 좁은데, 이 목재 벽으로 인해 그 크기가 과장되어 나타난다. 이는 내부로 연장되며 측면으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목재의 질감은 더욱 강조된다. 전이 공간을 통하여 또 다른 유리벽을 지나면 주계단이 있는 아트리움이 나오며 상부로 각 전시실로 이어지



Rhineland Regional Museum

는 램프며 복도가 지나가게 된다. 아트리움은 이 건물의 심장이며, 방향성을 알려주는 장소로서 클리어스토리 창과 천창만으로 빛이 유입된다. 전시는 기존의 연대기적 전시에서 벗어나서 '시대', '권력', '야생에서 도시로', '신들에서 유일신으로', '발견의 비밀', 'Rhineland와 세계' 등의 9개 주제 아래 구성되었다. 큐레이터는 역사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도시에 대해 인식하기를 원했고, 건축가들로 하여금 밖으로의 조망을 위한 장치를 만들게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유물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주광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으며, 목재 스크린 장치가 그 해결안으로 제시되었다.

▶ Herzog de Meuron의 스페인 Jerez, 플라멩코 센터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Jerez는 플라멩코의 발원지이자, 그 정신적인 원류가 흐르는 곳으로서, 유명한 플라멩코 댄서를 무수히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심을 재개발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민속 예술의 활동의 중심이 될 City of Flamenco에 대한 현상설계가 실시되었으며 Herzog de Meuron이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가지 문제점을 풀어야 하는데, 작은 스케일의 건물과 미로같은 거리조직의 고밀도 도시조직 안에 거대한 새로운 볼륨을 삽입해야 되는 것과 현대적인 방식으로 플라멩코의 전통을 재 해석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Herzog de Meuron은 Alcazar 버전의 플

라멩코 센터를 제시하였다. 콤플렉스를 담장으로 감싸고 건물을 반사하는 연못과 오렌지 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이 중앙에 마련되었다. 역사적 도시의 중심에 요새인 동시에 낙원이 자리잡아,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아라비안 기하학과 안달루시아 장식을 연상시키는 문양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담장벽은 현대적 의미로는 그래피티 문화와 연결되기도 하며 패턴의 리듬감은 플라멩코의 리듬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6월

■ AIA Award 2004

4월 22일

AIA의 환경분과는 일곱 번째로 올해의 TOP 10 Green Project를 발표하였다. 신축과 리노베

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의 주된 관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의미를 두었는가이다. 아울러 25년상은 세워진 이래 근대 건축의 아이콘이며 도시의 기념비물로 자리매김한 I.M. Pei의 미국 국립 미술관에게 주어졌으며, AIA Gold Medal은 Samuel Mockbee에게 돌아갔다.

■ 근작소개

▶ Future System의 영국 Birmingham Selfridge 백화점

"비스뚱한 여인의 토르소"라 이름 붙여진 Future System의 점토 모형이 건물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4개층에 240,000 sqf 규모의 백화점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가을 문을 연 동시에 영국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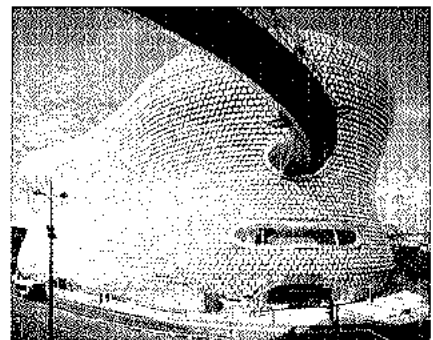
번째로 큰 도시인 Birmingham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건물의 곡선은 단순한 이미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형성되어진 대지의 외곽선을 살린 것이다. 곡면 외피의 공사비를 일반 건물의 외피 수준에서 맞춰야 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따라서 외피는 공장 제작이 가능한 패널을 맞춰서 전체를 형성하는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결국 메탈 판 위에 콘크리트가 스프레이 되어 면을 형성한 후 단열재가 부착되었으며, 그 위에 Yves Klein 푸른색의 스테코가 발라졌다. 15,000개의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디스크가 그 표면을 덮음으로써, 비로소 반짝이는 드레스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 곡선 형태의 창과 문 또한 입이나 눈과 같이 신체적 유추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간판이 없이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쇼핑센터에서 자연광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상품으로부터 뺏기게 하기 때문에 피하여 왔다. 그러나 Future System의 Kaplicky와 Levete는 천창을 두고 부메랑과 같은 형태의 아트리움을 통해 빛이 가득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하는 효과가 있다. 상업시설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건축가는 강조하였다.

▶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30st. Mary Axe

런던사람들은 지난 2년간 마치 만일처럼 솟아올라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온 이 건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곡면 형태는 지역적



플라멩코 센터



Birmingham Selfridge 백화점



Mary A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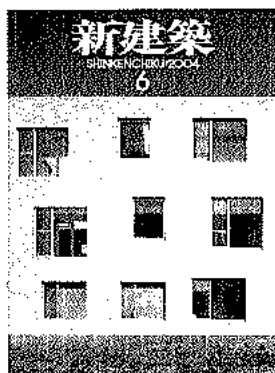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고도의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Foster 작품의 주요 특징이 되어 왔다. 이 타워의 형태는 고층 건물의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으로 좁아지는 타워의 형태는 중세부터 형성된 좁은 거리로 연결되는 플라자에 그늘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SOM의 미국 Greenwich Academy가 소개되었다. (번역 / 전신영)

신건축

2004년 6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집합주택을 다룬 「집합주택을 넘어서」와 금년 4월에서 10월



까지 일본 하마나코에서 열리는 꽃박람회까지 작

업한 「葉生明」팀의 작품들이다. 또한 작품 소개에서는 우리나라의 파주 출판단지 마스터플랜(송효상)과 키시와로와 김영섭이 공동 작업한 파주 SW 오피스가 소개되었다.

■특집: 집합주택을 넘어서

근년 SOHO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빌딩타입에 의한 분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만 이번 특집에선 여피되었든 간에 생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단위들이 집적된 건물을 「집합주택」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집합주택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각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몇몇은 빌딩타입을 무색케 하면서 한상(懸狀)의 문제 대해 집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개의 집합주택 사례와 한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이 특집에서는 집합주택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론 소위 '디자이너스 맨션'을 타파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도시와의 관계 맺기나 공간단위의 만들기, 단위들 간의 관계성, 장소의 사용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드러난다.

▶ 디자이너스 맨션과 이에 대항하는 건축가들
일본에서는 최근 건축가가 집합주택을 설계하게 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 기반 정비공단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의 집합주택에서 개인 주택에 걸맞는 규모의 부지에 지어진 소규모의 집합주택에까지 그 규모 또한 다양하다. 여기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하나의 현상은 이른바 '디자이너스 맨션'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설계한 집합주택'이라는 의미인데, 이 '디자이너스 맨션'이라는 용어는 이미 일반 매스컴에서는 정착된 용어가 되고 말았다. 일반 잡지나 신문, 혹은 이메일 광고를 통해 건축가의 얼굴사진과 함께 디자이너스 맨션(일본에서 맨션은 고급 아파트를 칭한다, 역자 주)의 분양을 선전하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광고에 등장하는 건축가의 대부분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신건축지에 소개되는 건축가들을 이와 같은 광고에서 본 적

은 없다. 디자이너스 맨션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집합주택을 잘 치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차대전 이래 전세계적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을 전제로 해 왔던 집합주택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나면 최후의 소비자인 거주자는 항상 건물이 완성된 후에 나타나며, 주택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했다. 최근의 이와 같은 경향도 결국 주택이 상품으로서 팔리고 있는 상황에 가인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디자이너스 맨션과 같은 서류와는 거리를 두고, 소규모 집합주택의 질을 고민하는 건축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니시자와 류에의 「艦橋아파트먼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신선하다. 통상적인 경우 화장실과 주방을 압축해 가능한 한 넓은 원룸이 되도록 만들기 십상인 작은 규모의 주호를 3개나 4개의 공간구획으로 나누고, 욕실, 주방 및 식당, 거실, 침실 등이 등가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전폐율을 높이고 대신 4층이 가능한 부지에서 층고를 높여 3층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이 이 주택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점은 전형적인 소형 집합주택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며,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도 쾌적한 공간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개성에 맞춘 공간을 꾸밀 수도 있게 한 것이다. 어떤 주호는 주호의 규모에 비하여 사치스러울 정도로 넓



艦橋아파트먼트

은 욕실을 지냈다. 또 다른 주호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방을 지냈으며, 또 어떤 주호는 거실이 넓다. 원룸을 단위공간으로 나누고, 이들 공간의 비중을 주호마다 다르게 계획함으로써, 원룸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원룸을 여러 단위로 쪼개면서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나, 높은 층고가 상당부분 이를 상쇄시킨다. 또한 건물 앞 공지를 확보하는 대신 건물 중앙에 만들어진 두 개의 중정을 통해 주호로 진입하게하고, 좁은 각 실에 충분한 빛과 조명을 제공한 부분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치바 마나부(千葉學)의 'MESH'에서는 건축가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용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艦橋아파트먼트」와는 달리 고급 맨션의 규모인 'MESH'는 디벨로퍼에 의한 일반적인 고급맨션과는 분명 구분되는 선을 긋고 있다. 화장실, 주방, 욕실 등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공간들은 한데 모아 계획하게 마련이나, MESH에서는 이들을 외벽 주위로 둘러서 배치하였다. 거실과 침실은 이들 공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공간의 벽에 의해 침착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주방과 화장실 및 욕실은 창을 통해 밝은 빛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공간이 소통하는 장소로 설정되었다. 건축가는 창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달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내에서, 특히 주방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은



MESH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다. 생활 공간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주변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거실과 침실을 둘러싼 공간의 커가 생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장막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건축가의 의지에 공감하느냐는 거주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사카모토 카즈나리의 「egota house A」는 원래 모두 4개의 주동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에 소개된 A동은 그 1기공사에 해당한다. 「艦橋아파트먼트」와는 달리 건폐율을 낮추어 최대한 공지를 확보하고, 1층을 반지하로 만들어 4층의 규모를 확보했다. 「앞으로의 도시는 공지(空地)의 디자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카모토의 주택지 내 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전체 공간을 배치하는 기준이 되었다. 메조넷 형식으로 된 4개의 주호는 모두 적당한 채광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각 실에 열린 개구부의 크기 및 방향은 실내에서 조망되는 주변 공지의 크기 및 경관을 세심히 배려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에게서 도시주거지의 건축은 새로운 공지를 만들어내고, 주변 공지와 상호 작용하는 건축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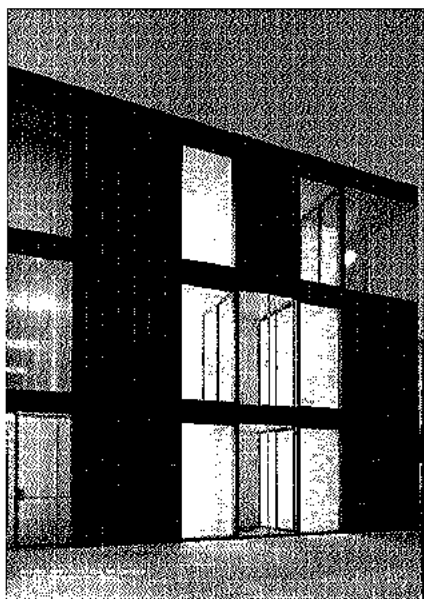


egota house A

▶동시다발적인 출현

개개의 프로젝트는 고유의 부지에 각기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출현한 것이므로 무리하게 그것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이처럼 독특하고 질 높은 「작은 집합주택」이 도시 속에 서로 간에는 맥락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도시 속에서도 흔치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만 하다. 예전에 「Innovation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the Netherlands and Japan」이라는 이벤트가 도쿄대학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 네덜란드로부터 온 참석자의 말을 듣자면 도쿄에서 일어나는 집합주택의 현상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에야 퍼블릭 하우징이 아닌 움직임들이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나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집합주택이라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연동하고, 도시계획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벤트의 세션이 끝나고 「東葉캐널코트 CODAN」을 방문하였는데, 개별 건축의 질적 수준 이전에 높은 밀도와 주호 유니트의 협소함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상당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축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점이 화제가 된 프로젝트였으나, 네덜란드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해 온 나라에서 본다면 부지의 설정이나 밀도, 주호의 규모가 아닌 단지 보잘 것 없이 작은 부분밖에 건축가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견해의 차이가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東葉」프로젝트조차 작고 국소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가능한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여러 프로젝트의 공약수라 하겠다.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모험이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존재하나, 이와 같은 개별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여러 가지 장소에서 획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본에서 생성된 이상하다 싶은 정도로 설계에 에너지를 쏟은 작은 주택이 구미에서 붐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게 만든다.

(번역 / 강상훈)



MESH